

생각지기가 함께 하는 **푸르미**



유아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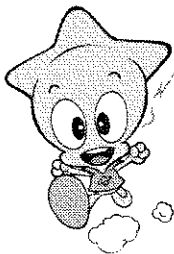
책머리에

환경교육센터는 지난 해 유아환경교육에의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선 유아의 교육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및 유아교사, 그리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보급·모니터링하는 사업, 특히 유아교사 대상 환경교육과 부모 대상 환경정보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진행해 왔습니다. 본 교재는 유아교사 환경교육에 참여했던 전현직 유아교사와 활동가들, 그리고 교육센터 부모 회원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생각지기' 모임 회원들의 정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스물하고도 몇 번째의 연구모임을 지켜주시고, 더불어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주신 생각지기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쪼록 본 교재가 아이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우리의 주변 환경과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유아교육기관과 교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유아환경교육 사업에 뜻을 같이 하여, 기꺼이 악보를 제공해주신 어린이 음반사 '삼살개' 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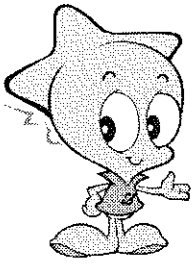
환경교육센터 유아환경교육 연구모임 '생각지기' 회원 드림

교재 활용자를 위한 가이드 - 푸르미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몇 가지 특징들

본 교재는 연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유아환경교육 영역의 체계화, 유아 대상(6~7세) 환경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마련,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다음의 몇 가지 특성들을 갖는다.



-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모듈 형태로 구성된다. 즉 전체적으로 일정한 맥을 가지면서 단독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모듈 형식을 취하였다.
- 아이들의 친구이자 환경지킴이의 상징인 푸르미를 등장시킴으로 보다 친근하게 아이들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언어, 수·과학, 음율·신체, 이야기 나누기, 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주제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월별 대주제로 정하였다.
- 실외나 자연에서의 수업이 용이한 환경이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을 병행하였다.
- 여전히 지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는 측면의 과제는 남겨져 있다. 대신에 어느 지역에서나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무게를 실었다.



목차 contents

[3] 책머리에 · 교재 활용자를 위한 가이드

[3월 우리 유치원 13]

- | | | |
|---|----------------------------|---------------|
| 1 | 푸르미의 입학식 | 이야기 나누기 |
| 2 | 푸르미 꾸미기 | 미술 |
| 3 | 푸르미의 약속카드 만들기 | 언어 |
| 4 | 유치원 둘러보기 | 언어, 수 과학, 신체 |
| 5 |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요! |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
| 6 | 푸르미의 노래 | 음악 |
| 7 | 햇볕 | 음악 |

[4월 식물 21]

- | | | |
|----|-----------------|----------|
| 1 | 꽃 이름을 지어 보아요 | 언어 |
| 2 | 봄나물 | 이야기 나누기 |
| 3 | 봄나물 하러 가자! | 신체 |
| 4 |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 이야기 나누기 |
| 5 | 나무일기 | 미술, 수 과학 |
| 6 |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 수 과학 |
| 7 | 벚꽃잎 책갈피 | 미술 |
| 8 | 목련 꽃잎 전시회 | 미술 |
| 9 | 꽃을 찾아오는 곤충 만나기 | 수 과학 |
| 10 | 개나리꽃 | 음악 |
| 11 | 봄나들이 | 음악 |

[5월 쓰레기 35]

- | | | |
|----|---------------|---------------|
| 1 |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 이야기 나누기 |
| 2 | 쓰레기를 태우면? | 언어, 수 과학 |
| 3 | 쓰레기가 물을 더럽혀요!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4 | 자연에서 왔어요! | 언어, 수 과학 |
| 5 | 천연자원이 모자라요!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6 | 푸르미는 쓰레기 분리대장 | 신체, 수 과학 |
| 7 | 내가 살 곳은 어디? | 신체, 미술 |
| 8 | 장난감 녹색가게 | 신체, 수 과학 |
| 9 | 엄마의 장비구니 | 이야기 나누기, 미술 |
| 10 | 강돌이의 여행 | 언어 |
| 11 | 휴지통 속의 친구들 | 언어 |
| 12 | 우리지구 | 음악 |

[6월
동 물
51]

- | | | |
|----|-----------------|---------------|
| 1 | 저마다 사는 곳이 달라요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2 | 뒷산 늑은 호랑이 | 이야기 나누기, 음율 |
| 3 | 나는 어떤 동물일까요?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4 | 박쥐와 나방 | 신체, 수 과학 |
| 5 | 슬픈 동물원 | 이야기 나누기, 언어 |
| 6 | 새가 되어 | 미술, 신체 |
| 7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신체 |
| 8 | 무당벌레 | 이야기 나누기 |
| 9 | 게으름뱅이 무당벌레 | 언어 |
| 10 | 자연물을 이용한 곤충 만들기 | 미술 |
| 11 |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 언어 |
| 12 | 우는 소, 우리 송아지 | 음율 |

[7~8월
물
69]

- | | | |
|----|-----------------------------|-------------|
| 1 | 비 | 이야기 나누기 |
| 2 | 비와 구름 만들기 | 수 과학 |
| 3 | 숲은 녹색댐 | 이야기 나누기 |
| 4 | 물나무 그리기 | 언어 |
| 5 | 물이 필요한 곳 | 미술, 이야기 나누기 |
| 6 | 물을 얼마나 쓸까요? (1) - 손 씻기 실험 | 수 과학 |
| 7 | 물을 얼마나 쓸까요? (2) - 샤워꼭지의 우유통 | 수 과학 |
| 8 | 비오는 날 | 언어 |
| 9 | 빗방울의 여행 | 신체 |
| 10 | 바다의 친구들 | 이야기 나누기 |
| 11 | 비닷속 꾸미기 | 미술 |
| 12 | 붕숭아 물들이기 | 미술 |
| 13 | 웅달샘 아가씨 | 언어 |
| 14 | 꼬마 붕어 빼빼 | 언어 |
| 15 | 은빛 피라미의 소망 | 언어 |
| 16 | 짚이의 바다 | 언어 |
| 17 | 비야 비야 오너라 | 음율 |

[9월
음식, 전통문화
93]

- | | | |
|----|--------------------------|-------------------|
| 1 | 푸르미의 식탁여행 | 이야기 나누기, 미술, 수 과학 |
| 2 | 우리 농산물이 좋은 이유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3 | 계절과 음식도 짝이 있어요! | 이야기 나누기, 신체 |
| 4 | 차곡차곡 쌓여요! | 신체 |
| 5 | 우리가 먹는 음식은? |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
| 6 |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수 과학 |
| 7 | 자연에서 색을 얻어요! | 미술, 수 과학 |
| 8 |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초침) | 이야기 나누기, 신체 |
| 9 |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 언어 |
| 10 | 아주 특별한 점심 | 언어 |
| 11 | 아씨방 일곱동무 | 언어 |
| 12 | 밥상 | 음율 |
| 13 | 감홍시 | 음율 |

10월
공 기
113

- 1 소중한 공기
- 2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 3 깨끗한 공기, 더러운 공기
- 4 자동차 매연 실험
- 5 에코가족 만들기
- 6 산성비가 내리면?
- 7 지구가 더워지면?
- 8 자연물을 이용한 작품전시회
- 9 자연속의 빙고
- 10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 11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
- 12 토끼의 꿈
- 13 별노래

이야기 나누기, 신체
언어, 수 과학, 미술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미술
신체
언어
언어
언어
음울

11월
지구 · 흙
133

- 1 땅속 친구들을 만나요
- 2 흙 만들기
- 3 흙이 살아 있대요
- 4 흙도 병에 걸려요
- 5 모래로 만들었어요!
- 6 아름다운 세계 푸른 지구
- 7 지구의 기본 표현하기
- 8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 (1)
- 9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 (2)
- 10 하나뿐인 지구
- 11 땅

수 과학, 미술
신체, 수 과학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신체
신체
신체, 언어, 미술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신체
음울
음울

12월
에너지
147

- 1 에너지란?
- 2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 3 풍선에서 전기가 생겨요
- 4 에너지가 없다면...?
- 5 음식 없는 하루
- 6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 7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견학
- 8 해노래
- 9 전봇대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신체
수 과학, 신체
미술, 언어,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언어
신체, 수 과학
신체, 수 과학
음울
음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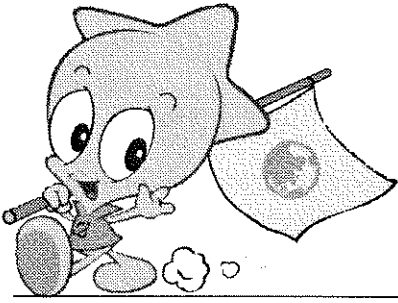
1~2월
환경운동
7

- 1 푸르미의 다짐
- 2 일몰시장 놀이
- 3 지구를 살리는 특공대
- 4 내가 살고 싶은 세상
- 5 벌레먹은 배추

이야기 나누기, 미술
수 과학, 언어, 이야기 나누기
신체
음울
음울

159

연구 및 집필진



주제전개기간 3월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언어

푸르미 약속카드 만들기
유치원 둘러보기



음악 신체

유치원 둘러보기
푸르미의 노래
햇 별



이야기 나누기

푸르미의 입학식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분류하기



미술


푸르미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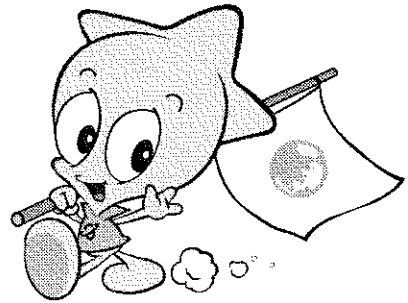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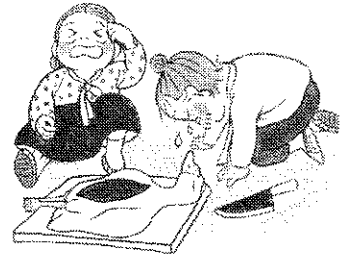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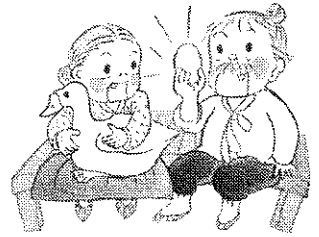



수 과학

유치원 둘러보기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분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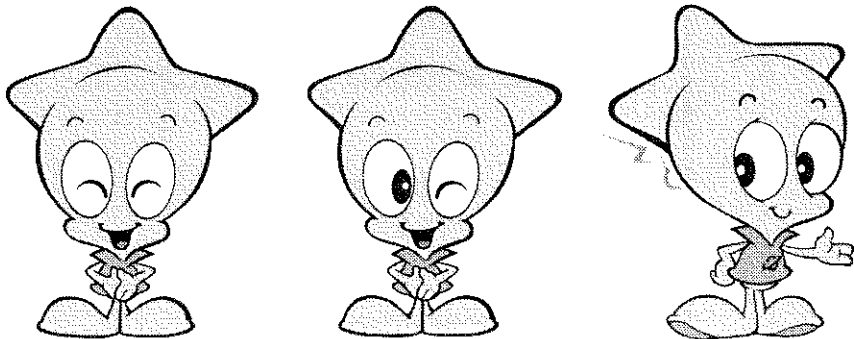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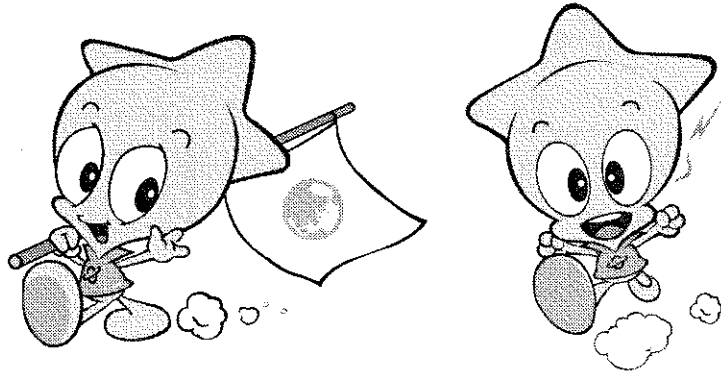
	1	활동시기	3월
제 목	푸르미의 입학식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푸르미가 되어본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푸르미 캐릭터 도안		
유의점 및 기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로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환경으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방법	<p>1. 푸르미와의 만남 -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니? - 거위는 주인에게 무엇을 주었니? (황금알이요) - 거위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지? - 그런데 주인은 거위를 어떻게 했니? (죽였어요.) - 그래,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으려고 거위를 죽였지? - 그런데 주인은 황금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자연과 같은거야. - 자연은 우리에게 조금씩 황금알처럼 소중한 것을 늘 주고 있지? - 그런데 욕심 많은 주인처럼 자연을 망가뜨리고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 요즘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단다. - 그래서 우리 지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친구가 필요한거야. 자 그럼, 너희들과 함께 지구를 지킬 한 친구를 소개해 줄께. <p>2. 푸르미 도안을 보여주며 푸르미를 소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미는 어떤 일을 할까? - 푸르미를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p>3. 푸르미는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 모두가 푸르미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p>		
참고자료	동화 - 황금알을 낳는 거위		




	2	활동시기	3월
제 목	푸르미 꾸미기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푸르미의 역할을 알고, 푸르미와의 친밀감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푸르미 캐릭터 도안(활동성 있는 캐릭터 도안 5가지, 각 캐릭터의 복사본), 색종이, 풀		
유의점 및 기타	푸르미를 꾸밀 때 색종이 대신 한지나 잡지 등을 사용하여 꾸밀 수 있다.		

활동방법

1. 푸르미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설명한다.
- 푸르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니?
2. 푸르미의 모습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유아 스스로 선택한다.
3. 색종이를 찢어서 푸르미를 예쁘게 꾸며준다.




	3	활동시기	3월
제 목	푸르미의 약속카드 만들기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푸르미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고 푸르미로서의 약속을 지킨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약속카드, 푸르미 캐릭터도안, 뺏지, 푸르미 임명장		
유의점및기타	푸르미로 임명하기 전에 푸르미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푸르미의 약속 -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교사: 푸르미가 되어 1년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유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전기를 아껴 써요,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2.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약속 카드에 적어본다.
3. 약속카드에 쓴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며 꼭 지킬 것을 약속한다.
4. 푸르미 임명 - 이제 나도 푸르미예요!
푸르미 뺏지, 임명장을 한명씩 나누어 주어 푸르미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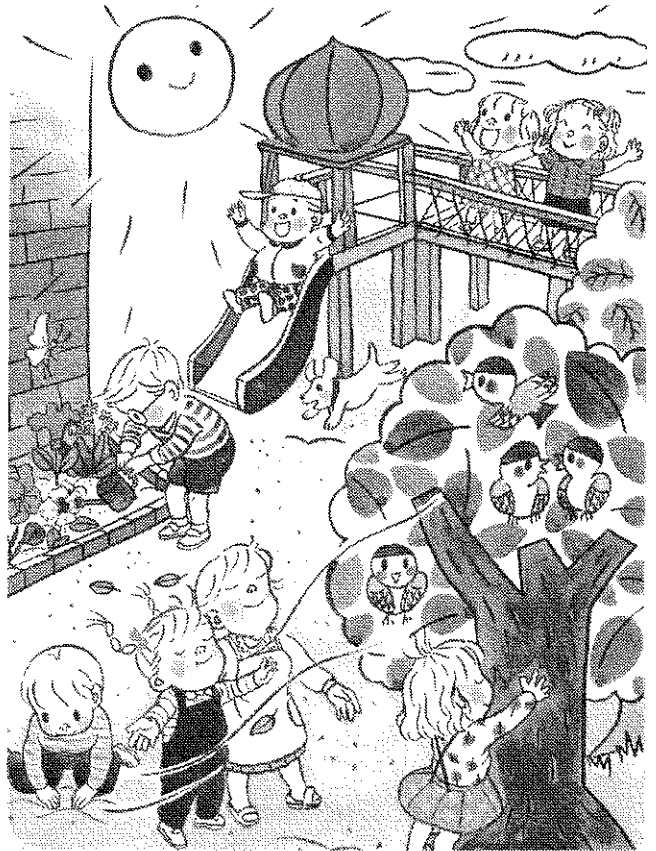
임 명 장


OOO 는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푸르미로 임명합니다.



OO유치원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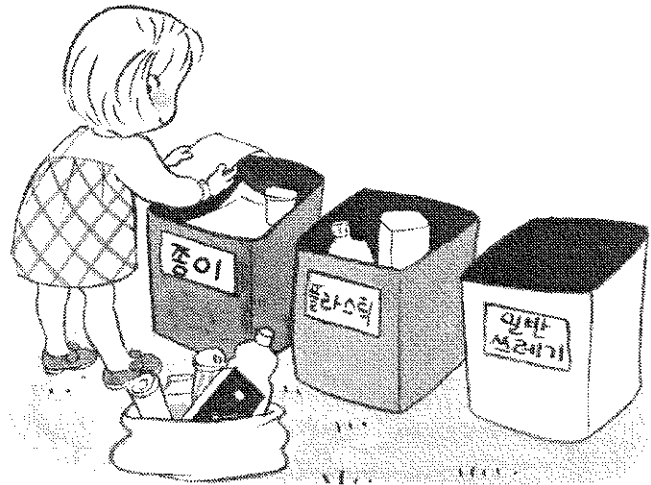
	4	활동시기	3월
제목	유치원 둘러보기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주변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는다.		
활동영역	언어, 수 과학,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유약점 및 기타	<p>교사가 미리 유치원의 자연 환경을 둘러보고 점검해 둔다. 특히 화분이나 화단의 식물 이름도 꼼꼼히 체크해둔다. 유치원과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가 있으면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p> <p>계절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둔다.</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밖으로 나가 자연환경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너희들이 보이는 대로 다 찾아보자(나무, 꽃, 바람, 해, 흙, 돌맹이, 풀...). 유치원 주변에 있는 흙(마당이나 화단, 화분 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바람을 느껴보고 바람의 방향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 것 같니? -바람을 맞으니 어떤 느낌이 드니?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가 보고 봄 햇볕의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하늘, 나무, 주변 환경을 보고 어떤 모습인지 말해 본다. 우리가 본 모든 것이 자연의 모습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호하는 푸르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5	활동시기	3월
제 목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요!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생활 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1.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팻말이 붙은 쓰레기통, 그리고 각종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준비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여 버리게 됨을 설명한다.
3. 준비한 쓰레기를 유아들이 직접 한 아이에 하나씩 적합한 통에 넣어보게 한다.
4. 쓰레기 분리가 끝났을 때, 각각의 통 속에 들어간 쓰레기들이 정확한지 함께 확인하고 잘못 분리된 것들은 다시 옮겨 담도록 한다.
5.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방법



	6	활동시기	3월
제 목	푸르미의 노래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스스로가 환경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푸르미가 된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유의점및기타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바로 푸르미임을 설명해 준다.		

푸르미의 노래



초록 강아네는 어디 서 왔니 푸른 산아네고향
 . . 산아네는 어디 서 왔니 넓은 땅이 내고향


너른 바다 되 고 싶어 달려왔지 푸른
 넓은 공기 주 고 싶어

달려왔지 *Fine* 말팔개 웃고있는 초록산을

안아보자 흐를수록 갈어지는 푸른 강을

안아보자 내 몸으로 느 떠보자 푸른 자연 우리

세상 석 석한 푸름이 자랑 스런 우리들

	7	활동시기	3월
제 목	햇별	월간주제	우리 유치원
활동목표	자연의 따스함을 노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및기타	곡노래가 담긴 CD와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아이들과 반복해서 불러 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백창우,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 2 『누렁아 울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보림 - 1999		

햇별

조금 빠르게 ♩ = 125 이원수 시 · 백창우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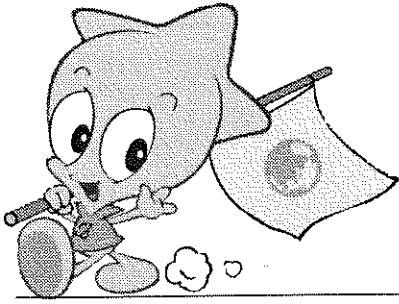


햇별은 고와요 하얀 햇별은
햇별은 따스해요 맑은 햇별은

나 못앞에 들어가서 초록이 되고
은세상을 끌고 루안아 줘 니다

봉오리에 들어가서 꽃빛이 되고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열매속에 들어가 선 빨강이 돼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돼요



주제전개기간 4월

월간주제 **식물**

언어

꽃 이름을 지어보아요
나무일기



음악 신체

봄나물하러 가자!
개나리꽃
봄나들이



이야기 나누기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봄나물



미술


나무일기
벚꽃잎 책갈피
목련 꽃잎 전시회



수 과학

나무일기
꽃을 찾아오는 곤충 만나기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1	활동시기	4월
제 목	꽃 이름을 지어 보아요!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식물과 가까이 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바다에 꽃을 수 있는 꽃 이름표, 유성펜		
유의점및 기타	실외활동으로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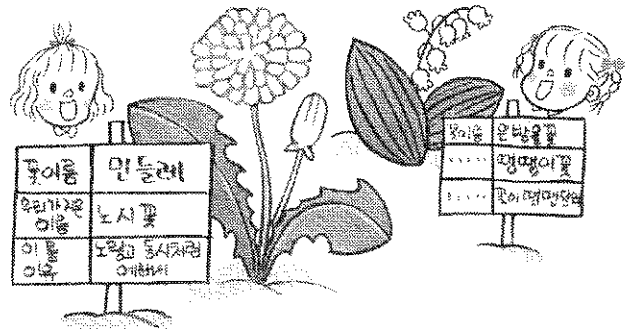
1. 모둠별로 활동한다. 날씨 좋은 날 봄꽃들이 핀 곳에 간다.
2. 유아들에게 꽃을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꽃들 간의 차이와 특성을 알 수 있게 한다.
3. 각 모둠별로 한가지의 꽃을 정해 꽃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짓게 한다.
기존의 이름을 알더라도 새 이름을 지어 보도록 유도하고, 모둠별로 의논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 정확하게 한다.
4. 모든 모둠이 이름을 지으면 다 같이 모여서 차례로 꽃들을 보러 간다.
5. 모둠별로 새로 지은 꽃의 이름을 발표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서로 이야기한다.
6. 미리 준비한 이름표에 이름을 써서 꽃에 준다. 이름표는 예쁜 색지로 코팅해서 나무젓가락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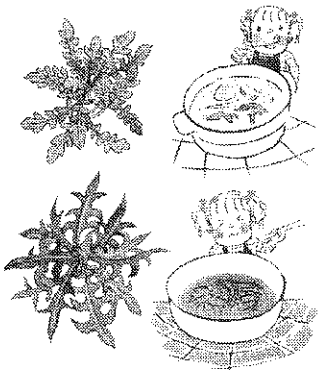





활동방법


7. 모둠별로 돌아가며 이름과 이름의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예. 원래 꽃이름: 민들레꽃, 아이들이 지은 이름: 노시꽃, 이름이유: 노랑고 등시처럼 예뻐서...)



	2	활동시기	4월
제 목	봄나물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식물이 사람에게 중요한 음식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보고, 그 종류에 대해 생각 해 본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봄나물 그림이나 사진		
유의점 및 기타	너무 많은 나물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추후에 "봄나물 하러 가자" 활동에서 직접 볼 수 있는 2 ~ 3가지 정도의 나물을 중심으로 한다.		
활동방법	<p>1. 교사가 스무고개 방식으로 퀴즈를 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봄이 되면 나타나요. - 난 아주 키가 작아요. - 난 여러 가지 모양과 종류가 있지요. - 사람들은 날 아주 좋아해요. 특히 어른들이 더 좋아하죠. - 옛날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봄엔 우리들만으로 죽을 쑤어 먹기도 했어요. - 난 초록색이에요. - 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p>2. 유아들이 답을 맞추면 유아들에게 이는 봄나물이 있는지 물어본다. 또 여러 가지 봄나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알려준다.</p> <p>3. 교사는 유아들에게 봄나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교사: 봄나물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다. 어떤 나물은 상추나 오이처럼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어떤 나물들은 콩나물처럼 익혀서 먹기도 하지. 나물은 반찬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봄에는 좋은 음식이 되기도 했지. 봄에 나물을 많이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덜 타서 땀도 덜 흘린데.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가 나중에 캐러 갈 나물은 000,000나물 이란다. 잘 기억해 두자.</p> <p>4. 나물 그림을 교실에 전시하여 유아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한다.</p>		
참고할만한 자료	<p>※ 나물의 그림이나 쓰임, 요리법, 나물의 좋은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 『들나물 하러가자』, 보리 www.nhaes.go.kr 호남농업시험장/한국의 구황식물 www.sannamul.co.kr 산나물</p>		

	3	활동시기	4월
제 목	봄나물 하러 가자!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여러 가지 봄나물을 직접 관찰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안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1~2시간
활동자료	나물의 그림이나 사진, 바구니		
유의점 및 기타	교사는 사전에 나물이 많은 곳을 알아본다. 나물에 대해 잘 아는 학부모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얻으면 좋다.		
활동방법	<p>1. 다음의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고, 유아들과 야외에 나가 봄나물을 캐어와 관찰해 보고 요리도 해 본다.</p> <p>2. 봄나물 할 때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만 뜯고 뿌리를 뽑지 않는다. - 잎을 적당히 뜯어 주는 것은 나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 손으로 뜯자! - 흔히 산나물 캐러 나갈 때는 호미, 칼 등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호미나 칼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손으로 살살 뜯는 게 산나물의 몸통을 다치지 않게 해서 좋다. · 한 포기에서 조금씩만! - 한 포기의 잎을 모두 뜯어버리면 산나물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 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뜯는 것이 좋다. 가지째 자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발 밑을 잘 보자! - 뜯을 때 발 밑을 보면서 약한 순을 밟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참고할만한 자료	<p>※ 나물의 그림이나 쓰임, 요리법, 나물의 좋은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p> <p>『들나물 하러가자』, 보리</p> <p>www.nhaes.go.kr 호남농업시험장/한국의 구황식물</p> <p>www.sannamul.co.kr 산나물</p>		
참고자료	한눈박이 생태기행 심상옥 대표 글 인용 (한겨레 신문 발췌)		

	4	활동시기	4월
제 목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식물의 성장과정과 식물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본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그림자료		

활동방법	<p>※ 그림자료를 보며 식물이 씨앗 → 새싹 → 꽃 →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각 과정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1〉을 보여주며, 교사: 여기 작고 작은 씨앗이 하나 있단다. 이 씨앗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을까? 유아: 꽃이요, 나무요 교사: 그래. 그럼 어떻게 이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도와 주는 걸까? 교사: 그래, 우리 같이 알아보자. 먼저 씨앗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래, 새싹이 되어야지. 그럼 새싹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림2〉를 〈그림1〉 위에 겹쳐 놓으며,) 먼저 씨앗을 심을 흙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물도 있어야겠지. (〈그림3〉을 보여주며,) 교사: 자, 드디어 예쁜 새싹이 나왔네~. (〈그림4〉를 〈그림3〉 위에 놓는다.) 교사: 이제 새싹은 뿌리로 물을 흠뻑 마시고 앞으로 햇빛을 듬뿍 받아서 쑥쑥 자라겠지. (〈그림5〉를 보여주며, 교사: 꽃이 많이 피었네. 이제 엄마 꽃가루와 아빠 꽃가루가 만나면 예쁜 아기 열매가 달릴 거야. 그런데 꽃은 혼자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서로 어떻게 만날까? 유아: 벌이랑 나비가 도와줘요. 바람이 보내줘요. (〈그림6〉을 보여주며, 교사: 그래 맞아. 벌과 나비들의 도움으로 엄마 꽃가루와 아빠 꽃가루가 만나 예쁜 아기 열매를 만들게 되지. (〈그림 7〉을 보여주며, 교사: 자, 이제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열렸어. (〈그림 8〉을 보여주며, 교사: 이런,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땅에 떨어졌네. 떨어진 열매는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단다. 나무 열매를 먹는 동물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아: 다람쥐요, 청설모요, 새요. (다시 〈그림 1〉을 보여주며, 교사: 그 중에는 다시 흙 속에 묻혀 있는 씨앗도 있단다. 자 이제 이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	--	--	--

활동자료
설명

※ 그림자료 설명

<그림1> 씨앗 하나가 있는 그림

<그림2> 씨앗을 덮을 수 있는 흙과 씨앗이 뿌러지는 그림.

<그림3> 새싹 그림

<그림4> 해님과 새싹의 뿌리쯤에 물방울이 그려진 그림.

<그림5> 꽃이 피어있는 나무, 햇님이 비추고 있고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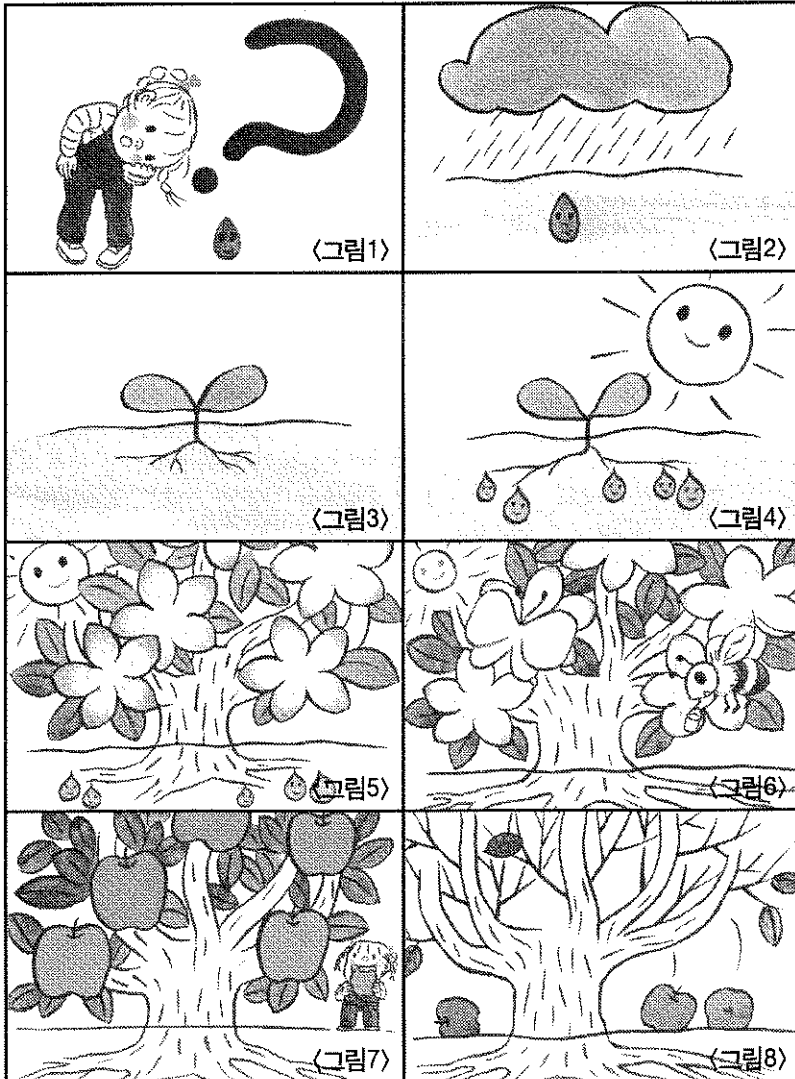
<그림6> 벌과 나비가 있는 그림.

<그림7> 꽃이 피었던 자리에 열매가 열리게 그려진 그림. 열매는 꽃이 없으면 생길 수 없으므로 꽃이 있던 자리에 열리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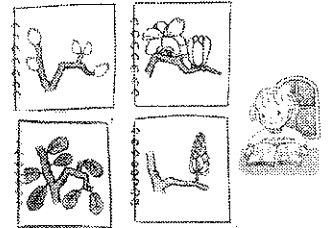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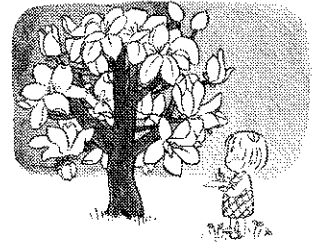
<그림8> 열매가 땅에 떨어진 그림


참고할만한
자료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 어린이중앙 /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들베개 어린이
『우리꽃 이야기』, 진선



	5	활동시기	4월
제 목	나무일기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려봄으로써 관찰력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활동영역	미술,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매회 30분
유의점 및 기타	유치원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꽃들 중에 대상을 고르되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쉬운 것을 고르도록 지도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원 주변의 식물들을 둘러본다. 2. 한 나무를 나의 나무로 정해서 자세히 관찰한다. 아동의 수준이나 관심도에 따라 나무를 개인별로 정하지 않고 모둠별로 정해도 된다. 3. 일정한 크기의 종이에 관찰한 것을 그리게 한다. 처음엔 직접 보고 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실에 돌아와서 그림이나 사진을 참고로 해서 그리면 좀 수월하다. 4. 나중에 묶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모아 놓는다. 5. 나무를 정할 때의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꽃인 경우 그리기가 좀 어렵지만 새싹에서 열매 맺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나무일기의 제작기간을 줄일 수 있다. 봄에 꽃이 핀 풀꽃은 대부분 여름이 되기 전에 열매가 생긴다. - 나무인 경우 눈의 모습, 나무줄기 뻗은 모양, 나무껍질모양, 꽃이 핀 모습, 단풍, 낙엽이 진 모습 등 다양하게 관찰 할 수 있어 여러 장의 책을 만들 수 있지만 일기를 완성하는데 오래 걸린다. - 쉽게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풀꽃 : 민들레, 제비꽃, 냉이, 꽃다지 - 쉽게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 : 산수유, 목련, 벚나무, 앵두나무, 장미, 회양목 - 꽃을 보기 어렵지만 단풍과 열매를 관찰하기 좋은 나무 :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주목, 대추나무(이 나무들을 관찰할 땐 교사가 꽃이 필 시기를 미리 조사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한다.) 6. 모든 자료가 모아지면 코팅해서 묶어 책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참고할만한 자료	『여러 가지 식물도감』, 『우리꽃 이야기』, 『나무 이야기』 등 이 밖에도 아동용 과학전집들 중 “봄의 식물”이나 “식물관찰” 등의 주제로 쓰여진 책들을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져오도록 하여 함께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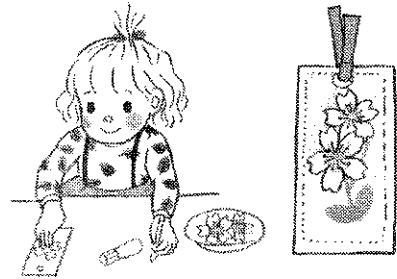


	6	활동시기	4월
제 목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더러운 물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확인하여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실험 10분, 실험 후 관찰 20분
활동자료	비이커 2개, 칼,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샐러리의 뿌리 부분을 자른다. 잘린 부분에서 잎이 돋아나 있는 곳 5cm 못 미친 지점까지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것처럼 줄기를 세로로 반을 가른다. 두 개의 컵에 포도 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붓는다. 2개의 컵에 갈라진 샐러리의 줄기 가지를 각각 하나씩 담근 채 2시간 이상 놓아둔다. 따뜻한 곳에 놓아두면 더 빨리 변한다. 2시간이 지난 후, 샐러리를 꺼내어 원래의 줄기와 젓가락처럼 갈라진 두 개의 줄기를 모두 가로로 절단한다. 절단된 각 줄기 부분의 물관부위를 중심으로 색깔을 관찰한다. 샐러리를 먹어 주스 맛이 나는지 알아본다. (주스 맛은 나지 않는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실험해본다. 교사: 만약 식물이 더러워지거나 병균이 잔뜩 든 물을 빨아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 것들이 식물에 그대로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이 식물을 먹으면 더러운 것들도 같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지. 샐러리도 주스 맛이 나지는 않지만 주스 성분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이런 더러운 성분을 많이 먹게 된다면 사람도 병에 걸리게 될 거야.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우리가 먹는 물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깨끗해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단다. 		

	7	활동시기	4월
제 목	벚꽃잎 책갈피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자연을 소재로 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20분/10분
활동자료	떨어진 벚꽃잎, 도화지, 풀, 싸인펜		

[활동1] 벚꽃잎 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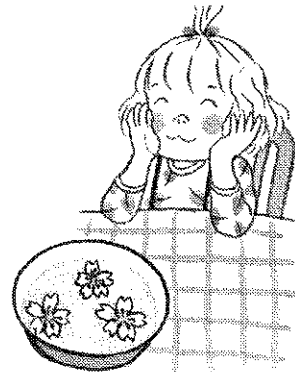
1. 떨어진 벚꽃잎을 주워 와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 놓는다.
2. 종이를 작게 잘라서 그 위에 벚꽃잎을 풀로 붙이고 연필이나 싸인펜으로 그림을 완성시킨다. 이 때 여러 색을 사용하는 것 보다 1~2 가지 색만 사용하는 것이 더 예쁘다. 벚꽃잎이 충분하다면 벚꽃잎 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
3. 완성된 것은 코팅을 하여 오려서 책갈피로 사용한다.





활동방법

[활동2] 벚꽃 식탁 장식

주운 꽃잎과 초록색 풀잎 등을 이용해서 식탁 가운데 놓는 장식을 만든다. 꽃잎과 풀잎을 먼지를 털고 접시에 담은 물위에 살짝 띄우면 멋진 장식품이 된다. 간식이나 밥 먹을 때 식탁 가운데에 장식한다.




	8	활동시기	4월
제 목	목련 꽃잎 전시회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자연을 소재로 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식물의 특성을 알고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낀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매회 30분
활동영역	목련꽃잎, 부드러운 펜, 검정 도화지, 풀		
유의점및기타	목련 꽃을 하루에 다 구할 수 없으면 2일 정도에 걸쳐 줍는다. 하지만 너무 오래 되면 목련꽃잎이 시들어 버리므로 주운 꽃잎은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련꽃잎이 떨어지면 깨끗한 꽃잎을 모아둔다. 묻어있는 흙을 털어낸다. 반드시 떨어진 꽃잎만을 모아둔다. 2. 필기감이 부드러운 펜을 준비해서 목련꽃 위에 그림을 그린다. 3. 그린 그림을 큰 검은 도화지에 모아 붙여서 교실에 전시하거나 창문에 붙여놓는다. 4. 꽃잎이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흙이 있는 곳에 가져다 버린다. 이 때 이 꽃잎이 썩어서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흙이 건강해지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됨을 알려준다. 5. <연장활동> 꽃잎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꽃잎은 금방 썩어서 좋은 흙이 되어 식물이나 곤충에게 도움이 되지만, 비닐 쓰레기는 썩지 않아서 흙을 숨 막히게 해서 결국 식물이나 곤충도 잘 살 수 없게 한다. 		

	9	활동시기	4월
제 목	꽃을 찾아오는 곤충 만나기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꽃을 찾아오는 곤충을 관찰하고 곤충과 꽃의 서로 돕는 관계를 알아본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유의점 및 기타	벌을 관찰 할 때는 안전에 주의한다. 원색옷은 피하도록 한다.		

활동방법

1. 꽃과 곤충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 이른 봄에 꽃 피는 나무들은 나뭇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경우가 많다. 이른 봄에는 꽃이 핀 장소도 많지 않고 잎이 무성하지 않으므로 꽃에 찾아오는 곤충을 관찰하기가 쉽다. 꽃은 일단 수분이 되면 더 이상 꿀도 향기도 만들지 않으므로 새로 핀 꽃에 가야 곤충을 잘 볼 수 있다. 어느 꽃이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미리 보아 둔다.
2. 곤충을 관찰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연제든지 긴 바지, 긴팔 옷을 입고 모자도 쓰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에게 곤충을 함부로 만지거나 곤충이 가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꿀벌의 생태에 대해 알려 준다. 또 관찰 전에 달콤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않는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약을 준비 한다.
 - 원색옷은 곤충의 눈에 띄게 됨을 알려주며, 동물의 보호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준다.
3. 곤충이 왜 꽃에 찾아오는지 설명해 준다.
 - 식물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곤충이나 바람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암(여자)꽃가루와 수(남자)꽃가루가 만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은 달콤한 꿀을 만들어서 벌이나 나비를 유혹한다. 벌이나 나비 등 여러 곤충들은 꿀을 가져가면서 다리나 몸에 꽃가루를 묻혀 이리저리 옮겨 준다. 식물과 벌, 나비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다.
4. 한군데에 머무르며 자세히 관찰한다. 몸의 모양, 더듬이 길이, 입의 모양을 주의해서 본다.
5. 교실에 돌아와서 관찰한 것을 그려본다.

	10	활동시기	4월
제 목	개나리꽃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동요를 통하여 봄과 자연의 정서를 느껴본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및기타	곡노래가 담긴 CD와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아이들과 반복해서 불러 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백창우,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 2 『누렁아 울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보림 - 1999		

개나리꽃

예사 빠르기로 ♩ = 90 이원수 시 · 백창우 곡

C Am G Dm7 G7 Em



개 나 리 꽃 들 여 다 보 면 눈 이 부 시 네 노 란 빛 이 햇 별 처 럼 눈 이 부 시 네

C C7 F C G7 F G C



잔 등 이 후 끈 후 끈 땀 이 배 인 다 아 가 아 가 내 려 라 꽃 따 주 게

C Am G Dm7 G7 Em




아 빠 가 가 실 적 엔 눈 이 왔 는 데 보 국 대 보 국 대 언 제 마 치 나

C C7 F C G7 F G C



오 늘 은 오 시 는 가 기 다 리 면 서 정 거 장 을 타 리 의 꽃 만 꺾 었 다

	11	활동시기	4월
제 목	봄나들이	월간주제	식물
활동목표	동요를 통해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낀다.		
활동영역	음율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및기타	곡노래가 담긴 CD와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아이들과 반복해서 불러 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백창우, 『벧속아기와 나누고 싶은 음악태담』, 한울림 - 2002		

봄나들이 이운구 시 · 백창우 곡

♩ = 120

D G D A D
 토 끼 풀 꽃 따 서 목 걸 이 만 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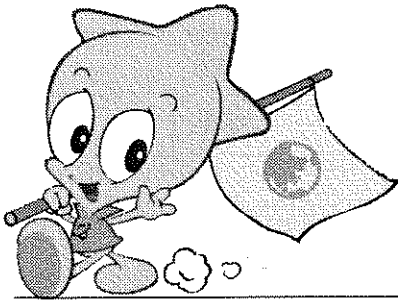
D G D A D
 민 들 래 꽃 따 서 서 계 만 들 고

A G D A
 썸 바 귀 꽃 따 서 꽃 다 발 한 아 름

D Em G A E7 A
 우 리 아 기 봄 나 들 이 꽃 발 이 었 네

D G D A D
 꽃 보 다 예 브 게 활 짝 피 었 네





주제전개기간 **5월**

월간주제 **쓰레기**

언어

쓰레기를 태우면?
자연에서 왔어요
강돌이의 여행
휴지통 속의 친구들



음악 신체

푸르미는 쓰레기 분리대장
내가 살 곳은 어디?
장난감 녹색가게
우리 지구



이야기 나누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쓰레기가 물을 더럽혀요
천연자원이 모자라요
엄마의 장비구니



미술


내가 살 곳은 어디?
엄마의 장비구니



수 과학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가 물을 더럽혀요
자연에서 왔어요
천연자원이 모자라요
푸르미는 쓰레기 분리대장
장난감 녹색가게



	1	활동시기	5월
제 목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쓰레기의 의미와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쓰레기의 이동경로 그림자료		

1. 쓰레기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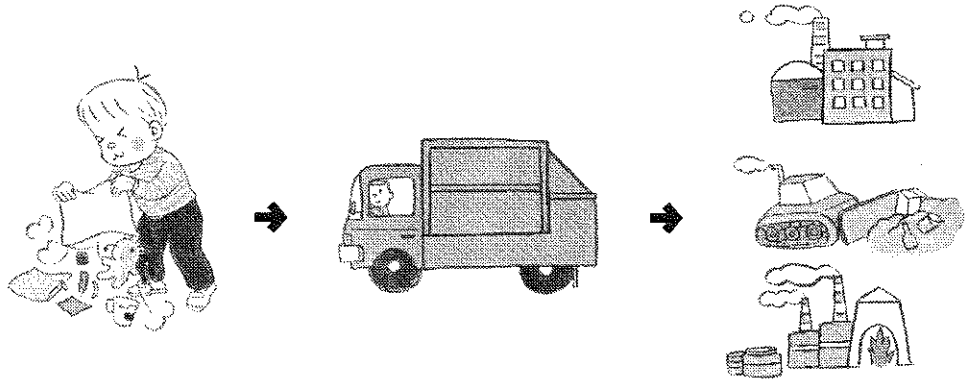
- 우리가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원치 않을 때 버리는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해 보자.
- 다 쓴 풀통, 망가진 장난감 등 아이들이 말한 몇 가지를 실물로 준비해 보여주고,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 아주 옛날에는 쓰레기의 의미가 '쓰고 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였는데 요즘은 쓰고 버려지는 것으로 쓰여진다.
똥이나 재는 거름으로 사용되었고, 입던 옷도 길레로 사용하였다.


2.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갈까? 이 쓰레기들이 유치원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함께 이야기해 보고 그림자료를 보면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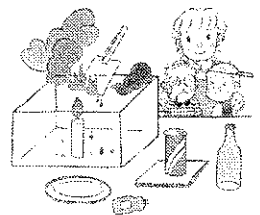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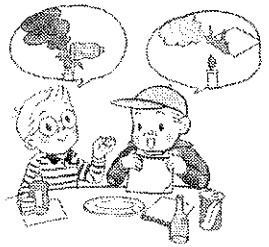
(그림자료 :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 쓰레기차 →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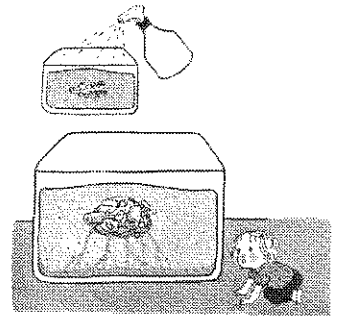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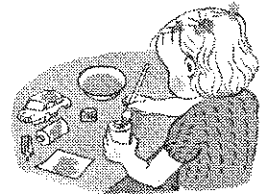



3.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차에 실려서 여기저기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2	활동시기	5월																																		
제 목	쓰레기를 태우면?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쓰레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동식물과 사람이 병들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유리관, 촛불이나 알콜램프, 비닐, 강통, 종이뭉치,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병, 핀셋, 관찰기록 용지(표)																																				
유의점및기타	불이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하나 쓰레기가 처리될 때의 오염되는 부분을 잘 알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건이 태워지면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다. 실험 후에는 꼭 환기를 한다.																																				
활동방법	<p>1. 실험을 하기 전에 공기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위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해본다. 코와 입을 막고 있으면서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p> <p>2. 비닐, 강통, 종이뭉치,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병 등의 물건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태웠을 때 각각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아이들이 추측하여 이야기해 보고, 표로 만들어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281 937 1255 1120"> <thead> <tr> <th></th> <th>비 닐</th> <th>강 통</th> <th>종이뭉치</th> <th>은박지</th> <th>플라스틱</th> <th>유리병</th> </tr> </thead> <tbody> <tr> <td>냄 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 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은 재 의특징이나양</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그외특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3. 넓적하고 네모난 유리관에 촛불(혹은 알콜램프)을 켜고 핀셋으로 여러 물건을 태워본다(비닐, 강통, 종이뭉치,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병 등).</p> <p>4. 냄새, 연기, 재가 남는 정도를 관찰하면서 옆의 칠판에 기록하며 이야기해보자. 추측한 내용과도 비교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는 쉽게 타고 음식물은 까맣게 그을리지만 정확히 말해 타지는 않는다. 플라스틱은 불이 붙지만 바닥으로 녹아내리며 석유가 원료인 특성상 연기가 날 것이고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남을 것이다. 금속성 물건은 전혀 타지 않을 것이다. - 우리가 쓰레기를 태울 때 연기는 어디로 갈까? - 태우고 나서 생기는 재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되니? - 태우면서 생기는 오염된 공기(연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나 동·식물은 어떻게 될까? 				비 닐	강 통	종이뭉치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병	냄 새							연 기							남은 재 의특징이나양							그외특징					
	비 닐	강 통	종이뭉치	은박지	플라스틱	유리병																															
냄 새																																					
연 기																																					
남은 재 의특징이나양																																					
그외특징																																					
참고자료	미국 EPA,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합시다」																																				



	3	활동시기	5월
제 목	쓰레기가 물을 더럽혀요!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쓰레기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동식물과 사람이 병들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유리관, 모래, 미리 잉크나 물감을 묻혀서 말려둔 쓰레기 몇 가지, 스프레이, 물		
활동방법	<p>1.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야기 나누어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p> <p>※ [실험개요] 다음의 실험은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지만 땅에 묻기도 한다. 땅에 묻힌 쓰레기는 그 자체의 물기가 빠져나가거나 빗물로 인해 쓰레기 더미에 물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땅이 썩게 된다. 이렇게 젖은 쓰레기, 플라스틱, 건전지 등의 쓰레기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데,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이다.</p> <p>2. 원래 쓰레기에서 녹아나오는 물은 색깔은 없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풀뿌쟁이나 장난감, 종이, 건전지 등에 미리 잉크를 묻혀서 준비해 둔다.</p> <p>3. 유리관 안에 모래를 불룩한 모양으로 집어넣고 그 속에 쓰레기를 파묻는다. 비가 오는 것을 가정하여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후 용기 바닥에 고이는 물을 관찰한다.</p> <p>4. 어떤 물이 나오는가? 이렇게 오염된 물이 강이나 호수로 흘러가거나 땅 속으로 스며들어 땅 속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땅 속의 지하수는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는데 쓰기도 한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주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어떻게 될까?</p> <p>5. 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한 동물이나 사람의 피해사례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해보자. (아래 <참고할만한 자료> 참조)</p> <p>6.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예. 쓰레기를 태우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버리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사용한다,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은 따로 분리한다 등)</p> <p>★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차가 가져가서 우리 눈에는 안보이게 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 공기를 오염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며, 함부로 태우거나 물을 경우 오염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참고할만한 자료	하라다 마사즈미, 『미나마따의 붉은 바다』, 우리교육 - 1999 구와바라시세이, 『미나마따의 아픔』, 을지서적 - 1990 이남희,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 풀빛 - 1991		
참고자료	미국 EPA,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합시다』		



	4	활동시기	5월
제 목	자연에서 왔어요!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지구로부터 얻는 천연자원으로 만들어졌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장난감, 종이상자, 장난감 · 종이상자 · 가게 · 공장 · 나무 · 석유의 등 그림카드		
활동방법	<p>1. 유아들이 좋아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음료 등)을 포장한 채로 미리 준비해 둔다. (아이들이 각자 가져오도록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각각 카드(그림이나 글자)로 만들어 놓는다.</p> <p>2. 좋아하는 물건 중 음료수나 과자, 종이상자, 장난감 등이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 가지씩 이야기하게 한다. (예. 음료수 = 음료 + 병 + 병뚜껑, 과자 = 과자 + 포장지, 장난감로봇 = 플라스틱 + 종이상자 혹은 비닐봉지)</p> <p>3. 이 중 종이상자와 장난감을 예로 들어 이것들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따라가 보게 한다. 예) 종이(공책, 종이상자 등) → 가게 → 공장 → 나무 로봇 → 가게 → 로봇 공장 → 플라스틱공장 → 석유</p> <p>★ 그림이나 글자카드를 준비해서 교사가 먼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붙여보고, 그 다음 다른 물건들은 각각의 물건 아래 아이들이 붙이도록 한다.</p> <p>4. 이 밖에도 유치원에 있는 다른 물건들,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땅(지구)에서부터 왔는데 이런 것을 천연자원이라고 하며, 또 천연자원은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준다.</p>		
참고자료	미국 EPA,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합시다」		

	5	활동시기	5월
제 목	천연자원이 모자라요!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지구로부터 얻는 천연자원은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한정된 것임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지구모형, 천연자원을 나타내는 돌이나 나무토막, 비닐봉지, 과자포장지		

활동방법

1. 「지구모형」안에 나무토막, 돌맹이, 석유모형, 금속토막 등을 넣어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보여주고 다시 넣어 놓는다.

2. 유아들에게 직접 들어보게 해서 자원이 짝 차있어서 매우 무겁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한다.

3. 유아들이 이야기했던 좋아하는 물건 이름을 부르면서 천연자원을 하나씩 꺼내게 한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서 모두 다 써버렸고,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지구 속을 보여준다.

교사: 우리가 지구의 천연자원을 다 써 버려 아무 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유아: 물건을 아껴 쓰고 장난감이나 옷을 오래도록 사용해요. 에너지를 절약해요.


★ 지구모형 만드는 방법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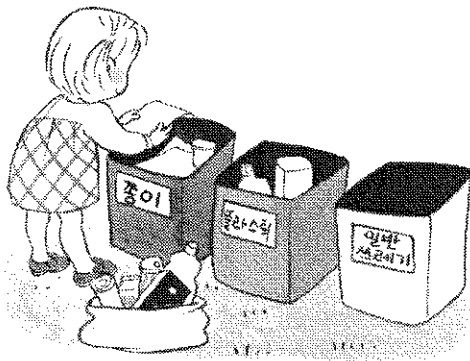
- 바가지를 푸른색 시트지로 감싼다.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지구평면 모빌(지름이 15cm정도 되며 지구 뿐 아니라 다른 별들도 다 있다)을 모형 앞에 끼워 놓는다 (자원모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바가지에 부착할 필요는 없다).
- 돌맹이, 나무토막(공사장 주변이나 목공소에서 구할 수 있음), 석유모형(고무판화 등을 10cm정도로 잘라서 준비) 등을 직접 준비하거나 그림카드를 만들어 지구모형 안에 넣어 둔다.





참고자료

미국 EPA,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합시다」

	6	활동시기	5월
제 목	푸르미는 쓰레기 분리대장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다시 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신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각 20분
활동자료	쓰레기 실물자료(깡통,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빨강, 노랑, 초록색 쓰레기통		
활동방법	<p>[활동1] 신호등 분리수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빨강, 노랑, 초록색 통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장난감, 파자, 포장된 음식물 등)를 준비한다. 2.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한 가지 쓰레기를 선택하여,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은 초록색 통에, 다시 쓸 수 없는 쓰레기는 빨강색 통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쓰레기는 노랑색 통에 넣도록 한다. 3. 쓰레기 분리가 끝났을 때, 각각의 통 속에 들어간 쓰레기들이 정확한지 그리고 노란색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여 되도록 초록색이나 빨간색 통 속으로 옮겨 담는다. 4. 빨간색 통 속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p>[활동2] 포장재 쓰레기 분리수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물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포장된 물건을 제시한다. (★포장재의 종류 - 비닐, 코팅종이, 포장종이, 리본, 스티로폼, 집지나 달력 등 재활용 종이, 기타 장식품 등 사용하여 예쁘게, 화려하게, 혹은 소박하게, 다양하게 포장해준다.) 2. 모둠별로 유아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주고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같은 물건을 언고자 하는 경우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더욱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모둠에 선택권을 준다. 3. 각 모둠에서 선택해온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고, 그 포장재를 위의 [활동 1] 신호등 분리수거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4. 빨강색 통과 노랑색 통에 있는 포장재 쓰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과대 포장이나 다시 쓸 수 없는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아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2002		



	7	활동시기	5월
제 목	내가 살 곳은 어디?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쓰레기가 많이 생기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생물들이 살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구역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뚫자리, 홀라후프, 낮은 책상 등), 쓰레기들		
유의점 및 기타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활동을 선행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활동] 먼저 유아들을 2모듬이나 3모듬으로 나누어, 각 모듬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적거나 그려보게 한다. 2. 한 모듬의 유아들을 정해진 구역(홀라후프나 뚫자리, 끈이나 테잎 등으로 미리 표시해 둠)에 모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모듬원들은 주변에 앉도록 한다. 이 때 구역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놓으면 유아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3. 게임에 필요한 쓰레기 혹은 모형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실물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실물을 대신할 블록이나 물건에 쓰레기 종류대로 대략의 크기에 맞추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 4. 사전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각 모듬의 쓰레기 리스트를 보며 교사가 "아침에 마신 우유곽, 음료수병, ..." 하며 목록을 부르며 나머지 그룹의 아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가져다 정해진 구역 안에 넣는다. 이 때 쓰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진 아동은 나와야 하며, 분리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은 나오는 아이가 한 개씩 가지고 나올 수 있다. 5. 이렇게 계속해서 목록을 다 불렀을 때 몇 명이 남는지 기록한다. 6.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듬도 교대로 진행하고, 가장 많은 아동이 남는 모듬이 이기게 된다. 7. 게임이 끝난 후에 이긴 모듬과 진 모듬의 이유를 살펴본다. 쓰레기의 양, 종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p>★ 이 게임은 반대로 일정량의 쓰레기가 가득 찬 구역에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찾아내는, 혹은 빨리 찾아내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쓰레기가 여러 세트 필요하다.</p>		

	8	활동시기	5월
제 목	장난감 녹색가게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싫증난 장난감도 다른 친구들에게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재미를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주
활동자료	장난감 조사표, 헌 장난감, 쿠폰		
유의점 및 기타	가정에서 헌장난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며,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계획하고 당일 가게 운영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의 날(6월 5일) 즈음에 하는 것도 좋겠다.		
활동방법	<p>1. [사전활동]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 알아보기 집에 있는 장난감 중 즐겨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분류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분류표를 가정에서 하는 활동 과제로 내주어 생각해 보게 한다. (분류표는 첨부내용 참조)</p> <p>2. 장난감 녹색가게 계획 - 아이들이 가지고 온 분류표를 벽에 며칠 동안 붙여 놓고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도록 한다. -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의 조사표를 함께 보면서 집에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있고, 친구들 중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장난감 가게를 열어서 서로 바꿔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장난감 녹색가게에는 집에 있는 헌장난감만 가져올 수 있고, 돈으로 장난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헌장난감을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는 쿠폰을 주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약속을 한다. 사전에 가정통신문으로도 알려져 새 장난감이 아닌 가지고 놀다가 싫증이 난 헌장난감, 그렇지만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알린다.</p> <p>3. 장난감 녹색가게 열기 - 3일 정도에 걸쳐 장난감 수집한 것을 유치원 마당이나 강당 한 교실에 모아 놓고 바자회를 한다. 장난감을 가지고 온 어린이는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으로 다른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바꿔 쓰는 재미를 알도록 한다.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가게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쿠폰을 주는 사람, 장난감 종류별로 나눠서 파는 사람(목걸이를 걸고)을 해보도록 한다.(쿠폰은 첨부내용 참조)</p> <p>4. [사후활동] 장난감 녹색가게를 열고나서 - 가게를 열면서 느낀 점,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모여진 장난감 중에 아이들이 구입하지 않아서 남게 된 망가지지 않은 장난감은 지역의 보육원 등에 보내주기로 한다. ★ 성과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계획해 진행해보도록 한다.</p>		

녹색 장난감을 찾아라,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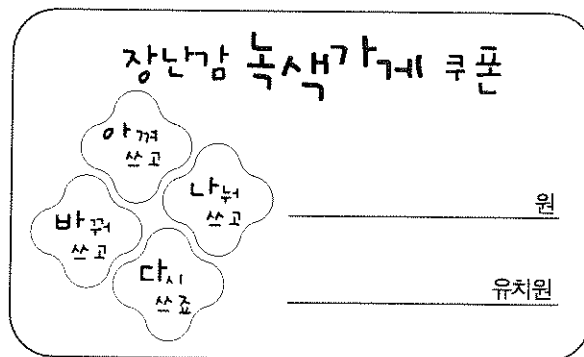
-가정에 있는 장난감 중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을 아이와 함께 조사하여 개수와 그 이름을 써서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 이름: _____


종류	개수	장난감 이름
로봇		
인형		
자동차		
동화책		

★ 장난감 녹색가게 쿠폰

현 장난감의 가격은 최대 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물건을 가져온 만큼 쿠폰에 가격을 매겨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쿠폰의 가격은 동일하게 만들고 물건 개수대로 쿠폰을 여러 장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9	활동시기	5월
제 목	엄마의 장바구니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나와 우리 가족의 생활환경 실천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장바구니, 여러 가지 포장된 물건들		
유의점 및 기타	<p>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부모님께서 시장을 가실 때 장바구니나 천 가방을 반드시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p> <p>견학시 일회용품으로 된 물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준비물 가방을 튼튼한 천으로 준비하여 비닐봉투나,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실천한다.</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준다. 교사: 오늘은 엄마가 시장에 가는 날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엄마가 되어보는 날이기도 하지. 지금부터 눈을 감고 어제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신 물건들을 상상해 보자. 2. 작은 도화지에 연필로 엄마가 사온 물건들을 그려보게 한다. 3. 그것들을 왜 사오셨는지, 그 물건들은 어디에 담아 오셨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4. 포장된 그림이나 실제 포장된 물건들을 보여주며 그 물건 포장이나 용기가 재활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말하게 하고 재활용되는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을 구입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 몇 가지 예. ① 팩에 들어있는 두부 - 팩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② 반찬가게에서 사온 반찬 - 하얀 컵라면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③ 우유 - 우유병은 재활용이 되고, 우유팩은 씻어서 밀린 후 재활용이 된다. ④ 고추장 -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된다. ⑤ 콩나물 - 비닐에 담아왔나요? 최근에는 일회용 비닐도 비닐끼리 모아 놓으면 재활용이 되긴 하지만 종이에 싸 오는 것이 좋겠지? 5. 이런 물건들을 어디에 담아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버려진 비닐봉지들은 묻어도 잘 없어지지 않으며 태우면 무서운 오염물질로 변하게 되므로, 되도록 포장이 많이 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를 이용함으로 이런 비닐포장을 줄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6. 엄마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으로도 지구를 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10	활동시기	5월
제 목	깡돌이의 여행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순환과정을 알고, 우리의 생활실천을 통해 쓰레기도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깡돌이의 여행』, 1997		

깡돌이의 여행

[본문]



안녕? 나는 방금 태어났어.

내 몸엔 끈끈하고 달콤한 물이 들어 있단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 이름이 뭐 '깡통' 이라나? 나같이 잘 생긴 얼굴에게는 너무 안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러니 이제 날 '깡돌' 이라고 불러줘.

그런데 아까부터 좀 추워졌어. 왜냐구? 내가 처음 들어온 이곳이 가게의 냉장고래.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춥게 만드는 건지.

"콜록 콜록!" "드르룩." 아줌마, 음료수 두 개만 주세요."

음,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춥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나? 갑자기 어떤 누나의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나와 내 옆에 있던 날씬한 친구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멋있는 차에 태워졌지. 야, 이젠 춥지도 않고 좋은 걸. 네거리와, 나무들을 지나 어느 다리쯤 왔을 때야.

"아빠, 음료수 드세요."

"그래, 조심스럽게 줘 봐. 운전 중이니까."

내 머리가 '퐁' 열린 채 아저씨 손에 들려졌어. 아저씨가 내 몸에 있던 물을 꿀꺽꿀꺽. '와, 한결 몸이 가벼워졌는 걸'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어.

"아얏! 아야야야!"

나는 창밖으로 떨어졌어. 온몸이 다 쭈시네. 그 아저씨는 얼굴만 잘생겼을 뿐 마음은 시커먼 사람이었어. 어떻게 나를 내던질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난 혼자가 되었어.

"아이쿠, 아얏!"

벌써 일곱번째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질 때문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앓, 또! “퐁더영!” 난 기어이 물에 빠지고 말았어.

어휴, 이 고약한 냄새. 내 옆을 떠다니는 건 쓰레기 조각, 음식 찌꺼기, 그리고 거품들 뿐이야.

웬 물이 이렇게 더럽담?

“안녕! 깡통아.”

어! 그리고 보니 거품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네.

“응. 너희들도 안녕? 너희들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가 이 냄새를 내고 싶어 내는 줄 알아? 처음에 세제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을 땐 얼마나 향기로운데. 그런데 자기만 아는 아줌마들이 접시나 빨래니 하는 것들에 우리를 몽땅 쏟아 부어 그냥 흘러 보냈단 말 이야.”

이 거품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끝내자마자 저쪽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거품들이 떼지어 몰려 왔어.

“너희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공장에서 밤에 몰래 버려졌는 걸. 공장 안에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정화장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려다가 그만 두었어. 나를 그냥 창밖에 던진 그 아저씨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안녕, 여기서 뭘하고 있니?” 아까 본 쓰레기 더미였어.

“응, 모두 자기가 여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는 어땠니?”

“글쎄..., 무슨 모임이라든가? 맞아. 무슨 친목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온갖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와서는 먹고, 마시고, 놀았어. 거기까지는 좋았다고. 그런데 그 쓰레기들을 강물에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떠내려 왔지.”

그거였군, 그거였어. 아름다운 자연이 쓰레기와 거품으로 뒤덮인 게 다 사람들 때문이었군.

‘이젠 어디로 갈까? 나랑 친구들은 두 시간쯤 떠내려갔지. 물론 가는 길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었어. 어! 그런데 가다가 보니 강이 굽은 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지 뭐야.

‘또 쓰레기 친구를 만나겠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다시 툭 떨어지는 거야. 생각했던 대로 쓰레기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물 속이 아닌 땅 위였어.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나온 철이아 집게와 봉지를 들고 강물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건져내고 있었지. 나도 그렇게 건져진 거였어.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꽤 괜찮은 사람도 있었어.

사람들이 모두 그 가족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런 여행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내 여행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야.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

후후! 커다란 기계가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곳. 바로 재생공장이라는 곳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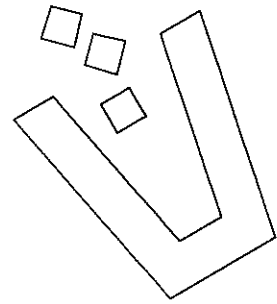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 공장에 가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대. 나와 나랑 비슷한 모습을 가진 친구들은 지금 기계로 들어가고 있어. 점점 더 기계가 가까이 오고 있어. 나는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나를 건져주던 철이의 행복한 웃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시 태어날 나를 상상하면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싶지 않아. 이젠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리면 안돼. 알겠지?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11	활동시기	5월
제 목	휴지통 속의 친구들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순환과정을 알고, 다시 쓸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휴지통 속의 친구들』, 1997		

휴지통 속의 친구들 (본문)



“엄마, 나 자장면 먹고 싶어요.”

오늘따라 배가 고팠던 찬우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청하반점 앞을 지나면서 자장면 생각을 했습니다.

“길 건너 청하반점에서 시켜다 먹을까?”

찬우는 청하반점의 자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엄마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걸까? 찬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딩동, 덩동.” “엄마, 자장면 왔나봐요.”

찬우를 알아보고 배달은 아저씨가 씩웃 웃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자장면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운 찬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그릇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하얀 걸 많이 쓸까? 그 때 로봇 살 때도 하얗고 딱딱한 것이 있었는데...”

“응. 이건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건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단다.”

“왜 한 번만 쓰고 버릴까요? 아깝잖아요?”

“응, 그건 편리하니까 그렇지.”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큰 일이라고 하시던데...”

그날 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부엌 한쪽에 놓여 있는 휴지통 속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찬우가 점심에 먹었던 빈 자장면 그릇, 풀라가 조금 남은 깡통, 빈 풍풍 병들이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아까 찬우가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나는 전보다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좋지만 말이야. 내가 땅 속에 묻

히게 되면 썩지 않는데, 왜 날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얼굴에 검정물이 묻은 자장면 그릇이 울상이 되어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까지 시원한 냉장고 속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거든. 그런데 찬우가 놀이터에서 놀다 온 후에 목이 마르다며 내 속에 든 물을 마셔 버렸어. 나는 자장면 그릇처럼 땅 속에 묻혀지 않아도 된단다. 공장에 들어가면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도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그냥 버리는 걸까?”

키가 커다란 풍풍 병이 한마디 끼어듭니다.

“웃기는 일이야. 날 많이 써봤자 좋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 언젠가 수돗물과 얘기를 했는데 수돗물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물을 더럽혀 놓고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다.”

다들 이 휴지통 속에서 나가 다른 것들이 되고 싶었지만 마음뿐인 걸 아는지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비행접시 만든다고 준비물 가지고 오랬어요.”

“그러니? 그럼 어제 먹었던 자장면 그릇을 씻어서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휴지통 속에 있을텐데 꺼내오렴.”

“네,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휴지통 속 친구들이 소곤거렸습니다.


“그래, 찬우에게 얘기를 해 보자.” 자장면 그릇이 찬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찬우야, 나 여기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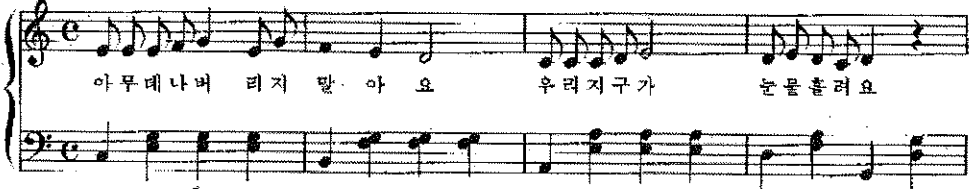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휴지통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찬우야, 내가 멋있는 비행접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아이 좋아라. 땅 속 깊은 곳에서 해님도 못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노는 유치원 교실에서 놀이도 하고 동화도 들을 수 있게 되었네”.


자장면 그릇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찬우는 자장면 그릇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장면 그릇은 찬우에게 어제 저녁에 깡통, 풍풍병 친구들과 나누었던 얘기들을 차근차근 들려 주었습니다.

	12	활동시기	5월
제 목	우리 지구	월간주제	쓰레기
활동목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만들지 않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일임을 안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및기타	곡노래가 담긴 CD와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아이들과 반복해서 불러 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백창우,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 2 「누렁아 울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보림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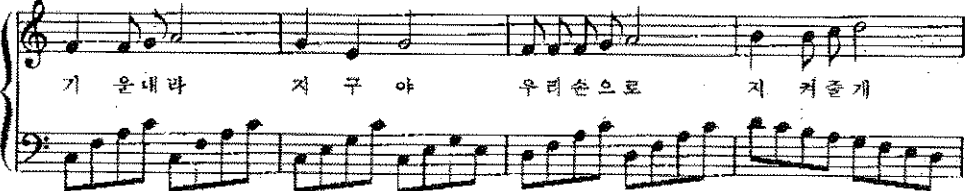
우리지구



아무데나 버 리지 말 아 요 우리 지구가 눈물 흘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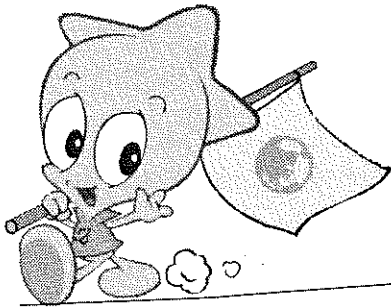
아무데나 버 려진 휴 거 들 우리 손으로 주-워야죠



기 운대라 지 구 야 우리 손으로 지 켜줄게



아 톨담 고 개 끷 한 지 구로 만들어줄 게



주제전개기간 6월

월간주제 **동물**

언어

슬픈 동물원
게으름뱅이 무당벌레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음악 신체

뒷산 늪은 호랑이
박쥐와 나방
새가 되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우는 소 우리 송아지



이야기 나누기

저마다 사는 곳이 달라요!
뒷산 늪은 호랑이
나는 어떤 동물일까요?
슬픈 동물원
무당벌레



미술

새가 되어
자연물을 이용한 곤충 만들기



수 과학

저마다 사는 곳이 달라요!
나는 어떤 동물일까요?
박쥐와 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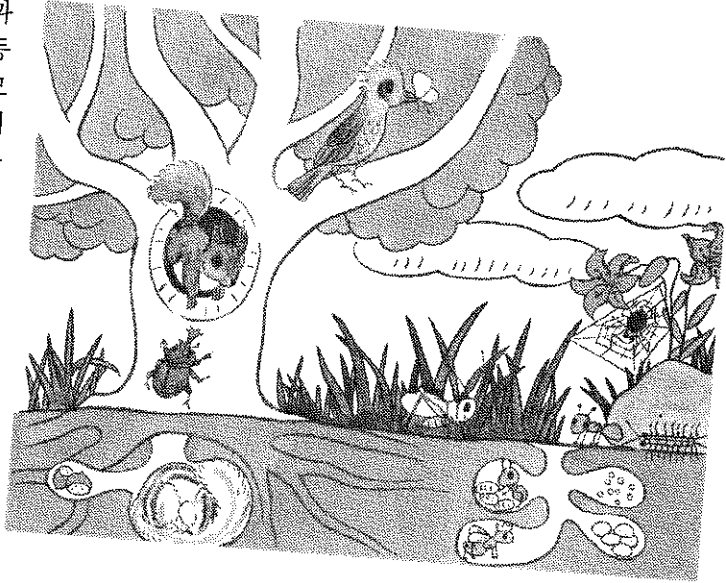


제 목	1	활동시기	6월
	저마다 사는 곳이 달라요!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동물은 각자의 생태적 특성과 먹이에 따라 사는 곳이 다름을 알고 자연의 모든 곳은 생물의 서식처임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동물 - 서식지' 매치카드 (예. 까치 - 둥지, 거미 - 거미줄, 토끼 - 굴, 개 - 갯벌의 개구멍, 개미 - 개미굴, 다람쥐 - 나무구멍, 벌 - 벌집, 사람 - 집)		

활동방법

1. 카드를 용판이나 자석 칠판에 자유롭게 붙여 놓는다.
2. 유아들에게 동물과 동물이 사는 곳(서식지)을 연결해서 카드를 맞춰보게 한다.
3. 각 동물들은 왜 그런 서식지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설명해 준다.
교사: 동물들은 주로 먹이를 얻기 쉽고, 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 새들은 나뭇가지 위나 절벽 같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작은 동물들은 굴이나 나무구멍 같은 곳에 살고 있지. 갯벌에 사는 동물들은 (예. 개) 갯벌에 구멍을 파고 살기도 하고, 또 개미나 벌처럼 특별히 만든 집에서 사는 동물도 있다.
4. 아이들에게 산이나 공원에 갔을 때 작은 곤충들을 본적이 있는지, 보았다면 주로 어디에서 보았는지 이야기한다.
교사: 주로 식물의 주변이나 돌 밑, 돌 틈, 흙에서 보았을 거야.
작은 곤충들은 식물이나 돌 밑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산에 있는 모든 돌을 없애면 자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들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르지.

5. 자연에는 우리의 집과는 다르지만 여러 동물들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집들이 있다. 이 집이 없다면 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므로 자연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2	활동시기	6월
제 목	뒷산 늪은 호랭이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호랑이의 먹이사슬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음율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동요 테잎이나 악보, 먹이 피라미드 그림		

1. 전래동요 “뒷산 늪은 호랭이” 노래를 같이 듣거나 불러본다.

뒷산 늪은 호랭이

예사 빠르기로 ♩ = 106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뒷 산 늪은 호랭이 살전 암캐를 물어 다 놓 고
이 빨이 없 어 먹 지를 못 하고 울 - 렸다 - 내 - 렸다 -
흙 칠 흙 칠 - 침 만 - 바 른 다

활동방법

2. 호랑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준다. 또한 이 노래는 전래동요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3. 교사: 이 노래에 나오는 늪은 호랑이는 어디에 살고 있니? 하고 질문한다.
“뒷산”이라는 답이 나오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한다.
4. 교사: 옛날에는 동네 뒷산에도 호랑이가 살았었다는데, 요즘에도 우리 동네 뒷산 OO산엔 호랑이가 살고 있을까? 왜 호랑이가 살 수 없을까?
5. 교사: 호랑이는 몸집이 크고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대형포식동물)로 사냥할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또 이 작은 동물들도 먹이가 필요하지. 이 작은 동물들은 자기보다 더 작은 동물이나 곤충 등을 먹고 산다. 그럼 작은 곤충이나 토끼같이 작은 동물들은 무엇을 먹을까?

6. 유아들이 대답을 하면 먹이 피라미드 그림을 보여준다.

7. 교사: 그래. 풀을 먹지. 그러면 이 모든 곤충, 작은 동물들이 먹을만큼 풀들이 많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 물, 햇빛,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필요하지.

8. 교사: 결국 한 마리의 호랑이를 살게 하려면 아주 넓은 흙(땅)이 필요하지.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산을 없애거나 땅에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뒷산에 호랑이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살기가 힘든거란다.

★ 동네나 도시마다 호랑이가 나왔다는 산 이야기는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미리 조사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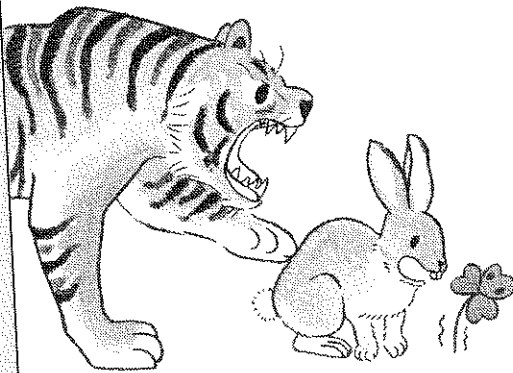
9. 먹이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서, 이번엔 식물에서 시작해서 호랑이까지 이야기한다.

교사: 식물이 많이 있으면 곤충이나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어. 이 작은 동물들은 다시 조금 더 큰 동물이 먹고, 또 조금 더 큰 동물이 먹고, 결국 호랑이도 먹이가 있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거란다.

10. 교사: 호랑이와 식물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보니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지? 또 먹이 뿐 아니라 숲이 많아야 호랑이가 사람 눈을 피해 집도 만들고 아기 호랑이도 기르며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모든 자연은 알고 보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거야.


11. 마무리 활동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호랑이 그림을 그려 본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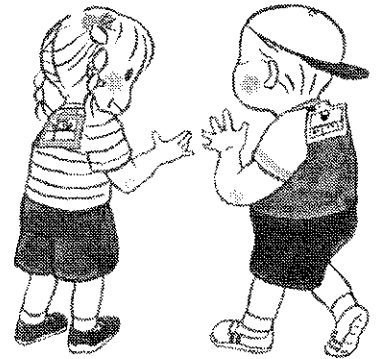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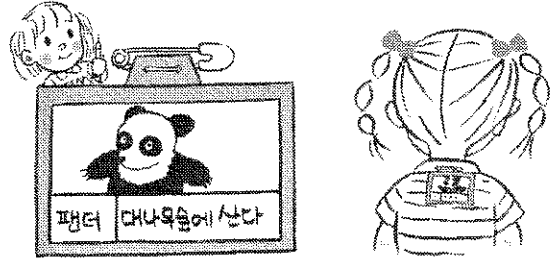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3	활동시기	6월
제 목	나는 어떤 동물일까요?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이나 조류 등의 특징이나 습성 등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명찰케이스, 동물이름표나 사진자료, 그 밖의 동물 사진들		


활동방법


1. 유아들에게 활동 개요를 설명한다.
 2. 모둠원들에게 나누어 준 종이에 동물 이름 하나를 적도록 한다. 혹은 여러 동물 카드 중에서 골라보게 한다. 이때 다른 모둠원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3. 이것을 교사가 모두 회수하여 명찰 케이스에 넣고 섞은 후 유아들의 상의 목뒤 칼라에 달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볼 수 없도록 한다.
 4. 두 사람씩 짝이 되어 스무고개 하듯이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게 하고 모두가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등에 붙은 동물을 맞추도록 한다.
 5. 유아들이 적은 동물 중 멸종한 동물이나 희귀한 동물, 천연기념물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6. 동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마무리한다.
- ★ 그 밖의 동물이야기 : 수달, 반달기슴곰, 수리부엉이 등에 대해서도 들려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 『생태문화지도자 교재』, 2000
 교육부, 『유치원 교육 활동지도자료 6- 동물』, 2001
 환경운동연합, 『환경사전』, 1997

	4	활동시기	6월
제 목	박쥐와 나방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우리의 시각과 판단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입장이 되어 자연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활동영역	신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눈가리개, 거울		
유의점 및 기타	장소는 야외의 평평한 장소가 적합하다. 주변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아이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름 3~4.5m의 원이 되도록 아이들을 둘러 세운다. 한 명의 유아를 선발해 '박쥐'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박쥐가 된 유아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원 가운데에 세운 다음, 유아들 중에 '나방' 역할을 할 2~3명의 아이들을 뽑아 원안에 들어오게 한다. 3. 박쥐가 나방을 잡는 것이 놀이의 개요이다. 박쥐와 나방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원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면 원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4. 박쥐 역할을 맡은 유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박쥐' 라고 외치면 나방 역할의 학생들은 반드시 '나방' 이라고 응답해야 한다. 5. 박쥐는 '박쥐' 라는 초음파를 쏘고, 초음파는 나방에 부딪힌 후 '나방' 이라는 말로 박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박쥐는 나방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나방' 이라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한다. 6. 놀이가 끝나면 유아들과 함께 박쥐의 생태기능을 알려준다. 교사: 박쥐는 어두운 곳에서도 곤충같은 작은 먹이를 정확하게 잡아 먹는단다. 박쥐의 시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파를 감지해서 먹이를 공격하기 때문이지. 		
참고자료	조선일보 환경팀, 「푸른교실 푸른지구」, 1996 환경운동연합, 「생태문화지도자 교재」, 2001 환경운동연합, 「푸름이의 바른생활」, 1997		

	5	활동시기	6월
제 목	슬픈 동물원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에 대해 동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동물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언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자연 속에 사는 동물과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자료, 편지지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행에 앞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 사는 동물과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동물들의 습성을 소개해준다. 2. 보고 난 후, 아이들에게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3.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써보게 한다. 4. 동물원에 갔을 때의 마음가짐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일러둔다. 5.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참고자료	하호, 서울대공원 동물원 보고서『슬픈 동물원』, 환경운동연합-2001		

	6	활동시기	6월
제 목	새가 되어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새의 특징을 살려 표현해 봄으로써 새의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활동영역	미술, 신체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새 특징을 느낄 수 있는 화보나 비디오(인터넷 화보)		
유의점및기타	협동작품의 경우 되도록 맨손으로 작업하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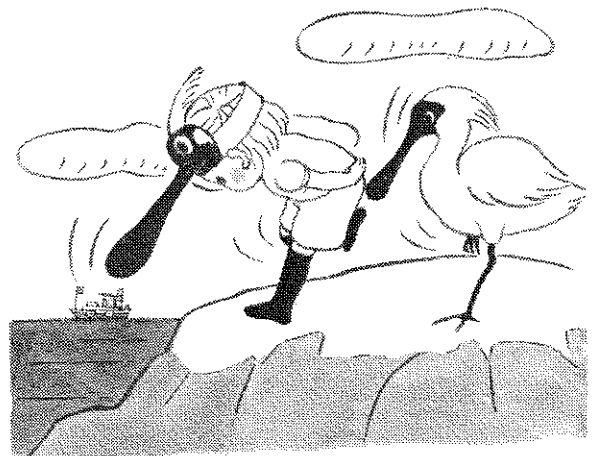
- 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 새의 입모양이나 날개짓 등 특성을 느껴볼 수 있는 화보나 비디오 등을 보고 이야기한다.
 - 종이를 이용해 깎때기를 만든 다음에 고무줄을 끼워 새의 부리를 만들고 보자기를 양팔에 끼고 새가 되어 새의 소리와 모양 등을 흉내내어 보도록 한다.
- 아이들이 생각하는 새의 모습을 직접 그리고 꾸며서 머리 가면을 만들어 본다. 자기가 만든 새의 특징을 소개해 보도록 한다.


〈참조〉 협동작품으로 공작새 만들기를 해 본다.


- 준비물 : 밀가루풀, 캔트지전지, 일회용 바닐장갑, 크레파스, 물통

- 방 법 :

- 1) 우선 사진이나 실묘사된 그림을 보고 공작새의 특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 2) 캔트지 전지를 놓고 어린이들이 협동해서 공작새의 머리와 몸통을 그린다.
- 3) 커다랗게 펼쳐지는 꼬리 부분은 물감이 섞인 밀가루풀을 두 손으로 짚어내어 화면에 지그재그나 꼬부랑 선으로 양손을 그려가면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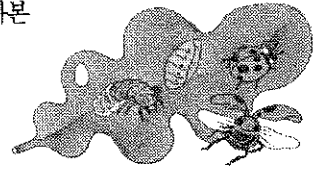
	7	활동시기	6월
제목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전래동요와 놀이를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접할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여우 동물 가면		
유의점 및 기타	사전에 '여우야 여우야' 그림자료나 글을 만나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 묻고 대답하는 말놀이가 반복으로 진행되면서 재미를 유발하게 된다.		
활동방법	<p>1. 우선 놀이에 사용되는 전래동요 및 놀잇말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잠잔다 ☆잠꾸러기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하품한다 ☆하품쟁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이뒹는다 ☆반짝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세수한다 ☆멋쟁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웃입는다 ☆예쁜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밥먹는다 ☆무슨 반찬? ★ OO반찬 ☆ 죽었니? 살았니? ★ "죽었다" 혹은 "살았다" <p>(☆원 틀레에 있는 친구들의 대사, ★여우의 대사)</p> <p>2.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그란 원을 만든다. 2) 여우 역할을 할 한 명의 유아를 원 가운데에 세운다. 익숙해지면 2~3명이 되어도 좋다. 3) 위의 놀잇말을 주고 받기가 자연스러워지면 다른 놀잇말도 만들어 본다. 4) 원은 옆 친구와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돌아가며 놀이를 한다. 5) 마지막에 여우가 "죽었다" 할 경우: 원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에 여우가 "살았다" 할 경우: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흩어져 도망가고 여우가 흩어진 친구들을 잡는다. 6) 이 때 잡힌 어린이가 다시 여우가 된다. 		

	8	활동시기	6월
제 목	무당벌레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무당벌레의 모양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곤충의 관계를 알아본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무당벌레의 알, 번데기, 성충의 사진, 식물에 잔뜩 달라 붙어있는 진딧물 그림자료		
유의점 및 기타	무당벌레의 알, 애벌레, 성충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시기(대략 5월, 6월)에 진행하면 좋다.		

활동방법

1.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무당벌레나 곤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예) 무당벌레 - 빨갛고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 이 등껍질은 무당벌레의 날개를 보호하는 일종의 갑옷이다. 날아다닐 때는 겹겹질 밑의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다닌다. 몸이 둥글다. 다리가 6개(3쌍)이다.



2. 아이들에게 무당벌레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주로 숲이나 풀이 많은 곳, 나무가 있는 곳에서 보았을 것이다.)

교사: 무당벌레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래, 맞아. 먹이가 많기 때문이지. 그런데 무당벌레는 무얼 먹고 사는지 아나? 바로 진딧물을 먹고 산단다.



3. 진딧물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교사: 이것이 진딧물인데, 진딧물은 채소나 나무의 즙을 빨아먹고 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농부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 그런데 무당벌레는 이 진딧물을 엄청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지. 그래서 농부들은 무당벌레를 하늘의 천사라고 부른대. 진딧물은 어른이 되었을 때 뿐 아니라 애벌레일 때에도 진딧물을 잡아먹는단다.

4. 알, 애벌레, 번데기 사진을 보여주며,

교사: 자, 이게 무당벌레의 알이고, 애벌레, 번데기란다. 처음엔 알이 나뭇잎이나 나무줄기 같은 곳에 매달려 있다가 알에게 깨어나와 애벌레가 된단다. 애벌레는 아주 많은 진딧물(400-700마리 정도)을 먹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어른벌레가 되는거야.

5. 다른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교사: 무당벌레처럼 곤충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곤충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는 대로 말해볼까?


그래, 나비, 벌, 풍뎅이들이 꽃가루를 날라줘서 식물들이 열매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지,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곤충들 덕분이란다.

· 벌 - 꿀을 먹게 해 준다. · 땅강아지, 가리 등 - 약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다.

· 누에나방 - 비단을 만들어 준다. · 여치, 매미, 귀뚜라미 -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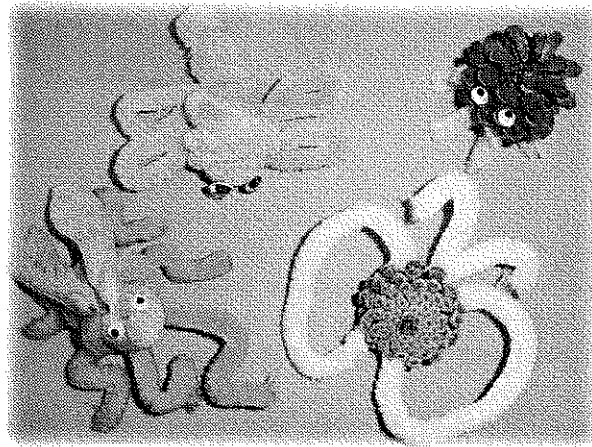
·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썩게 해 주는 아주 작은 곤충들 - 이 작은 곤충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공룡시대부터 쌓여있는 온갖 동식물의 시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썩혀서 분해해 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6. 밖으로 나가서 무당벌레를 찾아본다. 알은 돋보기를 이용해 관찰하면 좋다.

	9	활동시기	6월
제 목	자연물을 이용한 곤충 만들기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각각의 특징들을 살려 곤충을 만들어 본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돌, 나무열매, 나뭇잎 등의 자연물, 접착제, 모루, 인형 눈, 가위		
유의점 및 기타	가능하면 자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작은 돌맹이나 솔방울을 몸통으로 한다.
2. 모루를 이용해 표현하고 싶은 곤충의 다리나 더듬이 등을 만들어 준다.
3. 나뭇잎이나 종이를 이용해 곤충의 날개를 표현해 준다.
4. 인형 눈으로 마무리한다.
5. 자신이 만든 곤충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여러 개의 곤충을 모아 모빌로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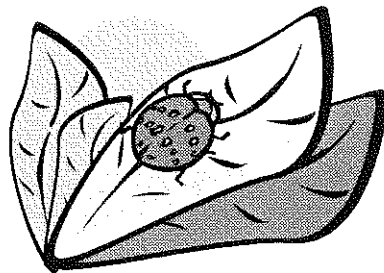
활동방법



	10	활동시기	6월
제 목	게으름뱅이 무당벌레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무당벌레의 여행을 통해 여러 동물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무당벌레' 이야기나누기 활동과 연결시켜 들려주고, 무당벌레 그리기나 만들기 프로그램, 혹은 등장하는 각 동물들의 소리나 행동 흉내내기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시켜 진행한다.		
자료출처	글 이소벨 편 · 그림 잭 터클 · 옮긴이 강무홍, 『게으름뱅이 무당벌레』, 웅진닷컴 · 1999		

게으름뱅이 무당벌레

[본문]



지금부터 아주아주 게으른 무당벌레 이야기를 들려 줄게.
 무당벌레는 하루종일 쿵쿨 잠만 잤단다. 물론 밤에도 쿵쿨 잤지.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다 보니까, 이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날 줄을 몰랐단다.

어느 날,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문득 다른 곳에서 자고 싶었어. 하지만 날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겠어?
 그러다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캥거루가 쿵쿵 뛰어가는 것을 보고, 캥거루 주머니에 쏙 뛰어든 거야.
 그런데 캥거루는 특하면 뛰어다니지 뭐야! 쟁충쟁충!
 무당벌레는 '쩍' 하고 소리쳤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자겠어. 너무너무 출렁거리잖아."
 그러다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호랑이의 등에 폴짝 올라탔단다.

하지만 호랑이는 걸핏하면 큰 소리로 울어댔지! 어흥!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짜증스레 투덜거렸어.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 너무너무 시끄러워.”


마침 악어가 쉼쉼 헤엄쳐 지나가자, 악어 꼬리 위로 냉큼 뛰어내렸단다.
그런데 이런! 악어는 걸핏하면 꼬리를 탁탁탁 휘두르지 뭐야!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또다시 투덜댔지.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 까딱하면 강물에 빠지겠어!”

그래서 원숭이가 휙 지나갈 때, 원숭이 머리 위에 폴짝 올라탔단다.
그런데 원숭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휘휘 빙글빙글 그네를 타지 않겠어?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한숨을 포옥 쉬었지.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 너무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곰이 어슬렁 어슬렁 지나갈 때, 곰의 귀에 폴짝 올라탔지.
그런데 곰은 심심하면 몸을 긁어 대지 뭐야! 뽀뽀뽀!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또 다시 한숨을 포옥 쉬었어.
“여기도 안 되겠어.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니, 원.”
그래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갈 때, 거북이 등에 폴짝 올라탔단다.
그런데 거북이는 틈만 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꼬박꼬박 졸지 뭐야.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호들갑을 떨었지. “앗, 뜨거워! 여기도 안 되겠어!”

그래서 코끼리가 쿵쿵 지나갈 때, 코끼리 콧등에 폴짝 올라탔단다.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 코끼리는 뛰지도 않고, 어흥! 하지도 않고, 꼬리를 휘두르지도 않고,
굽지도 않고, 그네를 타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하지만 바로 그 때, 코끼리가 채채기를 하지 뭐야!
에에에에.에취!

가연은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별수없이 포로롱 날아갔단다!

	11	활동시기	6월
제 목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공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자료출처	존 버닝햄 글·그림, 박상희 옮김,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비룡소 - 1995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본문]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림책 작가의 한 사람인 존 버닝햄이
이마존의 열대우림을 지키려 애썼던 치코 멘테스에게 바치는 책이다.

“아니, 아직도 기차놀이 하나?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잖아.”
“자, 여기 강아지 잠옷집이 있다. 거실의 방석 밑에 구겨져 있더구나. 잘 정돈해 놓고 자렴.”

“자, 이제 기차 떠납니다. 거, 삼 소리가 좀 시끄럽군.”
“시간 있으면 소풍 가면 좋겠다.”
“저 앞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네. 유령놀이 하면 재미있겠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줘. 사람들이 내 상아를 잘라 가려고 해. 자꾸 이러다간 우리 코끼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 남지 못할 거야.”

“오늘은 무척 덥겠는걸. 어디 헤엄칠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줘. 바닷가에 더 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말 거야. 사람들이 물을 더럽히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가져든. 자꾸 이러다간 우리 물개들은 살아 남지 못할 거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연날리기 할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줘. 난 늪에 사는데 사람들이 물을 다 퍼 버렸어. 난 마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 자꾸 이러다간 우리 두루미들은 살아 남지 못할 거야.”

“곧 비가 올 거 같네. 그럼, 오늘은 우산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줘. 사람들이 숲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 가고 있어. 자꾸 이러다간 우리 호랑이들은 살아 남지 못할 거야.”

“저기 눈이 많이 왔네. 우리 모두 눈싸움 할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줘. 난 북극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털옷을 만들려고 해. 자꾸 이러다간 우리 곰들은 살아 남지 못할 거야.”

“눈이 계속 내리네. 이렇게 눈이 계속 내리면 우리 기차는 꼼짝도 못할 거야.”

“이젠 돌아가야겠다.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거든.”

“빨리 일어나라. 학교에 늦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웬 동물이 이리 많은 거니? 현관에는 코끼리가 목욕탕에는 물개가 세탁실에는 두루미가 계단에는 호랑이가 그리고 냉장고 옆에는 북극곰이 있더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12	활동시기	6월
제 목	우는 소, 우리 송아지	월간주제	동물
활동목표	자연환경과 함께 동물과 관련된 음을 활동을 통해 동물도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		
활동영역	음을	예상소요시간	각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 노래 악보, 동물도감이나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유의점 및 기타	<p>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악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악보를 조금 크게 복사하고, 악보를 보지 못하면 글자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p> <p>[참조 - 추천 글]</p> <p>우리 주변에 소나 또는 소와 함께 있는 송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어린 우리들보다 더 챙겨먹이던 소, 그리고 귀엽기만 했던 송아지에 대한 기억이 아련합니다.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소를 그리면 얼룩소를 그립니다. 움직이지 않고 때 되면 사료 먹고, 사람을 위해 시간마다 젖을 만드는 일이 주요한 일인 젖소가 아니라 일을 하는, 그것도 사람과 더불어 노동을 하는 우리 소! 그 누렁소가 생각나는 노래 몇 곡을 소개합니다.</p> <p>한 곡은 짧은 곡, 다른 한 곡은 조금 깁니다. 짧은 곡은 전래동요이고, 다른 한 곡은 이원수 님의 시에 백창우 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송아지'는 경충경충 뛰는 송아지의 특징을 간단하지만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p> <p>'우는 소'는 노래말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인데 노래는 빠르기가 다양해서 가락이 재미난 노래입니다. 노래를 한 번 불러보면 아가소가 보고싶어 파란 잔디밭에 서서 우는 어미소의 모습과 눈물 가득한 그 큰 눈이 눈에 보일 듯이 그려집니다.</p> <p>참, 이 노래의 말을 지으신 이원수 선생님은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고향의 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제서야 "아하!" 하는 분들 많으시죠?</p>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1999		

제 목	우는소	월간주제	동물
자료출처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우는소

조금 빠르게 ♩ = 127

이원수 시 · 백창우 곡

새 파 란 하늘 밑에 - 파 란 잔 디 발 -

잔 디 발 언 누 령 이 가 - 혼 자 서 어 서 -

하 늘 올 처 다 보 고 - 매 - 매 - 읊 니 다 -

매 - 매 - 매 - 읊 니 다 -

왜 우 니 왜 우 니 곁 에 가 서 물 어 봐 도 대 답 없 는 어 미 소

커 다 란 두 - 눈 에 - 눈 물 만 - 가 득 -

이 꽃 이 갖 고 싶 니 -

이 모 자 쓰 고 싶 니 - 아

니 아 니 아 가 소 가

Em A7 D

보 고 싶 어 울 지

D Em7 A7

아 가 소 는 팔 러 서 - 멀 리 멀 리 갔 는 데 -

Em7 A7 G D

풀 안 먹 고 매 - 매 - 울 면 뽀 하 니 -

D Em7 A7

빨 강 꽃 노 랑 꽃 - 머 리 에 꽃 아 즐 겠 -

Em7 A7 D

누 령 아 울 지 말 고 나 랑 같 이 놀 - 자 -

제 목	우리 송아지	월간주제	동물
자료출처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우리 송아지

예사 빠르기로 ♩. = 105

전래동요 · 백창우 곡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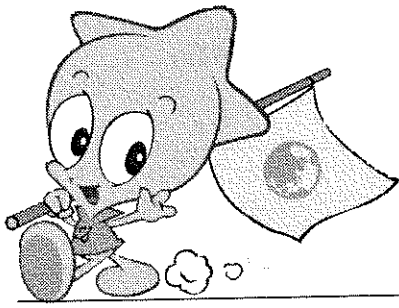
우 리 송 아 지 - 우 리 송 아 지 -

Am Am7 Am Am7 Am Am7 Em Em7

앞 발 구 르 고 뒷 발 을 굴 러 네 발 을 들 고 - 꿈 지 뽀 치 고 -

C Am F Am Em7 Am F Am

빨 리 달 러 라 - 미 - 여 - 미 - 여 - 미 여 - -



주제전개기간 7~8월

월간주제 **물**

언어

물나무 그리기
비오는 날
옹달샘 아가씨
꼬마붕어 빼빼
은빛 피라미의 소망, 짱이의 바다



음악 신체

빛방울의 여행
비아비아오너라



이야기 나누기

비
숲은 녹색댐
물나무 그리기
물이 필요한 곳
바다의 친구들



미술


물이 필요한 곳
바다속 꾸미기
붕숭아 물들이기



수 과학

비와 구름 만들기
물을 얼마나 쓸까요?(1)
물을 얼마나 쓸까요?(2)



	1	활동시기	7~8월
제 목	비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비의 흐름을 통하여 물의 순환을 이해한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물의 순환 그림자료		
유의점 및 기타	비와 구름 만들기 활동과 연계해서 활동한다.		

활동방법

1. 먼저 유아들에게 비가 오고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

교사: 자, 비가 오고 있네. 비 오는 것 많이 봤지? 이 비들은 어디로 갈까?

유아: 강으로요, 바다로요.

교사: 그래. 이 빗물은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모여서 강물이 되고, 작은 강물이 모여서 다시 큰 강물이 되고, 흘러 흘러 가서 바다까지 가지.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

교사: 한번 생각해보자. 옛날 옛날 공룡이 살던 때부터 내린 비들도 모두 바다로 갔을텐데, 언젠가 바다가 팍 차서 넘치지 않을까? 물컵에 물을 너무 따르면 넘치는 것처럼. 그럼 땅이 모두 물에 덮이지 않을까?

교사: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꺼야.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물의 전체 양은 항상 똑같거든. 자, 함께 그림을 보자.

2. 물의 순환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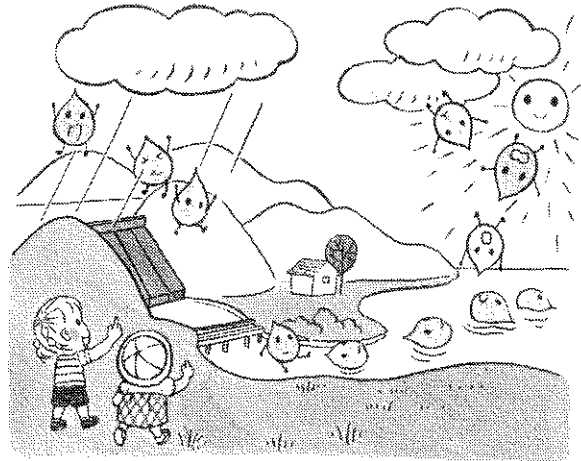
교사: 자, 여기 비가 내리지? 이 비는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은 흘러가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 모인 물은 뜨거운 햇볕이 비추면 아주 가볍고 작은 물방울(수증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지.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도 많이 모이면 무거워지는데 그럼 다시 물방울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지?


유아: 비요.


교사: 그래, 비란다. 비가 내리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살짝 얼어서 내리면 눈이 되는 것이지. 이제 물이 다시 비가 되었네. 그럼 비는 다시 강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반복해서 이야기해 본다.)

교사: 이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같은 물을 가지고 자꾸자꾸 다시 사용하는 거야. 강물을 지나가는 물, 우리가 쓰고 버린 물, 땅 속으로 지나가는 물 모두모두 모여서 바다로 가고 또 다시 비로 내려서 우리가 마시고, 음식으로도 먹고, 씻기도 하는 물이 되는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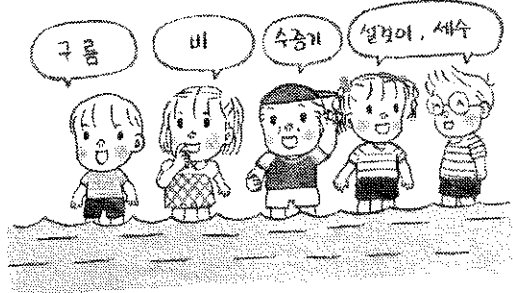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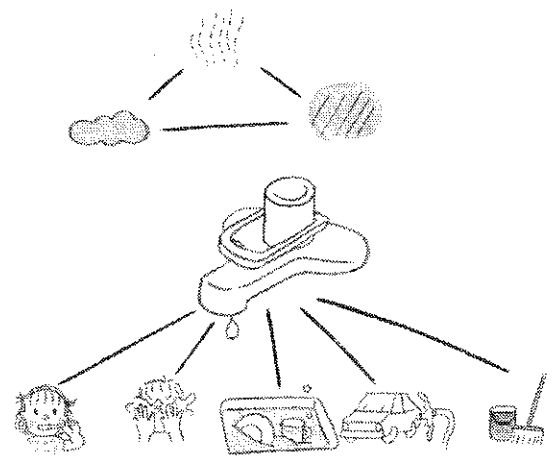



	2	활동시기	7~8월
제 목	비와 구름 만들기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물의 순환을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뜨거운 물, 유리컵, 등근 플라스크, 찬물, 유리병, 얼음		
활동방법	<p>[비 만들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을 끓여서 유리컵에 반쯤 담은 후 유리컵을 기울여 빙빙 돌려서 유리컵안에 생긴 물방울을 전부 없앤다. 그리고 나서 유리컵을 바로 세운다. 2. 등근 플라스크에 찬물을 담아 앞의 유리컵 위에 비스듬히 올려 놓는다. 3. 컵 속의 뜨거운 물에서 증발해 플라스크의 찬 표면에 응결된 물방울은 다시 컵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으로 물의 증발, 응결, 비의 과정을 모두 보게 되는 것이다. <p>[구름 만들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리병을 잘 닦아서 투명하게 하고 뜨거운 물을 4분의 1쯤 넣은 다음 잠시동안 뚜껑을 덮어 둔다. 2. 유리병 속의 공기가 뜨거운 물로 인해서 충분히 수증기를 머금었을 때 가만히 병 주둥이 위에 얼음을 올려 놓는다. 3. 유리병을 들여다보면 얼음이 있는 주위에서 생긴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이 안개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얼음으로 냉각되어 만들어진 구름이다. 		
참고자료	박종관 외5,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한국YMCA·환경운동연합-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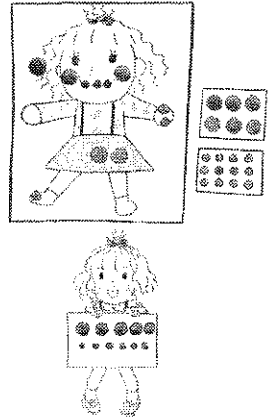
	3	활동시기	7~8월
제 목	숲은 녹색담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토양과 숲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한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시냇물, 숲의 그림이나 사진		


활동방법



1. 지난 시간에 배운 물의 순환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
2. 교사: 그런데 이 비들이 땅에 내려 금방 모두 바다로 가 버릴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교사: 비가 모두 한꺼번에 바다로 가버린다면 비가 올 때만 강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 강물이 금방 사라지겠지?
유아: 맞아요.
3. 교사: 강물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유아: 먹을 물이 없어요.
4. 교사: 그래, 우리가 먹고 씻는데 사용하는 수돗물들은 강에서 가져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란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우리가 직접 쓸 수 없거든.
강이 없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없겠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유아: 물놀이도 못해요.
교사: 그래. 어린이들도 물놀이를 못해서 섭섭하지만 물풀이나 물고기들처럼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유아: 모두 죽어요.
5. 교사: 그래. 비가 안 올 때에도 강물이 흘러야 우리 사람들도 살 수 있고 여러 물속생물들도 살 수 있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 비가 안 올 때 강에 본 사람 있니?
유아: 저요, 저요.
교사: 어땠니? 진짜로 물이 하나도 없었니?
유아: 아니요, 있어요.
교사: 그래, 있었을꺼야. 이건 아주 고마운 친구 덕분이야. 이 친구가 누구일까?
교사: (숲의 그림을 보여주며) 바로 이 친구 때문이란다. 도로나 시멘트로 덮여 있지 않은 그냥 흙으로 되어서 나무들이 많이 사는 숲 친구이지. 이 숲들은 비가 많이 올 땐 숲 땅 속 깊이 물을 잔뜩 담아 두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조금씩 물을 내 보내준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물속 생물들도 살 수 있는 것이지.


	4	활동시기	7~8월
제목	물나무 그리기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우리의 일상생활이 물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안다. 물은 결국 순환하는 자원이라는 사실도 일깨워 준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종이, 필기도구, 색종이, 가위		
활동자료	물과 관련된 단어카드나 그림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용판에 붙이면서 물나무를 그려보게 하는 것도 좋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에게 물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가져오게 한다. (잡지를 찢어와도 된다.) 가져온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2.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사용해 왔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본다. <div data-bbox="740 714 1248 1004" data-label="Image">  </div> 3. 유아들에게 빈 카드를 나누어 주고 물과 관계된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한 장에 하나씩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p>★ 어떤 형태로든 물과 관련된 단어이면 좋다. 유아들이 단어를 잘 말하지 못할 경우는 교사가 목욕탕, 주방, 동물, 식물, 강 등의 중심 단어를 제시해서 유아들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호수, 강, 바다, 구름, 비, 물고기, 철새, 수돗물, 지하수, 국물, 수영장, 공장폐수, 가뭄 등)</p> 4. 단어를 모은 뒤 물과 관계된 단어로 유아들에게 각자가 종이에 나뭇가지를 그리도록 한다. 물가지는 '수돗물 - 빨래 - 강물오염' 과 같은 아주 간단한 예로 시작한 뒤 점점 복잡한 물 나무를 그리도록 한다. 5. 물은 이렇게 다양한 과정으로 순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게 됨을 설명한다. <div data-bbox="713 1178 1262 1632" data-label="Diagram">  </div> 		
참고자료	조선일보사 환경팀, 『푸른지구 푸른교실』, 1996		

	5	활동시기	7~8월
제 목	물이 필요한 곳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생활을 하면서 물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봄으로써 물의 중요성에 대해 안다.		
활동영역	미술,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40분
활동자료	도화지(8절지), 크레파스, 동그라미 스티커(물방울 스티커)		
유의점및 기타	<p>활동을 3일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 (1일째: 자기 모습 그리기/ 2일째: 물방울 스티커 붙이기/ 3일째: 스티커 붙인 것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p> <p>하루 전날 사진에 물방울 스티커를 붙여 올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부모님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가정에서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8절지 도화지에 그리게 한다(개인 전신 사진을 준비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 유아들에게 물방울 스티커(동그라미 스티커)를 나누어주고 자신을 그린 그림에 하루 동안 물을 사용한 곳에 붙이도록 한다 (예: 물을 먹으면 입에 스티커를 붙이고,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엉덩이, 손을 닦으면 손에 스티커를 붙인다.) ★ 적게 사용한 곳에는 작은 물방울 스티커, 많이 사용한 곳에는 큰 물방울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다. 3. 교실과 가정에서 하루 동안 계속 붙이도록 한다. 4. 스티커를 붙인 그림을 보면서 언제 물을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5.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내면서(혹은 가리면서)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여 이야기해 본다. 교사: 머리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온 친구들이 있네요. 물을 어떻게 썼지? 만약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6. 각자의 물방울 스티커 수만큼 다른 종이에 붙인 후 각자가 조금씩 사용하는 물이 모이면 많은 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자가 조금씩 아껴도 많은 물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7. 물의 소중함을 알고 앞으로는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규칙을 정해본다. 8. 규칙을 원내에서 직접 실천해 본다.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이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 - 2002		




	6	활동시기	7~8월
제 목	물을 얼마나 쓸까요? (1) 손 씻기 실험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손을 씻을 때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지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물 절약의 필요성을 체험한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40분
활동자료	1.5L페트병 3개, 물받을 그릇 3개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손을 씻을 몇몇 아이를 선발한다. 실험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바닥에는 크레파스로 똑같이 줄을 그어 주고, 깨끗이 지워질 때까지 손을 씻도록 한다. ★ 처음에는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손씻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크레파스가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손을 씻도록 해야 실험이 정확하다. 아이들이 손을 씻으면서 사용한 물은 대야에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각자가 사용한 물을 1.5L 페트병에 각각 담는다.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을 서로 비교한 다음, 가장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한 아이의 물통을 물 높이에 맞추어 잘라서 그것을 계량컵으로 사용한다. 적은 물로도 손을 깨끗이 씻은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물을 많이 사용한 아이는 적게 사용한 아이의 몇 배를 사용했는지 그림표로 표시해준다. (가장 많은 양의 물이 계량컵으로 세 컵이 나온다면 그림 밑에다 손 씻는 그림 세개를 붙여준다. 계량컵의 물통 밑에는 손 씻는 그림을 하나 붙인다.) 완성된 표를 보여주고 표를 설명해 주면서 물절약을 유도한다. (예. '손 씻는 그림이 세 개 붙은 그림은 세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한 사람 밖에 못 씻었으니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라', '사용한 물로 손을 세 번이나 씻을 수가 있으니 다음부터는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자' 등) 		
참고자료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저, 『생활중심 환경교육』, 다음세대 - 1998		

	7	활동시기	7~8월
제 목	물을 얼마나 쓸까요? (2) 샤워꼭지의 우유통 실험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생활을 하면서 물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봄으로써 물의 중요성에 대해 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빈 우유통, 초침이 있는 시계, 그리고 시간을 재어줄 어른		
유의점 및 기타	가정에서 활동해 보고 활동내용을 적어오도록 한다.		
활동방법	<p>[샤워꼭지의 우유통 실험]</p> <p>우리는 샤워기에서 너무 많은 물을 쓰고 있지 않을까? 빈 우유통, 초침이 있는 시계, 그리고 시간을 재어줄 어른이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유통의 윗 부분을 펴서 뚜껑없는 육면체가 되도록 한다. 2. 보통 사용하던 대로 샤워기의 물을 튼다. 샤워기 밑에서(물론 옷을 벗어야 겠지요) 우유통을 10초 동안 들고 서 있어 본다. 시간을 재어 주시는 어른께 언제 끝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3. 만일 우유통이 10초 이내에 넘쳐 흐르면 지금 사용하는 샤워기에서는 너무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아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2002		


	8	활동시기	7~8월
제 목	비오는 날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비의 모습, 소리, 다른 것들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체험한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비오는 날		
활동방법	<p>1. [줄거리] 비 오는 날 한 아이가 방안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거리에 내리는 비의 모습을 그려 본다. 바다에서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도 생각한다. 비가 온 뒤 새싹이 돋는 모습, 새들이 거리에서 몸을 씻는 모습, 비가 그친 뒤 친구들과 물웅덩이와 진흙속에서 노는 모습을 생각한다.</p> <p>2. [관련활동] 빗소리 듣고 소리의 차이 비교하기, 비 오는 모습 관찰하기, 비가 오면 달라지는 것 알아보기, 비 그친 후 모습 관찰하기</p> <p>3. [확장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오는 날 화분을 밖에 내어놓고 물을 준다. - 비가 오는 날 빗물을 받아서 모아 두었다가 화초에 물을 준다(빗물을 받아 30분 정도 기다려서 더러운 이물질들이 가라앉은 후 주도록 한다). <p>교사 : 옛날 사람들은 꽃에 물을 어떻게 주었을까?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꽃에 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물을 아껴 쓸 수도 있고 비가 오는 소리도 들으면서 우리들은 예쁜 마음을 가질수도 있을꺼야.</p>		
참고자료	유리 슬레비츠 글·그림, 강무홍 옮김, 『비오는 날』, 시공사-1994		

비오는 날 (유리 슬레비츠 글·그림, 강무홍 옮김)

밖에 비가 오고 있나봐/ 빗소리가 들리잖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툭툭 두드리고, / 지붕 위로도 / 투두둑 툭툭 떨어져 /
 온 마을에 비가 내리고 있어 / 빗방울은 단숨에 지붕에서 처마 밑으로 굴러 떨어져, / 흙통으로 싸아 흘러나오지 /
 빗줄기는 길바닥을 따라 흘러가 / 내일은 내 작은 배를 띄울 수 있을 거야 / 비가 와! / 온 들판에 비가 와 / 언덕 위에도, /
 풀밭 위에도, / 연못에도 / 숲, 개구리아 / 그만 울고 물 속에 들어가 / 저 빗소리 들어 보렴 / 빗줄기가 장대같이 퍼붓고, /
 냇물도 쉴새없이 흘러내리는구나 / 개울은 언덕을 굽이돌아 시내로 흘러들고, / 쏟아져 강을 지나 바다에 이르지 /
 파도는 넘실 굽이치며, / 힘차게 밀려가, 철썩 세차게 물결치고 / 미친 듯이 파르릉대며 솟구쳐 오르지 /
 바닷물이 부풀어올라 / 하늘에 녹아드네 / 비가 와 / 내일은 새싹이 돋을 거야 / 새들은 거리에서 몸을 씻겠지 /
 우리는 맨발로 물웅덩이를 뛰어다니고 따스한 진흙탕에 발자국도 찍을 테야 /
 난 물웅덩이 속의 조각 하늘을 뛰어넘을 테야 / 온 마을에 비가 내려 / 창가에 선 화초가 움트고 있을 걸야 /
 난 그걸 알 수 있어

	9	활동시기	7~8월
제 목	빗방울의 여행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소리의 탐색을 통해 신체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1시간
활동자료	빗소리 녹음할 카세트 테이프, 각종그릇, 동화책, 가면 머리띠, 사진기		
유의점및기타	신체 표현시 다른 유아의 표현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혹 유아가 몇 명이 함께 어우러져 표상화하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활동방법	<p>1. [사전활동]</p> <p>비 내리는 날의 느낌에 대해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으로 나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 잠시 눈을 감고 비내리는 소리를 들어보자(창문을 열어준다.) - 빗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비가 내리니까 어떤 차림으로 나가면 좋을까? - 빗소리를 들을 때 어떤 약속을 지키면 좋을까? (조용히 해요, 빗물로 장난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아요 등등) - 어떤 물건을 이용해 들으면 빗방울 소리를 크게 들을까? (플라스틱과 고무그릇, 유리병, 책받침, 양철대야, 우산 등) <p>2. 빗방울 소리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있게 우산(비옷과 장화)을 쓰고 밖으로 나간다. - 어린이가 가지고 간 재료를 늘어놓고 각각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다. - 나뭇잎, 풀, 흙과 보드블록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소리와 모양을 살펴본다. - 빗방울이 하늘과 바닥에 닿을 때 소리와 모양은? <p>3. 빗방울 소리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방울 소리가 어떻게 들렸니?(OO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했어요.) -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바닥에 떨어지며 무슨 생각을 할까? - 내가 만일 빗방울이라면 떨어져 바닥에 닿을 때 뭐라고 할까? - 빗방울은 어떤 모양으로 떨어졌니?(그룹별로 모양을 표현해 본다.) - 선생님이 빗소리를 녹음해 왔는데, 너희들이 빗방울 요정이 되어 움직여 볼까? (두 모듬 정도로 나누어 한 팀은 표현하고 한 팀은 감상할 기회를 갖는다.) <p>3. [확장수업] 마라카스 등 빗소리와 연관된 악기나 소품을 활용하여 빗소리 만들기를 해 본다.</p>		
------	---	--	--

	10	활동시기	7~8월
제 목	바다의 친구들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바다의 친구들을 깨끗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오염되고 힘들어 하는 바다의 모습 그림자료		
유의점 및 기타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후 활동한다.		
활동방법	<p>1. 바다에 다녀왔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사: 바다에 가본적 있니? 교사: 바다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무슨 놀이를 했니?</p>		
	<p>2. 교사: 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까? 유아: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 줘요. 휴가 때 놀러 가면 즐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모래성을 쌓고 놀아요.</p>		
	<p>3. 오염이 된 바다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 ★ 사진자료 예: 캔을 여러개 묶을 때 쓰는 고리에 물고기들이 끼어서 힘들어하는 사진, 비닐에 쌓여 숨을 못 쉬는 새, 스티로폼을 먹고있는 사진, 바다에 석유로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 죽은 사진 등 교사: 이 사진들을 보니까 바다의 표정이 어떤 것 같니? 유아: 아파하는 것 같아요. 교사: 바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오염시켜서요. 교사: 너희들이 바다라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아? 유아: 나쁠 것 같아요, 속상해요,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안주고 싶어요.</p>		
	<p>4. 투명한 비닐 주머니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으로 인해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 입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준다. 교사: 투명한 비닐 주머니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 바다거북은 그것을 해파리로 잘못 알 수 있데. 어떤 나라(이탈리아)에서는 죽어서 해안으로 끌려 올려진 바다거북 배속에서 50장이 넘는 비닐 주머니가 나온 적도 있다는구나.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비닐 주머니가 거북이를 죽일 수도 있어. 거북이뿐이 아니야. 어선이 내버린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등,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희생되고 있단다.</p>		
	<p>5. 우리가 바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사: 바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유아: 깨끗하게 보호해줘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야외에 놀러 갔을 때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돌아와서 버려요. ★ 특히 플라스틱통, 과자봉지를 예로 들어 실제로 유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p>		
	<p>6. [확장활동] 바다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이야기 하고, 바다의 친구들로 바다 꾸미기(활동11 참조)나 바다에게 편지쓰기를 해본다.</p>		

※ 꼭 알아야 할 <교사용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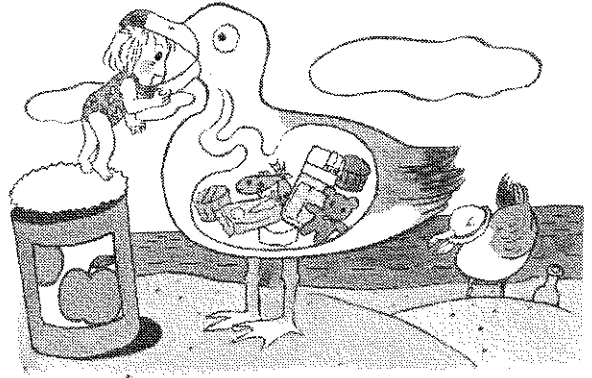
1.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바닷가에 가보면 어디에서나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를 만날 수 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어부, 선원들, 해변에 놀러간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육지에서 버린 쓰레기도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 쓰레기 중에 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다에 남아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물이나 낚시줄, 플라스틱 쥘, 스티로폼 부이,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등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 등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다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 실수로 먹은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바다 거북들은 비닐 봉지가 해파리인줄 착각하여 삼켜 버린다. 죽은 거북을 해부해 보면, 뱃속에 비닐 봉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고래나 상어의 뱃속에는 플라스틱 봉지나 끈끈하게 뭉쳐진 그물이 들어 있다. 물고기나 바다새들의 창자 속에서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다. 실수로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으므로 포만감을 주어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소화기관을 막거나 상처를 입히게 된다. 플라스틱을 삼키면 부력장애나 잠수 장어를 일으켜 먹이를 잡거나 도망가는데 지장을 준다. 죽은 바다새들의 뱃속에서는 일회용 라이터, 플라스틱 병뚜껑, 스티로폼 조각, 장난감 등이 나온다.



3. 몸이 끈끈하게 묶여서 죽는 바다 생물들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걸려서 죽는 피해도 심각하다. 매년 4만 마리 이상의 물개가 버려진 그물에 머리를 집어 넣어 목이 졸리거나 몸이 묶여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들이 낚시줄이나 플라스틱에 걸려 죽는다. 얼마나 많은게나 물고기들이 쓰레기 때문에 죽어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4. 유령의 고기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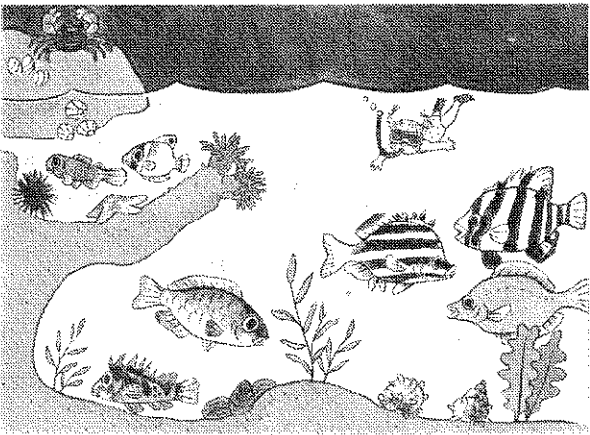
버려진 그물은 물 속을 떠다니면서 바다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물에 갇힌 생물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게 된다. 버려진 그물은 마치 바다 속을 떠다니는 유령과 같다.


5. 바다에서 쓰레기가 썩어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나?


바다 속에서 종이 분해되는 데는 1개월, 뱃줄은 14개월이 걸린다. 대나무는 3년, 페인트 칠이 된 나무 조각은 13년이 지나야 썩어 없어진다.

이에 비해 통조림 깡통은 100년, 그물을 비롯한 각종 플라스틱은 무려 5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바다로 떠나는 교실』 2002

	11	활동시기	7~8월
제 목	바다속 꾸미기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바다의 생물들을 생각하며 표현해본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40분
활동자료	색종이 포장비닐, 색종이, 가위, 풀, 포장용 파란그물이나 파랑색 비닐, 모루, 눈, 환경구성판, 매직(싸인펜), 본드		
유의점 및 기타	물고기 이외의 여러 생물이나 물풀 등을 환경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종이 포장 비닐 안에 색종이를 조각조각 잘라서 안에 넣는다. 2. 색종이를 넣은 비닐을 모루나 뺨끈을 이용하여 대각선 모양으로 오므린 다음 모루를 이용하여 꼬리 부분을 장식해 본다. 3. 비닐위에 본드를 이용하여 눈을 붙인 다음 싸인펜이나 매직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꾸며준다. 		
	<p>[환경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환경구성판 위에 파란 그물이나 비닐봉지를 바다 속처럼 옆으로 길게 고정시켜 준다. 5. 유아들이 만든 물고기를 구성한다. 이 때 물풀이나 바위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을 만들어서 환경구성에 이용해도 좋다. 		
			

	12	활동시기	7~8월
제 목	봉숭아 물들이기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모든 자연은 저마다의 색을 지니며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색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봉숭아 꽃과 잎, 백반(명반), 비닐봉지나 랩, 실이나 고무줄		
유의점 및 기타	손톱이 아닌 발톱이나 천, 종이에 물을 들여보아도 좋다.		
활동방법	<p>1. [사전활동] 봄철부터 심은 봉숭아를 기르며 체험 활동할 기회를 갖는다.</p> <p>2. 물들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숭아꽃과 잎을 따서 약간 시들게 한다. - 절구에 봉숭아 꽃과 잎, 명반(백반)을 넣고 찧는다. - 적당량을 손톱에 올려놓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닐이나 랩으로 찐다. (명반이 없을 경우 소금을 넣어주어도 되며, 손톱 주변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적당한 시간 경과 후, 찐 비닐을 풀고 깨끗이 씻는다. (적어도 약 3~4시간이 지나면 예쁜 색깔을 얻을 수 있다.) <p>★ 활동시기: 등원 후 정적인 활동을 하는 날 활동을 하고 점심식사 후 귀가해서 풀도록 한 다거나 낮잠 자는 날 점심식사 후나 1일 원내캠프 저녁에 하면 효과적이다.</p> <p>3. [확장활동] 모든 자연물은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종이나 천에 물들이기를 해보자. 저마다 빛깔이 있음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p>		

	13	활동시기	7~8월
제 목	옹달샘 아가씨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옹달샘 아가씨'는 깨끗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룬 동화로, 맑고 깨끗한 옹달샘물로 더러운 샘물을 먹고 병들어 있는 염소가족을 살리게 되고 샘물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옹달샘 아가씨』, 1997		

옹달샘 아가씨

아름다운 숲마을입니다. 숲마을 친구들은 오늘도 옹달샘가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옹달샘 아가씨, 맑은 물을 마시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기토끼 토란이는 두 귀를 쫑긋 세우며 말합니다. “모두 너희들 덕분이야. 매일 청소도 해주고 즐겁게 놀아주잖아.” 옹달샘 아가씨는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은행나무 아저씨, 단물을 많이 드시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옹달샘 아가씨는 은행나무 아저씨에게도 단물을 담뱃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옹달샘 아가씨...” 은행나무 아저씨는 연노랑빛으로 물드는 잎새를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숲마을 옹달샘물이 그렇게도 맑고 깨끗하다면서요?”
 “그렇대요.” “그럼, 우리도 옹달샘물에 놀러 가볼까?”
 “그래요, 우리 개울마을에는 어쩌나 물이 더러워졌는지 이곳에서 계속 헤엄치다가는 병이 나고 말 거예요.”
 옹달샘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개울마을까지 퍼져 고양이 가족과 오리가족은 옹달샘가에 모여 살랑 살랑 헤엄 치며 신나게 놀다 갑니다.
 “호호호, 간지러워. 개울마을 친구들이 매일 놀러와 주니 심심하지 않은 걸?”
 “우리도 좋아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은 처음 본 걸요?” 숲마을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짹순이가 숨을 할딱거리며 날아와 곰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곰 아저씨, 큰일났어요. 농장마을 염소네 가족이 더러워진 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대요.”
 “뭐, 염소네 가족이 앓고 있다고? 이것 참 큰일이구나. 짹순아, 가서 다람이, 토란이 좀 옹달샘가로 오라고 해라.” “알았어요, 짹.”

다람이, 토란이는 짹순이의 말을 듣고 놀라 한걸음에 뛰어왔습니다.
 “농장마을 염소네 가족이 앓고 있다는구나.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꿈 아저씨의 말에 모두들 걱정스런 눈빛만 주고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웅달샘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꿈 아저씨, 친구들이 웅달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줘서 이렇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솟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물을 나눌 때가 되었어요. 염소네 가족에게도 먹게 해주고 그곳에 있는 풍풍샘에도 나눠주세요.”

“그러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제 곧 겨울이 올텐데...”

“아니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은 물을 솟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웅달샘 아가씨의 부탁에 짙순이가 물통을 물고 앞서 갑니다.

“영차, 영차” 다람이도, 토란이도 뒤따라 갑니다.

“음메에~ 음메에~” 염소네 가족이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이 물을 마셔봐.”

“싫어, 우리가 물을 마시고 앓게 되었는데 또 물을 마시라고?”

“이 물은 깨끗하고 맛있는 웅달샘물이야. 꼭 마셔야 해.”

꿈아저씨의 간곡한 말에 아빠 염소가 조금씩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꿀꺽 꿀꺽...” 엄마 염소도 마십니다.

“꿀꺽 꿀꺽 꼬르륵...” 아기염소들도 마십니다.

“꿀꺽 꿀꺽 꼬르륵...” 염소네 가족은 웅달샘물을 마시고는 서서히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물이 어디 있었는가?” 아빠 염소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숲마을 모든 친구들은 웅달샘 아가씨를 좋아해요. 매일 웅달샘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즐겁게 놀아준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람이는 둥근 꼬리를 흔들며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기 염소가 훌쩍거립니다.

“나는 풍풍샘을 더럽힌 일이 있어.”

“나도 덩다고 침병침병 들어갔지 뭐예요.”

아기 염소들은 잘못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 염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풍풍샘을 깨끗이 청소해 주자. 그러면 풍풍샘에서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좋아.” 염소네 가족은 손뼉을 치며 풍풍샘으로 갑니다.


“우리는 웅달샘물을 담아 오겠어요.”

꿈 아저씨, 다람이, 토란이는 숲마을로 뛰어갑니다. 짙순이도 날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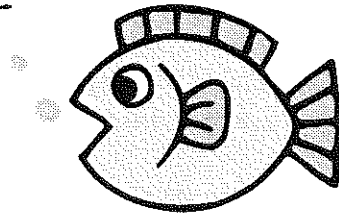
“우리는 웅달샘 아가씨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릴라라 맑고 깨끗한 물을 담뱃 마시게 해 줘요.”

숲마을 친구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숲속 가득 울려 퍼집니다.

웅달샘 아가씨는 저무는 가을 하늘을 보며 달빛만큼 환하게 웃었습니다.

	14	활동시기	7~8월
제 목	꼬마 붕어 뽀뽀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환경과 생명이 위협받게 될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꼬마 붕어 뽀뽀는 '뽀뽀' 라는 작은 붕어의 짓곳은 장난으로 어린 붕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폐수를 강에 버림으로써 뽀뽀의 가정과 그 마을 전체의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꼬마 붕어 뽀뽀』, 1997		

꼬마 붕어 뽀뽀



뽀뽀는 한강에 사는 꼬마 붕어입니다.
뽀뽀는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또또와 함께 살았습니다.
뽀뽀의 동네는 아름다운 물풀과 조약들로 만들어져 다른 동네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작은 소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소동은 바로 꼬마 붕어 뽀뽀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뽀뽀가 어디서 주웠는지 철사를 입에 물고 친구 붕어들과 함께 다른 아기 붕어들을 괴롭혔습니다. 뽀뽀의 장난에 쫓기던 아기 붕어들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른 붕어들은 뽀뽀와 친구들을 혼냈습니다.
하지만 뽀뽀와 친구들은 어른 붕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화가 난 어른 붕어들은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 뽀뽀야, 그만두지 못할까!”

어른 붕어의 고향소리에 기가 죽은 장난꾸러기 뽀뽀와 친구들은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른 붕어들은 모두 버릇없는 애들이라고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뽀뽀는 날이 어두워지자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뽀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아빠 붕어는 큰소리로 뽀뽀를 불렀습니다.

아빠의 화난 목소리에 겁에 질린 뽀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아빠.”

“왜 아기 붕어들을 괴롭혔느냐?”

“심심해서 장난으로요.”

“심심해서 못살게 했던 말이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느냐? 나가서 회초리가져 오너라.”

“잘못했어요, 아빠.”

뽀뽀는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간 뽀뽀는 너무 멀리 나왔다는 생각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니다.

꼬마 붕어 뽀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때 저쪽에서 검은 것이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뽀뽀는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순간, 뽀뽀는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해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뽀뽀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저 위에 갔더니 아주 큰 구멍에서 까만 물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뽀뽀의 말을 듣고, 뽀뽀의 가족은 급하게 마을의 대장에게로 갔습니다.

잠시 후 물고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장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이곳에 버리고 있답니다. 얼마 있으면 더러운 물이 마을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짐을 꾸려서 이곳을 떠나세요.”

이 말이 끝나자 물고기들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꼬마 붕어 뽀뽀네 식구들도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뽀뽀도 작은 짐 하나를 가지고 아빠, 엄마를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뽀뽀는 마을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마을에 까만 물이 덮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까만 물이 뭐예요?”

“저 물은 사람들이 쓰고 버린 더러운 물이란다.”


“아빠, 우린 또 마을을 옮겨야 하나요?”

“그렇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을 때에야 마을을 옮기지 않아도 되겠지.”

뽀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빠, 저 이전 착한 붕어가 될게요.”

뽀뽀와 뽀뽀네 가족들은 새로운 마을을 향하여 열심히 헤엄쳐갔습니다.

	15	활동시기	7~8월
제 목	은빛 피라미의 소망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개발로 인해 오염된 물이 작은 실천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은빛 피라미의 소망' 은 평화롭게 살던 은빛 피라미가 사람들의 개발로 인해 강물이 더럽혀지면서 피로움을 겪게 되나 착한 아이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은빛 피라미의 소망』, 1997		

은빛 피라미의 소망

원두막 옆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류나무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뭉게구름이 시냇물 속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내려다 보면 구름이나 미류나무, 원두막까지도 물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 비칩니다.

시냇물 속에는 은빛피라미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빛피라미는 물 밖의 세상을 보고 싶었지만, 물 속에서는 하늘의 구름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언니 피라미 통통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물 위로 튀어 올라봐. 물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
“언니, 난 아직 어려서 힘차게 튀어 오를 수가 없어.”
은빛피라미는 물 속에서 돌멩이나 모래알갱이를 베고 누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통통이 언니와 숨바꼭질을 할 때면, 물풀 속에 숨은 은빛피라미는 꼬리가 흰히 보여 금방 잡히곤 했습니다.
맑은 물 속에서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감박 잊었기 때문입니다.

해님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던 은빛피라미는 물속을 뛰어 다니는 아이들의 하얀다리를 보았습니다. 아마 물싸움이 한창 벌어졌나 봅니다.

“야, 신난다.”
은빛피라미가 외치며 아이들 쪽으로 헤엄쳐 가자 언니 통통이가 말렸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해. 물에 독한 약을 풀거나 전기를 보내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러나 은빛피라미는 언니 통통이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안경을 쓰고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는 과자 부스러기를 물 속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은빛피라미가 이제까지 먹어보았던 물벼룩이나 장구벌레 보다 훨씬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언제나 아이들은 수영을 하러 왔고 은빛피라미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다.
원두막 옆 산에서는 며칠씩이나 불도저 소리가 났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고 며칠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냇물이 온통 황토빛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은빛피라미의 놀이터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물풀도 밀려내려온 흙에 묻혀 버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해에 나무를 베고 불도저로 언덕을 허물던 자리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하수구의 시커먼 폐수가 은빛피라미네 동네를 덮쳤습니다.
빈 깡통이나 음식찌꺼기, 기름찌꺼기, 스티로폴 조각 등이 마구 떠내려 왔습니다.

이제 물 속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 위로 튀어오를 수 없었기에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은빛피라미의 반짝이던 피부는 어느덧 누렇게 변했고 엄마, 아빠피라미는 시름시름 앓아 눕고 말았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기름찌꺼기가 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빛피라미는 원두막쪽으로 헤엄쳐 가보았습니다. 그쪽의 사정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은빛피라미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빛피라미는 가슴을 조이며 수면에다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작년에 물 속에서 헤엄치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너무 많이 변했다. 그지?”
“그래, 이제 이 물에서는 수영도 할 수 없게 됐어.”
“물고기들은 모두 이사가고 한 마리도 없잖네.”
듣고 있던 은빛피라미는 물 밖으로 입을 내밀고 숨가쁘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는 달려와 두손으로 물고기를 건져올려 비닐봉지에 물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지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비닐봉지 속의 은빛피라미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통에 멀미가 나서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뱃속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한참 후 은빛피라미를 들고 온 아이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맑은 물에서 살아라.”
그리고 눈에 묻은 기름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주고는 물 속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물 속의 돌맹이와 수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위로 파란 하늘과 멍게 구름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빛피라미는 더러운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언니와 병든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공장에서도 맑은 물을 내보내게 되어 다시 깨끗한 냇가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 때는 엄마, 아빠,
언니와 옛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은빛피라미의 소망이었습니다.

	16	활동시기	7~8월
제 목	짱이의 바다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개펄과 생명의 소중함을 짱이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이 책은 일본에 사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죽어가고 있는 개펄(이사 하야 만)을 생각하며 직접 만든 그림책이다. 짱이는 나가사키 현의 이사하야만 개펄에서 살고 있는 망둥어. 평화롭게 살던 개펄에 제방이 생기면서 개펄 친구들은 극심한 고통에 빠진다. 짱이네 가족은 제방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심지어는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말라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런 모든 장면을 본 왜가리들은 개펄에 있는 생물들을 바다까지 데려다준다. 일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개펄의 현실을 바로 일깨워 준다. (* www.aladdin.co.kr 참조)		
유의점및기타	이야기의 몇 부분을 발췌하여 '동극' 으로 만들어 활용해 보면 좋겠다.		
자료출처	테라타 시오리, 『짱이의 바다』, 세상모든책 - 2000		

짱이의 바다

이곳은 아름다운 바닷가를 따라 펼쳐진 개펄입니다.
 이 개펄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망둥어 짱이도 개펄 진흙탕에서 씹씹하게 뛰어 놀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짱이가 개펄에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높다란 파도를 일으키며 제방이 단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큰일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 할아버지, 문어 아빠, 게 할머니 등등
 많은 생물들이 단힌 제방 첩판에 끼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짱이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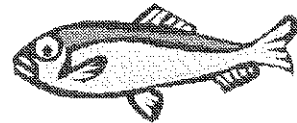
한편, 바다 위에서는 물고기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걱정하며,
 제방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팔짝 팔짝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애야, 괜찮나?”

이쪽 저쪽으로 나뉘진 물고기들이 저마다 소리 높여
 가족과 친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높은 제방 벽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제방에 간혀버린 개펄은 점점 매말라서 바닥이 짹짹 갈라져 갔습니다.
 개펄에 남아있는 물고기와 조개들은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왔습니다.
 물고기와 조개들은 하나 둘씩 죽어갔으며 튼튼했던 짱이도 더 이상 기운이 없습니다.



어느 날, 게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다같이 힘을 내 집게발을 흔들어서 바다를 물러오자!”
게들은 저 먼 바다 끝을 향해 힘껏 집게발을 흔들었습니다.
“바다야, 돌아와 줘!”
“바다야, 어서 돌아와!”

할아버지, 그만 하세요! 집게발이 다 망가져 버리겠어요!”
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게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만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게들은 그전보다 세게 집게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바다새들이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개펄에 있는 작은 물고기나 게를 먹고사는 왜가리들이었습니다.
짱이는 개펄 위를 맴돌고 있는 새들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모두 빨리 도망치세요! 이리다가는 새들에게 먹혀버리겠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걱정 마, 너희들을 먹어치우진 않을 테니까.”
왜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를 다 먹어버리면 내일부터는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 곤란한 건 서로 마찬가지로.”

“게 할아버님, 오늘만은 우리 서로 같은 편이야.”
이번에는 대장으로 보이는 젊은 왜가리가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을 몰아서 건너 편 바다까지 실어 나르도록 해 조심해서 살짝 물어야 해. 떨어뜨리면 안돼!”

새들은 물고기와 게들을 각각 입에 물거나 발로 움켜쥐고
제방 건너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짱이와 게 할아버지도 왜가리 청년에게 물려서 옮겨졌습니다.
“버둥거리지 마. 우리가 제방을 넘어서 바다로 보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왜가리 형.” 짱이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왜가리 청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만나면 널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튼튼하게 잘 자라라 한다. 그리고 네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들어 놓길 바래.” 어딘가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짱이는 기뻐했습니다.


이때 게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제방 건너편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가리가 게 할아버지를 물어 나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만 계시는 겁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위해서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인간들 편에서만 계십니까.”

“우리들은 인간들에게 잡아먹힐 뿐 아니라 사는 곳마저도 빼앗기고 이제는 살아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게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흑흑흑...”

짱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다음 번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게 할아버지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줄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바다를 꼭 만들어야!”

하느님, 짱이의 소원을 꼭 들어 주세요.

	17	활동시기	7~8월
제 목	비야 비야 오너라	월간주제	물
활동목표	삶의 많은 부분을 노래와 함께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서를 가락과 가사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활동영역	음율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위점 및 기타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노래들 충분히 익혀 두었다가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가사를 유아들과 함께 읽어 보고 노랫말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2. 우리는 비가 오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를 이야기한다. 3. 전래동요인 비노래 4개를 하나씩 또는 이어서 들어보고, 이어 전래동요와 함께 '비오는 날' 도 들어 보고 느낌을 함께 나누어 본다. ★ 전래동요와 비오는 날의 느낌이나 아이들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불러보면 좋다. 비 오는 날의 상황을 아이가 시로 쓰고 백창우님이 곡을 붙인 '비 오는 날' 은 짧으면서 반복이 많아 어린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곡에서도 아이들이 비오는 날에 대해 얘기하는 느낌이다. 4. [확장활동] 사실적이고 단순한 노랫말을 활용해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연장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백창우, 『새로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비야 비야 오지마라 1

예사 빠르기로 ♩ = 109 전래동요 · 백창우 채보



비야 비야 오지마라 새 각 시시 집은 다

가 마 속 에 물 이 새 먼 다 흥 치 마 얼룩 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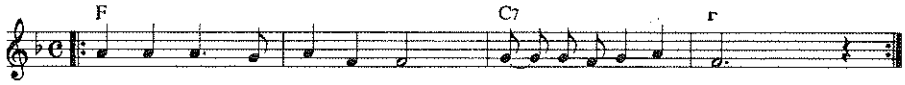
예사 빠르기로 ♩ = 109 **비야 비야 오너라** 전래동요 · 백창우 채보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설 - 장 구 처 주 마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설 - 장 구 처 주 마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장 터 거 리 불 닌 다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장 터 거 리 불 닌 다

오는비야가는비야

예사 빠르기로 ♩ = 109 전래동요 · 백창우 채보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설 - 장 구 처 주 마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설 - 장 구 처 주 마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장 터 거 리 불 닌 다
 비 야 비 야 오 너 라 장 터 거 리 불 닌 다

비야 비야 오지마라 2

예사 빠르기로 ♩ = 104 전래동요 · 백창우 채보



비 야 비 야 오 지 마 라 우 리 언 니 시 집 간 다



언 지 끈 지 고 운 얼 굴 다 젖 으 면 어 떡 하 니

비 오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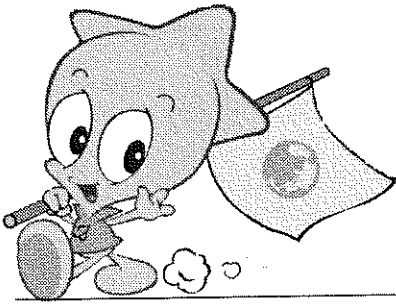
♩ = 120 강현정말 · 백창우 채보



오 늘 은 해 - 님 안 떠 요 비 오 는 날 이 에 요
 오 늘 은 지 령 이 나 와 요 비 오 는 날 이 에 요
 오 늘 은 장 - 화 신 어 요 비 오 는 날 이 에 요



오 늘 은 해 - 님 안 떠 요 비 오 는 날 이 에 요



주제전개기간 9월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언어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아주 특별한 점심
아씨방 일곱동무



음율 신체

계절과 음식도 짝이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요
옛날옛적에
밥상
감홍시



이야기 나누기

푸르미의 식탁여행
우리 농산물이 좋은 이유
계절과 음식도 짝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옛날옛적에



미술


푸르미의 식탁여행
자연에서 색을 얻어요



수 과학

푸르미의 식탁여행
우리 농산물이 좋은 이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자연에서 색을 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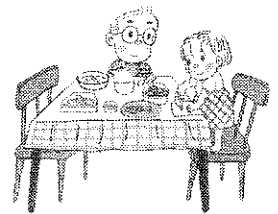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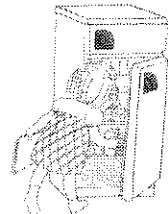


	1	활동시기	9월
제 목	푸르미의 식탁여행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유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가정이란 작은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갖는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미술,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각 20분
활동자료	우리 집 식탁 및 냉장고 속 그림자료,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인스턴트) · 제철음식과 제철음식이 아닌 음식물의 분류판		

활동방법

1. [사전활동] 우리 집 식탁 조사하기

- 오늘 저녁 우리 집 식단은?
- 그 중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은?
- 우리 가족 모두 맛있게 먹은 음식은?
- 냉장고 안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 있지?
- 우리 집 식탁과 냉장고 속을 그려본다.(식단, 식품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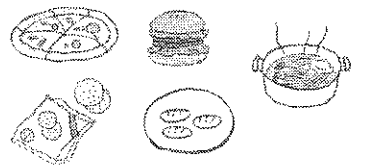


2. [본 활동1] 우리 집 식탁이야기 1

- 조사해 온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본다.
- 각 가정에서 유아들이 준비해 온 식단과 냉장고 그림을 이용해, 각자 우리 집 식탁에서 자랑할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본다.
- ★ 그림을 전시해 두었다가 한달 후 다시 한번 활용한다.
- ★ 사전활동 이후, 음식물에 대한 '제철음식, 우리 농산물, 차곡차곡 쌓여요' 등의 몇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한달 후) 진행하도록 한다.


3. [본 활동2] 우리 집 식탁이야기 2


- 한 달 전에 조사되었던 우리 집 식탁과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종류들을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인스턴트), 제철음식과 제철음식이 아닌 음식물로 나눠 본다. (★사전에 분류판을 준비하도록 한다.)
- 다시 한번 우리집 식탁에 대해 자랑해 보도록 한다.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다면 칭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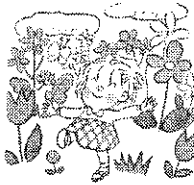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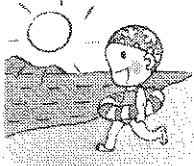




















관련추천동화

강인희, 『떡잔치』, 보림 - 1995
 [개요] 피자, 햄버거가 아닌 우리의 떡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떡의 의미와 떡이라는 음식 하나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활동시기	9월
제 목	우리 농산물이 좋은 이유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건강한 먹을거리로서의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방법	<p>1. [사전활동]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수입과일(혹은 수입과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종류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조사해 오도록 한다. ★ 부모님께 협조를 구하고, 교사가 직접 함께 할 경우에는 시장이나 대형 유통매장이 한가한 시간을 알아보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방문한다.</p> <p>2. 가정에서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한다.</p> <p>3. 수입과일의 산지를 세계지도에서 찾아본다.</p> <p>4. 산지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유통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p>5.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유통시간을 비교해 본다.</p> <p>6. 수입 과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부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p> <p>★ [교사 참고자료] 수입 식품에 대하여...</p> <p>- 농약오염으로 인한 먹을거리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각종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잘 먹는 바나나, 자몽, 오렌지는 거의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된다. 그런데 원산지에서 수확한 후 배에 실린 뒤 40일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윤기가 흐를 수 있을까? 이것은 비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에서 수확한 후 방부제를 뿌리고 왁스를 바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염된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다.</p> <p>- 이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드는 에너지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p>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아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2002		

	3	활동시기	9월
제 목	계절과 음식도 짝이 있어요!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제철음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절별로 식품을 분류할 수 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신체	예상소요시간	각 20분
활동자료	종이과일, 자석 낚싯대, 클립, 사계절 특성이 나타나 있는 그림자료		

활동방법	<p>1. [활동1] 제철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철 따라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입에서 당기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우리 땅에서 나는, 무공해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다. (교사 참고자료 참조)</p> <p>2. [활동2] 계절에 맞는 과일 낚기 - 낚시놀이</p> <p>1) 책상 위나 바닥에 딸기, 수박, 사과, 귤, 배, 포도, 견과류(밤, 대추, 잣, 호두, 땅콩 등) 등의 종이 과일을 늘어 놓는다. 이 중 마음에 드는 과일 4가지를 각자 고르도록 한다.</p> <p>2) 고른 과일들을 생산되는 계절에 따라 분류한다. 교사: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일 중, 가을에 태어나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지?</p> <p>3) 교사는 계절 그림과 과일 그림을 같은 곳에 놓아두면서 각 계절과 그 계절에 생산 되는 과일이 맞는지 확인한다.</p> <p>4) 종이 과일에 클립을 끼워 다시 바닥에 흩어 놓는다. 그리고 자석 낚싯대를 가지고 교사의 신호에 따라 과일을 낚는다. 맞는 학생은 과일을 가지고, 틀린 학생은 다시 내려 놓는다. 교사: 자, 우리 과일을 낚아 보자. 가을 과일을 낚아주세요~</p> <p>★ 팀을 나누어 낚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고 제철 음식을 많이 담은 팀이 이기게 된다.</p>	   	               
-------------	--	--	---

참고자료	『지구를 위한 식사 십계명』(http://greendiet.org)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시공사-2000
------	--

★ 교사용 참고자료

자연은 우리에게 철 따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봄이면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비타민의 공급원인 향긋한 봄나물을 선사하고,

여름에는 흘린 땀을 보충하라고 온갖 푸성귀와 물기 많은 과일들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옹골차게 여문 과실과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수확되는 농산물마다 살아 있는 영양가와 생명력이 터질 듯 담겨 있습니다.

과거 우리네 어머니들은 제철에 나온 자연 식품들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

우리의 건강을 챙겨 주셨습니다. 철 따라 모습을 달리하던 식탁 위에는 자연의 순리가 배어 있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입에서 당기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우리 땅에서 나는, 무공해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제철음식이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각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의 종류가 달라지며 일년 내내 생산되는 식품이라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철에 따라 달라지는 식품의 맛으로 인하여 어느 한 철이 가장 맛이 있고, 영양가도 많으며, 대개는 년중 가장 많이 출하되므로 가격 또한 저렴한 식품을 제철음식(또는 계절식품)이라 합니다.

2. 제철음식의 중요성

제철음식의 중요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해, 그리고 보다 큰 시각에서는 건강한 우리의 환경을 위해 제철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환경을 위해

- 계절에 상관없이 푸른 채소와 과일, 생선과 고기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토마토의 경우 274배, 오이는 55배, 피망은 110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지구를 위한 식사 십계명 중)
- 또한 제철과 다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토양오염, 수질오염으로 이어집니다.

2) 건강을 위해

- 비닐하우스 같은 인위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보다 바람과 비에 의해 농약이 씻겨나갈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농약의 잔류량이 많게 됩니다.
- ‘억지여건’에 의한 재배는 영양분의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제철을 극복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우 노지 재배 때 보다 무기물과 비타민 같은 영양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 심지어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성장을 늦추고, 색을 보전하고, 신선도를 연장하는 화학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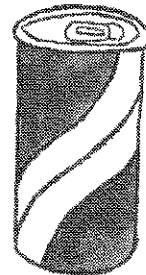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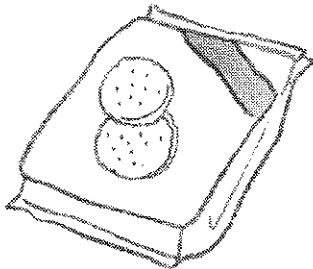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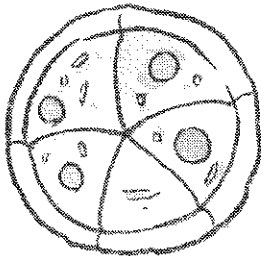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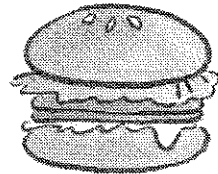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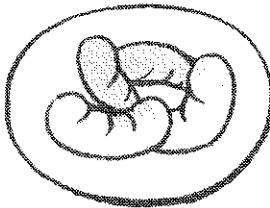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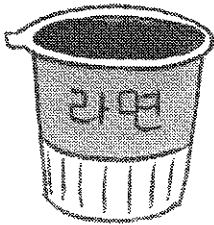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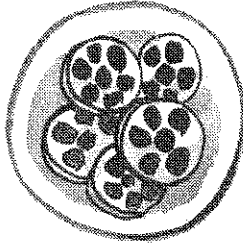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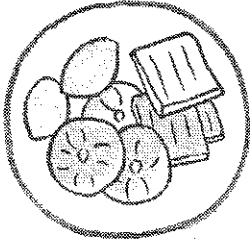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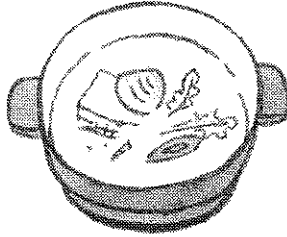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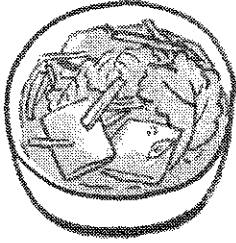
3. 제철음식 종류


		채소류	과실/과채류	생선/어패류
겨울	1월			굴, 게, 도미
	1~2월	당근	밀감	가자미, 대구, 정어리, 다랑어
	2~3월			꼬막
봄	3월	미나리, 냉이, 달래, 쑥		바지락
	3~4월	부추	사과	바지락, 조개, 파래, 미역
	4월	시금치, 죽순, 쪽파, 두릅		조기, 대합
	4~5월	머위		전갱이, 고등어
	5월	도라지, 쑥갓, 더덕	딸기	황석어, 양미리, 꽃게
	5~6월	양배추, 우엉, 아욱, 껌질콩, 아스파라거스		홍어
여름	6월	통마늘		생멸치
	6~7월	콩나물, 감자		민어
	7월	오이, 토마토, 풋고추	자두	뱀장어, 성게
	7~8월	부추, 깻잎	수박, 참외	전복, 문어
	8월	가지, 호박, 옥수수		꼬막
	8~9월		포도	
가을	9월	고구마, 김장고추	석류	해파리, 대합, 꽃게, 고등어, 꽂치, 연어
	9~10월	싸리버섯, 토란	배, 밤	고등어, 꽂치, 연어
	10월	송이버섯, 양배추	사과	미꾸라지, 참치
	10~11월	당근, 마늘, 연근	감	갈치, 큰새우, 해파리
겨울	11월	무, 샐러리, 김장파	밀감	삼치, 도미, 정어리, 오징어
	11월~12월	시금치, 배추, 버섯	레몬	굴, 가자미, 다랑어, 대구
	12월	당근		게, 홍어, 꼬막, 파래

자료출처: 지구를 위한 식사 홈페이지 <http://greendiet.org>

	4	활동시기	9월
제 목	차곡차곡 쌓여요!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생물농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먹이카드 그림(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의 다양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 카드)		
활동방법	<p>※ 생물의 체내에 쌓여 있던 살충제나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소비자로 갈수록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이 카드를 유아의 수만큼 준비한다. 2. 준비할 전체수의 카드 중 3분의 1정도를 오염된 먹이 카드로 정한다. 3. 유아들에게 먹이 카드를 한 개씩 나누어 준다. 4. 유아들에게 게임의 규칙을 알려 준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먹이 카드가 1장일 때는 식물입니다. 이 때는 돌아다닐 수 없으며 땅에 앉아서 옆 사람과 가위 바위 보를 해야 합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먹이 카드를 주고 게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② 이겨서 카드가 2장이 된 사람은 이제 1차 소비자(풀을 먹는 초식동물)의 단계입니다.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만나 다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먹이 카드를 늘려 갑니다. ③ 카드가 4장이 되면 2차 소비자 단계입니다. 이제 앉은 걸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카드를 계속 늘려 갑니다. ④ 카드가 8장 이상이 되면 3차 소비자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계속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카드를 모을 수 있지만 서 있는 사람끼리는 겨룰 수 없습니다. ⑤ 서 있는 사람만 남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5.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의 카드를 확인해 본다. 카드 중 3장 이상의 오염된 먹이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오염된 성분의 농축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한다. 안전한 먹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관련 추천동화	<p>심스태백, 『옛날 옛날 파리 한 마리를 꿀꺽 삼킨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베틀북 - 2000 [개외] 할머니가 파리를 먹고 또 파리를 잡아먹는 다른 걸 먹고 또 고양이를 먹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는 내용이다. 아무거나 삼키면 위험하다는 것과 함께 소중한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p>		

※ 먹이그림카드



	5	활동시기	9월
제목	우리가 먹는 음식은?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나누기,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활동자료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의 포장용기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에게 가정에서 즐겨먹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음료, 햄, 라면, 과자, 병과류, 여러 가지 유제품 등)의 포장용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2. 유아들과 포장용기에 써있는 원료나 첨가물의 내용을 함께 읽어본다. 3. 우리 몸에 해로운 첨가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 방부제나 몸에 해로운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유아들이 가져온 포장용기를 보면서 이야기해 준다. 5. 우리 몸에 해로운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나누어 본다. <p>★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몸에 해로운 첨가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식품들이 있으므로 음식물을 살 때는 포장용기에 써있는 원료나 식품첨가물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p> <p>☆ 첨부자료1. 조사사례 (첨부내용 참조) ☆ 첨부자료2. <교사 참고자료> 식품첨가물, 얼마나 해로울까? (첨부내용 참조)</p> <div data-bbox="679 1217 1152 1603" data-label="Image"> </div>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아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2002 한살림 홈페이지(http://hansalim.or.kr)		

★ 첨부자료1.

[조사사례1]

- 과 자 · 주원료 : 소맥분(수입산), 팜올레인유(말레이시아산), 옥수수 전분, 감자, 양파, 식품첨가물: 합성 착색료, 식용색소(황색 제 4호)
- 식사대용 식품 · 원재료 : 옥수수 가루(호주산), 밀가루(미국산), 설탕, 쌀가루, 보리가루, 귀리가루
- 발효유 · 원 료 : 탈지유(국산), 액상과당, 이소말토올리고당, 포도당, 구연산, 아스파탐 합성감미료 페닐 알라닌 함유,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축산물: 농림부) 마크 부착
- 빙과류 · 원 료 : 액상과당, 복합과일향, 구연산, 비타민C, 아스파탐
- 햄 · 원재료 : 돼지고기(국산), 설탕, 포도당, 정제염, 가라기난,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본 제품은 방 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개봉 후 가능한 빨리 드십시오. HACCP(위해 요소 중 점 관리 우수축산물: 농림부) 마크 부착
- 어 묵 · 원재료 : 냉동연육(수입산), 야채, 소맥전분, 식염, 소르빈산칼륨(합성보존료)


[조사사례2]


- 햄 · 햄이나 소시지 가운데 목우촌이나 백설, 동원 제품에는 합성보존료는 들어 있지 않았으나, 발색 제인 아질산나트륨은 첨가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햄이나 ○○햄에는 아질산나트륨(발색 제), 솔빈산칼륨(합성보존료), 이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이 줄줄이 들어 있었다.


★ 첨부자료2. <교사 참고자료> 식품첨가물, 얼마나 해로울까?


- 식품첨가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50~80%는 호흡기나 배설기관을 통해 배출되지만 나머지는 몸 속에 축적된다. 또 이러한 첨가물은 한 가지 식품에 한 가지만 들어 있는 게 아니며, 기준치가 있다 해도 먹는 대로 조금씩 체내 에 쌓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한다.
- 대표적인 식품첨가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조미료, 방부제, 감미료, 착색제, 발색제를 비롯해 산화방지 제, 탈색제, 팽창제, 살균제 등이 있다.
- 이들의 부작용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 보존제(치즈, 초콜릿, 음료수, 마가린, 단무지, 햄 등에 사용) -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발암성
 - 감미료(청량음료, 과자, 빙과류 등에 사용) - 소화기 및 콩팥장애, 발암성
 - 화학 조미료(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라멜, 카레, 다시다, 맛소금 등에 사용) - 중국음식증후군, 뇌혈 액종분관 장애, 성장호르몬, 생식기능, 갑상선 장애, 제왕병 유발
 - 착색제(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소시지, 통조림 고기 등에 사용) - 간, 혈액, 콩팥장애, 뇌장애, 발 암성

자료참조: 한살림(<http://www.hansalim.or.kr>)

	6	활동시기	9월
제 목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전통음식,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한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2시간
활동자료	밀가루, 당근, 시금치, 치자, 물, 큰 그릇, 약간의 식용유, 젖은 행주나 비닐 봉투, 체, 만두 속(고기, 두부, 숙주, 약간 씻은 김치 등을 각각 잘게 자르거나 갈고 물기를 뺀다), 밀대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를 함께 읽어본다. 2. 집에서 만두를 먹어 보았거나 만들어 본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눈다. 3. 전통 음식들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4. [본 활동] 만두 만들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비물은 교사가 먼저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원재료를 보여준다. 가능하다면 씻기, 갈거나 색깔을 내는 것 등의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2) 우리밀 밀가루는 필요한 분량만큼 체에 치고 넓은 그릇 3개에 나누어 담아 놓는다. 치자는 물에 불려 으깨고 걸러서 노란 물을 받아 놓는다. 당근, 시금치는 유기농 제품으로 준비해 깨끗이 씻고 갈아서 체에 받혀서 즙만 준비한다. 준비하면서 우리밀 밀가루와 유기농 야채에 대해 이야기한다. 3) 각각의 그릇에 나누어놓은 세 개의 밀가루에 준비한 치자, 당근, 시금치 즙을 넣는다. 달걀과 식물성 기름도 약간 넣고 충분히 반죽한다. 이 때 천연 색소와 인공 색소에 대해 들려주고 비닐에 넣어 놓거나 젖은 행주를 덮어서 약 20-30분 정도 둔다(따뜻한 곳이면 더 좋다). 4) 기다리는 동안에 만두 만들 준비를 함께 한다. 준비한 만두 속을 보면서 만두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함께 이야기한다. 5) 쟁반에 밀가루를 조금 뿌리고(바닥에 붙지 않도록), 색깔이 들어간 밀가루를 조금씩 떼어서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들어 둔다. 아이들과 만두피에 만두 속을 조금씩 넣고 만두를 만든다. 전통적인 모양의 만두가 아니어도 좋다. 6) 만두가 만들어지면 만두를 찌거나 물을 충분히 넣고 팔팔 끓인 후 만두를 넣고 떠오르면 건져서 먹어도 담백하고 맛있다. 7) 만두의 색깔과 맛에 대해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추천동화	<p>채인선, 『손 큰 할머니의 만두이야기』, 재미마주 - 2001</p> <p>모리스샌닥, 『깊은 밤 부엌에서』, 시공주니어 - 1994</p> <p>[개요] 한 아이가 꿈속에서 빵을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p>		

	7	활동시기	9월
제 목	자연에서 색을 얻어요!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자연 재료를 이용해 옷감에 물들이는 우리나라 전통생활도 체험하고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에 대해 알 수 있다.		
활동영역	미술,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치자, 체, 물, 그릇, 물들이기 조사표, 집게, 염색할 재료(다양한 천 조각, 종이, 비닐, 나무, 플라스틱 조각 등)		
유의점및기타	염색을 하면서 손이나 천에 묻든 색은 햇빛에서 말리게 되면 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염색한 천을 말릴 때에는 꼭 그늘에 말려 준다.		
활동방법	<p>[사전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이나 그림 자료를 보면서 자연적인 재료(치차 열매, 양파 껍질, 굴껍질 등)로 물들이는 전통적인 염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p>[본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으로부터 얻는 색에 대해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박이나 포도 등 과일을 먹다가 흘린 경험들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자연의 모든 것은 색을 가지고 있다. 본 활동은 그 중에서 치자라는 꽃의 열매에서 색을 얻어 보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흰 치자 꽃 사진을 보여주고 - 인터넷 자료 활용 - 치자 열매가 꽃의 열매임을 알려 준다.) 먼저 치자 열매를 물에 담가 치자 물이 우러나오는 과정을 관찰한다. 색이 충분히 내기 위해서 치자 열매를 쪼개어(가위 사용), 그 열매를 손으로 비벼주어 색을 우려낸다. 손에 직접 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재미있어 한다. 체로 치자 열매를 걸러 준다. 자신의 흰색 옷이나 양말, 손수건 등을 수직으로 천천히 넣으면서 색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의 종류에 따라 색이 다르다. 면을 사용해야 더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다. 빨래를 하듯 천을 꼼꼼히 주물러 준다. 맑은 물에서 열매들을 털어 낼 수 있도록 한번 살짝 헹구어 준다. <p>[확장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후, 남은 치자 물로 밀가루 점토를 만들어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염색하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관련추천동화	<p>유애로, 『쪽빛을 찾아서』, 솔거나라 - 1996</p> <p>[개요] 우리 민족이 만들어 낸 전통 색채에 대한 이야기. 푸른 하늘과 바다 빛깔을 담은 쪽빛을 얻기 위해 '물쟁이 아저씨'가 애쓰는 과정을 그린 동화이다.</p>		

	8	활동시기	9월
제 목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초청)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예의규범에 대해 알고, 전통놀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신체	예상소요시간	1일~2일
활동자료	전통놀이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		
유의점및기타	<p>사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 유아들의 특성이나 활동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p> <p>노인정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방문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아들의 수, 놀이방법, 방문시간 등)</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원으로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사회의 행정기관(동사무소), 노인대학, 노인정, 사회단체 등에 홍보자료 배포 원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이나 부모 강연회를 통해 모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유아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소개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등장하는 동화를 들려준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놀이 즐기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여우야 여우야 등 전통 음식 만들기: 간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수정과 만들기, 화전 만들기, 송편빚기, 동지 팔죽 끓이기, 김장하기 등 옛날 이야기 듣기 노래 배우기 전통 악기 배우기: 소고, 장구, 북 등 손끝 놀이 함께 하기: 바느질, 뜨개질, 수놓기, 새끼꼬기, 실뜨기 등 산책 및 텃밭 가꾸기 세시풍속 배우기: 설, 단오, 동지, 칠월칠석 등 		

	9	활동시기	9월
제 목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어린 시절부터 설날이면 어김없이 밥상을 지키던 만두.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끼는 민속음식으로 남아있는 만두를 소재로 한 담백하고 토속적인 동화이다.		
자료출처	알라딘(http://www.aladdin.co.kr)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지은이 | 채인선
그림 | 이억배
재미마주 출판
2001년 1월


어린 시절부터 설날이면 어김없이 밥상을 지키던 만두.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끼는 민속음식으로 남아있는 만두를 소재로 한 담백하고 토속적인 동화. 피자와 햄버거 등 서구 먹거리에 길들여져 우리의 전통 음식조차 제대로 맛볼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의 토속적인 음식을 소개하고 민족의 협동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주제와 현대적 감각의 그림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전래동화처럼 전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여 어린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읽어내려 갈 수 있는 책이다.

[소개 글] 무엇이든 많이, 크게 하는 손큰 할머니의 설날 이야기. 설날을 앞둔 손큰 할머니는 숲속 친구들까지 배불리 먹일 만두를 준비한다. 하지만 재료가 어찌나 많은지 나흘이 지나도 다 만들지 못해 할머니는 남은 만두소를 다 넣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두를 빚는다.

[저자소개] 채인선 님, 틈틈이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는 등 어린이 책을 가까이 하다 직접 동화를 쓰게 된 어머니 동화작가이다.

[추천 글] 무엇이든 많이, 크게 하는 손큰 할머니가 설날에 숲속 동물들과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인자한 할머니와 숲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어 별이는 만두 만들기 소동이 활기차고 재미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10	활동시기	9월
제 목	아주 특별한 점심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피자와 햄버거 등 서구 먹을거리에 길들여져 우리의 전통 음식조차 제대로 맛볼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의 토속적인 음식을 소개하고 민족의 협동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스24(http://www.yes24.co.kr)		

아주 특별한 점심

로버트 벤더 | 지

손자영 | 역

국민서관, 원제 : A MOST UNUSUAL LUNCH

2002년 4월

[책소개]

조그만 딱정벌레를 꿀꺽 삼킨 개구리의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머리에 더듬이가 그리고 몸에 6개의 다리가 나왔어요. 그런 개구리가 연못을 본 순간 물고기가 한 입에 개구리를 삼켜버렸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머리에도 역시 더듬이가 났고, 개구리 다리가 생겼어요. 다음에는 뱀이 물고기를 악어가 뱀을 또 사자가 악어를 삼켰지요. 동물의 왕인 사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지요? 하지만, 사자가 크게 트림을 한 순간 악어가 튀어 나오고, 계속해서 동물들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나왔지요. 동물들은 파티를 열고, 풀잎만 먹었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또 딱정벌레를 보며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먹이사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벌레부터 큰 동물까지 숲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저자 및 역자소개] 저자 : 로버트 벤더

미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이다. 그는 첫 작품 『꼬마 마녀의 마술』로 어린이 책 출판계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았을 뿐 아니라, 작품의 문학적성과 독창성도 높이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얻고 있다.

[책속으로]

사자가 단잠에서 깨어났을 땐, 사자의 몸에는 더듬이 두 개와 작고 가는 다리 여섯 개와 기다랗고 푸른 두 다리와 팔딱거리는 물고기 꼬리와 끝이 갈라진 긴 혀가 생겨 있었고, 거기다가 이상한 비늘까지 사자의 온 몸을 덮고 있었지. 글썽, 사자는 이런 변화가 반갑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정글의 왕이었으니까. (본문 중에서)

	11	활동시기	9월
제 목	아씨방 일곱동무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규중칠우쟁론기'라는 고전 문학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다시 쓴 '아씨방 일곱 동무'는 자, 바늘, 실, 골무, 인두 등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들이 자신의 역할이 최고라고 우기며 싸운다. 하지만 결국 모두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료출처	알라딘(http://www.aladdin.co.kr), 예스24(http://www.yes24.co.kr)		

아씨방 일곱동무

이영경 글 · 그림
비룡소
1998년 4월


[책소개] '규중칠우쟁론기'라는 고전 문학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다시 쓴 '아씨방 일곱 동무'는 자, 바늘, 실, 골무, 인두 등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들이 자신의 역할이 최고라고 우기며 싸운다. 하지만 결국 모두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YES24 리뷰] '아씨방 일곱 동무'는 고전 문학 가운데 '규중칠우쟁론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바느질하는 빨강 두건 아가씨를 돕는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 이렇게 일곱 동무는 어느 날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다 다투게 되고 결국 빨강 두건 아가씨에게 편잔을 듣는다. 하지만 아가씨와 일곱동무 모두는 누구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동무라는 것을 알고 화해한다. 민화풍의 익살스런 그림이 아주 재미있다. <어린이도서정보팀>

[책속으로] 에헤라 좋다 일씨구나 좋아라 / 일곱 동무 다 모였네
자 부인 눈치코치 재어 낸 옷감일랑 / 가위 색시 짝뚝뚝 모양 좋게 배어 내니
바늘 각시 날랜 솜씨 직녀 언니도 샘넬라 / 홍실 각시 아름다이 한 술 두 술 꿰어지면
인두 낭자 뽀족발은 걸음걸음 맵시 만들고 / 다리미 소저 한 미끄럼에 구김살이 간곳 없네
그 중에 내 손부리 지켜 아픈 일 막아 주는 / 골무 할미 고맙구나 벗님네들 귀할씨고
에헤라 좋다 일씨구나 좋아라 / 일곱 동무 다 모였네 (p.31)

이 때, 나이가 좀 어린 탓에 참고 듣고만 있던 인두 낭자, 불쑥 나서며 말합니다.
'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 들쭉날쭉 울퉁불퉁 바느질한 걸 구석구석 살피고 뽀족뽀족 다듬어서 제 모양 잡아 주는 게 누구데요? 나만한 일꾼 없으니 그만들 해두어요.' (p.15)

[추천평] 고전 수필 <규중칠우쟁론기>를 어린이 그림책으로 재구성하였다. 바느질을 좋아하는 빨간 두건 아씨와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서로 자기 역할이 최고라고 다툰다. 결국에는 모두가 서로 도와야만 바느질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이야기다. 우리 고전을 되살려 그림책으로 만든 기획과 정감있는 그림이 돋보인다. <어린이도서연구회>

	12	활동시기	9월
제 목	밥상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일상적으로 매일 대하는 밥상을 떠올리며 활동을 하고 우리 것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안다.		
활동영역	음율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빠르고 재미난 곡입니다.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가사를 유아들과 함께 읽어보고 노랫말의 느낌과 각자 자기 집의 밥상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2. 매일 먹는 밥상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를 이야기한다. 3. 먼저 노래를 듣거나 교사가 한번 불러주도록 한다. 단락을 나누어 반복해서 듣고 불러보면서 익숙해 질 때까지 불러본다. 4. 익숙해지면 가사를 바꿔 다른 반찬과 밥으로 불러본다. 5. [확장활동] 음율활동이 끝난 이 후에 <보리밥 쌀밥> 놀이를 한다. 우리집 밥상이나 식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동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2002		

밥상

♩=124

백창우 시·곡

C G G C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 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 부터

C G7 C Am Dm G C

밥 상 에 오 르 내 리 며 나 를 키 워 준 것 들 아주

C G G C

어 려 면 잘 몰 랐 지 만 이 세 는 알 것 같 아

C G7 C Am Dm G C



어 머 니 의 손 맛 이 배 - 인 그 - 소 중 한 밥 상 을

C G G C G C

쌀 - 밥 - 보 리 밥 - 조 - 밥 - 콩 밥 - 팔 - 밥 오 곡 밥 -
배 추 김 치 총 각 김 치 열 무 김 치 갖 김 치 동 치 미 짝 두 기 -

Am7 F G C G C G

된 장 국 - 배 추 국 - 호 박 국 - 무 국 - 시 금 치 국 시 래 기 국 -
가 지 나 물 호 박 나 물 룡 나 물 - 고 추 잎 무 말랭 이 짱 - 아 찌 -

	13	활동시기	9월
제 목	감홍시	월간주제	음식, 전통문화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가을의 느낌을 느끼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활동영역	음율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p>빠르고 재미난 곡이다. 박자가 약간 까다로운 편이지만 익숙해지면 재미난 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p> <p>곡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가사를 유아들과 함께 읽어보고 노랫말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아이들이 만든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이기에 먼저 시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 읽어보는 활동을 한다. 2. 감홍시가 걸려 있는 감나무의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해 유아들의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3.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고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p style="text-align: center;">감홍시 경북 울진 온정초등 4학년 황도곤</p> <p>감홍시는 빠알간 얼굴로 날 놀긴다 돌을 쥐고 탁 던지니까 던져보시롱 던져보시롱 해해 안맛있지롱 이런다. 요놈의 감홍시 두고 보자. 계속 계속 돌팔매질을 해도 끝까지 안 떨어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시를 읽거나 노래를 들을 때의 느낌을 유아들과 이야기 나눈다. 5. 단락을 나누어 반복해서 듣고 불러보면서 익숙해 질 때까지 불러본다. 6. [확장활동1] 감홍시가 걸려 있는 상황이나 노래의 느낌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7. [확장활동2] 어떤 것이든 시와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시를 짓는 활동을 해 본다. 		
참고자료	백창우, 어린이 노래마을 『딱지따먹기』, 보림-2002		

감홍시

♩=116 $\frac{12}{8}$

황도곤 시 · 백창우 곡

E F#m A F#m A B E

감 홍 시 는 빠 알 간 열 굴 로 날 놀 긴 다

C#m E/B C#m E/B F#m B7

들 을 쥐 고 탁 던 지 니 까 던 저 보 시 룡 던 저 보 시 룡

A E B A B7 E

해 해 해 안 맞 았 지 룡 안 맞 았 지 룡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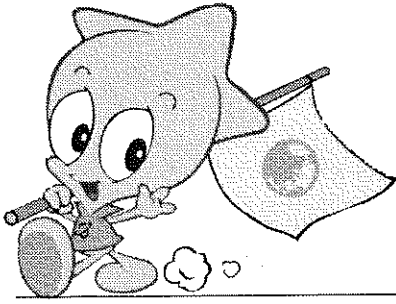
G#m A E G#m A F#7 B7

요 념 의 감 홍 시 두 고 보 자 자 꾸 자 꾸 돌 팔 매 질 을 - 해 도

F#m A E A B E

끝 까 지 안 떨 어 진 다





주제전개기간 10월

월간주제 공기, 가을

언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
토끼의 꿈



음악 신체

소중한 공기
자연속의 빙고
별노래
에코가족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소중한 공기
깨끗한 공기, 더러운 공기
자동차 매연실험
산성비가 내리면?



미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자연물을 이용한 작품전시회




수 과학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깨끗한 공기, 더러운 공기
자동차 매연실험
산성비가 내리면?
지구가 더워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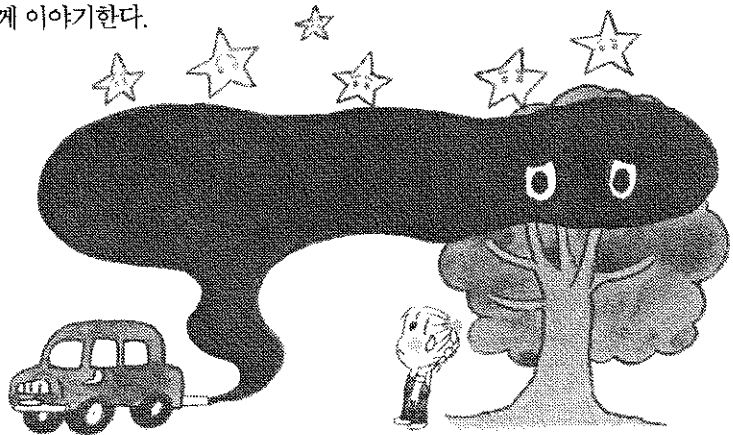



	1	활동시기	10월
제 목	소중한 공기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우리 몸에서의 공기의 순환을 이해하고 공기의 중요성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이불		
유의점 및 기타	<p>이불 속 숨쉬기를 할 때는 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환기가 잘 안 되는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고, 환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p> <p>자동차 매연 실험으로 연결하여 진행하면 좋다.</p>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쉰다. 숨쉬는 것을 찾아보고 직접 숨을 쉬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멈춰 보기 - 들숨만 쉬어보기, 날숨만 쉬어보기 우리 몸에서 공기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더러워진 공기는 내뿜는다. 이 때 내뿜은 공기는 다시 깨끗한 공기가 된다. - 이불 속에서 여럿이 숨쉬기를 해 본다. - 신나게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어 보자. 숨이 기쁜 건 왜일까? 숨을 쉬어도 좋은 공기만 내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식물 등 - 공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자동차·공장·헤어스프레이 등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균형있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 뿜어낸 더러운 공기를 나무들이 깨끗하게 해 준다. 만약 나무보다 자동차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한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나무가 더러운 공기를 만드는 자동차보다 더 많아야 한다. 창문을 열고 깨끗한 공기를 숨을 들이쉬어 마셔보게 한다. 유아들이 어른이 되면 공기가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참고자료	한국보육정보연구소저, 『생활중심 환경교육』, 다음세대 - 1998		


	2	활동시기	10월
제 목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공기오염으로 맑은 하늘과 별을 볼 수 없음을 알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활동영역	언어, 수 과학,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야광별, 검정색 도화지		
유의점 및 기타	캠프 활동 때 활용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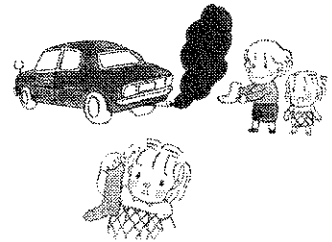
활동방법


1. 유아들과 밤하늘을 관찰해 본다.
 ※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활동으로 가정에서 관찰하고 올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대신한다.
 ※ 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 갈 기회가 된다면 북두칠성도 찾아보고 내 생일 별자리도 함께 찾아본다.
2. 도심에서는 별을 보기가 힘든데, 왜 그럴까? 유아들에게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무엇보다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어릴적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가족들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던 기억들을 유아들과 나누어 본다. 별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면 좋다.
3. 검정색 도화지에 야광별로 제각기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게 한다.
 -강아지 모양으로 별자리를 만들어 보는 친구, 집이나 꽃, 과일 등 다양한 모양의 별자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다.
4. 나만의 별자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5. 도심에서도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



	3	활동시기	10월
제목	깨끗한 공기, 더러운 공기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장소에 따라 공기의 오염 정도가 다르며, 오염된 공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흰 종이 2장, 식용유, 붓, 확대경		
유의점 및 기타	종이를 놓을 때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놓는다. 종이에 바세린을 바르거나 물에 적신 솜을 접시에 놓고 사용해도 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중에는 더러운 공기, 깨끗한 공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가 숨을 쉴 때 무엇을 마실까? -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가 숨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소에 따라 공기의 깨끗한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의 순서대로 실험해 본다. 흰 종이 2장에 붓으로 식용유를 바른다. 공기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곳(공원이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먼지가 많지 않은 실내)과 공기가 더럽다고 생각되는 장소(도로 근처 건물의 옥상과 같은 곳)를 골라 식용유를 바른 종이를 놓아 둔다. 2일 후에 식용유를 바른 흰 종이 2장을 비교해 본다. 확대경을 가지고 흰 종이 2장을 관찰한다. <p>★ 실험이 끝난 후에는 과학영역에 비치해 두고 아이들이 궁금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한다.</p>		
참고자료	김영명 외, 「유아환경교육 활동 프로그램」, 동문사-2002		

	4	활동시기	10월
제 목	자동차 매연 실험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자동차의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흰 면양말, 비닐봉지		
유의점 및 기타	주제 접근 '공기의 순환' 을 진행한 이후에 진행한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품이므로 '자동차를 타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남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 준다. 3번의 실험의 경우 유아들과 함께 하되, 몇 명의 어른이 더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기구에 흰 천을 대는 활동의 경우 유아들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를 자세히 관찰한 후 함께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 - 자동차 연기는 어디로 갈까? - 자동차 시동을 걸때와 자동차가 지나갈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자. - 자동차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인가? - 자동차가 사람에게 주는 해로운 점은 무엇인가? - 자동차는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나? 자동차가 숨을 쉬면 나쁜 공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자동차 매연 실험을 직접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 양말이나 흰 수건 등을 자동차의 배기구에 대고 시동을 걸어 검은 물질이 나오는 것을 관찰한다. - 비닐봉지를 배기구에 대고 시동을 걸어 매연을 채워 아이들과 냄새를 맡아본다. - 자동차를 많이 타면 공기가 나빠진다는 실험 내용을 정리해 준다. 더러워진 공기가 사람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주는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린다. - 산성비와 산성눈이 내린다. - 동·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자동차가 주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 어른들께는 꼭 필요한 때만 자동차를 타고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말씀드린다. 		
참고자료	윤기영 · 조경희, 『유치원의 환경교육』, 교문사 - 1993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생활중심 환경교육』, 다음세대 - 1998 장미정,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물·대기 분야의 표준화 모형으로서의 모듈 개발 및 평가』, 이화여대(석사논문), 1999		





	5	활동시기	10월
제 목	에코가족 만들기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족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코가족이 될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실천일지를 포함한 가정통신문		
유의점 및 기타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에코가족 실천일기를 쓰도록 하는 것도 좋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회의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실천일지의 실천 전의 행동점수를 스스로 채워두며, 가족과의 상의여부를 표시해 둔다. 2. 각자 정해진 기간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실천일지란을 채운다. 3. 실천 전과 후의 행동 점수를 가지고 가족원이 함께 느낀 점이나 개선점들을 제안한다. <p>★ <실천일지 아래 첨부></p>		
참고자료	윤기영·조경희, 『유치원의 환경교육』, 교문사 - 1993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생활중심 환경교육』, 다음세대 - 1998 장미정,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물·대기 분야의 표준화 모형으로서의 모듈 개발 및 평가』, 이화여대(석사논문) - 1999		

★ <실천일지 예>

실천내용	가족과상의	실천 전 행동점수	실천 후 행동점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당신 차는 건강합니까? (자동차의 안전점검)			
여럿이 함께 타기			
1분 이상 공회전 안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숲 산책			
1개월 휘발유 주유량(비용)	(원)	리터 (원)	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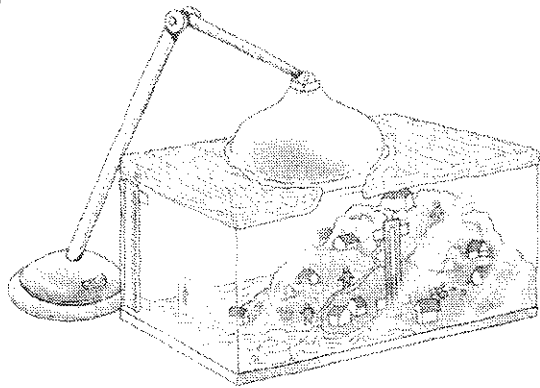
※ 가족과 상의 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O'로 표시

	6	활동시기	10월
제 목	산성비가 내리면?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에 대해 알고, 대안을 찾아본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식초, 물, 나뭇잎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2. 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내리게 되는지 이야기한다. 3. 빗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 있으면 산성비라 하는데, 산성비는 무엇 때문에 내리게 되는지, 그 산성비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먼지 등 4. 다음의 방법으로 산성비 실험을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초를 물에 섞는다. ② 식초를 섞은 물과 수돗물에 나뭇잎을 각각 담근다. ③ 나뭇잎의 색이 변하는 것을 비교 관찰한다. 5.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가 말라 죽는다. - 강이 더러워져 물고기가 죽는다. - 식물에 피해를 준다. - 많이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 강한 산성비는 동상도 무너뜨린다. 6.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레이나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는다. -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 - 비오는 날에는 우의나 우산을 꼭 쓰고 다닌다. <p>★ '토끼의 꿈' 동화를 들려주세요. <활동12. 토끼의 꿈> 참조</p>		
참고자료	윤기영 · 조경희, 『유치원의 환경교육』, 교문사 - 1993		

	7	활동시기	10월
제 목	지구가 더워지면?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지구를 더워짐으로써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어항 2개, 셀로판지, 돌맹이, 장난감 집이나 나무, 플라스틱 컵, 얼음, 전등, 온도계, 자		

활동방법

- 북극이나 남극의 추운 지방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하고,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는 빙산이라고도 한다. 빙산은 4/5가 물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빙산이 녹아도 해수면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바다의 수면이 올라간다.
- 어항에서 빙하가 녹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본다.
 - 두 개의 어항에 돌맹이로 땅을 만든다.
 - 장난감 집이나 나무 등을 땅 위에 올려 놓는다.
 - 똑같은 백열전구 전등을 어항 위에 잘 올려놓되, 한 개의 어항에는 셀로판지로 뚜껑을 덮고 한 개의 어항에는 덮지 않는다.
 - 두 개의 어항에서 온도와 수면의 높이를 재고 난 뒤, 어항에 플라스틱 컵에 얼린 얼음을 여러 개 넣는다.
 - 물위에 띄운 것은 빙산, 땅위에 올려놓은 것은 빙하이다.
 - 전등의 불을 켜고 시간을 재면서 온도와 물의 높이를 기록한다.
-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그로 인한 현상과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첨부한 이야기나누기 자료 참조)



참고자료

이계숙 외, 『바다로 떠나는 교실』, 해양수산부 - 2002
 건영유치원, 『환경보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양서원 - 1994

★ <참고자료> 이야기나누기

교사 : 이것은 무엇일까?

유아 : 비닐하우스요.

교사 : 여름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유아 : 더워요. 땀이 날 것 같아요.

교사 : 그런데 지구도 이 비닐하우스의 사람처럼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있네. 그림을 보니 지구가 어떠니?

유아 : 땀을 흘리고 있어요. 더워하는 것 같아요.

교사 : 그래, 지구가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구나.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할까?

유아 : 모르겠어요.

교사 : 지구를 덥게 만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공기를 더럽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니?

유아 : 자동차의 매연이요. 쓰레기를 태우면 나쁜 연기가 나요.

교사 : 이런 나쁜 공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유아 : 공기가 나빠져요. 숨도 못 쉬게 해요.

교사 :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해주면 이런 나쁜 연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서로 뭉쳐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서 지구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버리게 한데. 그럼, 계속해서 지구가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

유아 : 너무 더우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동물이나 꽃, 나무도 못 살아요.

지구가 폭발해요.

교사 :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희들 펭귄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니?

유아 : 북극이요. 남극이요.

교사 : 북극이나 남극은 어떤 곳이니? 무엇이 많니?

유아 : 아주 추운 곳이에요. 얼음이 많아요.

교사 : 그런데 지구가 계속 더워지면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될까?

유아 : 다 녹아요. 지구가 물에 잠겨요.

교사 : 그렇겠구나.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니?

유아 : 땅갈아요. 땅이 갈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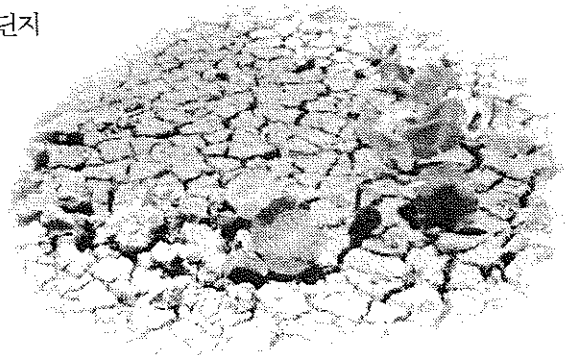
교사 :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아 : 땅의 물이 없어요. 지구가 더워서서 땅도 더워해요.


교사 : 그래,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땅 속에 있는 물도 모두 말라서 땅이 갈라진데. 그래서 점점 땅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처럼 된단다. 지구가 더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아 : 물건을 함부로 태우지 않아요. 나무를 많이 심어요. 자동차를 자주 타지 않아요.

교사 : 그래, 우리 친구들이 지구가 더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게 되었으니 꼭 지키도록 하자.



건영유치원, 환경보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양서원 - 1994

	8	활동시기	10월
제 목	자연물을 이용한 작품전시회	일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가을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공동작품을 만들어 본다.		
활동영역	미술	예상소요시간	1시간
활동자료	낙엽 등의 자연물 재료, 실, 목공본드, 롤러, 녹색물감, 종이 혹은 천		
유의점 및 기타	살아있는 식물이나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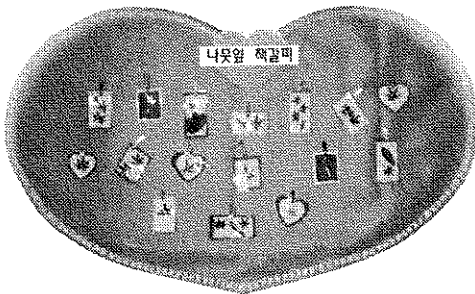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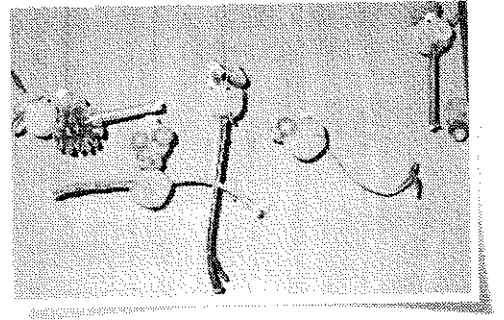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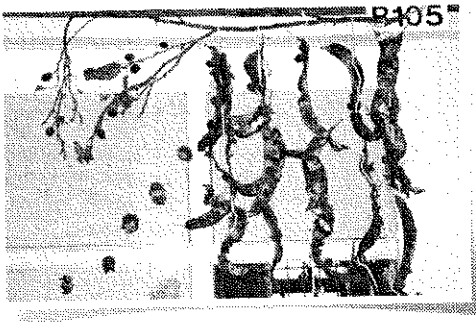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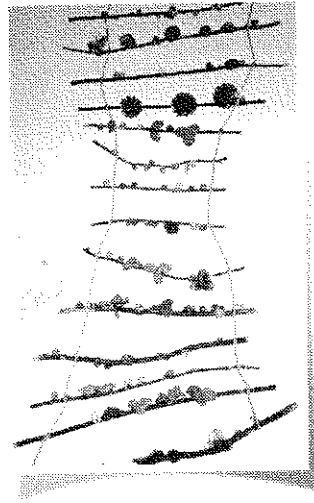
- 가을이 되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진다.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나무껍질, 열매 등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연의 선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생태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열매와 나뭇가지를 이용한 모빌 만들기
 - 은행잎, 단풍잎 등 떨어진 낙엽을 이용한 책갈피 만들기
 - 나뭇잎 편지쓰기 : 나뭇잎으로 종이에 붙여 나뭇잎 편지지를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 가을 편지를 써 보도록 한다.
 - 나뭇잎 손수건, 커튼 만들기 : 낙엽에 녹색물감을 칠하고 흰 천을 덮은 후 롤러로 밀어주거나 숟가락으로 두드려 주면 나뭇잎 손수건 완성! 이런 방법으로 예쁜 가을 커튼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 각 모둠별로(혹은 각 반별로)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각각의 느낌을 함께 나누어 본다.

★ 첨부한 사진자료 참조

활동방법


자연물을 이용한 모빌 만들기


가을이 되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집니다.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생태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뭇잎 책갈피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책속에 곱게 넣어두었던
나뭇잎 책갈피! 기억하시죠?
아이들과 함께 낙엽도 주워보고,
그 나뭇잎으로 예쁜 책갈피나
종이에 붙여 편지지도 만들어 봅니다.

	9	활동시기	10월
제 목	자연속의 빙고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누구나 알고 있는 빙고게임을 자연관찰과 접목하여 자연으로 들어간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빙고카드, 필기구		
유의점 및 기타	야외활동으로 진행하되, 사전답사를 통해 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해 둔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빙고놀이와 요령은 같으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이다. 2. 야외로 떠나기 전 학생들에게 방법을 설명하고 빙고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빙고카드는 가로세로 각각 4칸씩 총 16개 칸으로 한다. 목적인 장소로 떠나기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빙고카드의 16개 칸에 적어 넣도록 한다. 4. 찾을 물건들의 예로는 나뭇잎, 풀, 벌레껍질, 솔방울, 씨앗, 나뭇가지, 열매 등을 들 수 있다. 교사는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5. 공원이나 숲 속 공터 등 야외로 나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준 뒤, 각자 자기의 빙고 칸에 적은 물건들을 찾도록 한다. 6. 찾은 물건은 빙고칸에 「5」 표시를 하도록 한다. 7. 「5」표시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줄을 형성하고, 그 줄이 3개가 될 때 「5빙고」를 외치며 교사 앞에 와서 순서대로 줄을 서도록 한다. 빠른 시간 안에 「5빙고」를 외칠수록 이기는 놀이이다. 8. 전체 인원이 20명이 넘을 경우 3~4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진행할 수 있다. 9. 교사는 유아들이 발견한 자연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연물(생물, 무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들이 빙고를 외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지날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이동이 가능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가지고 와서 다 함께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다. · 이름을 모르는 것은 도감 등을 이용하여 찾아보도록 한다. · 생활권에서는 자연물이 아닌 쓰레기 등도 빙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 『생태문화지도자 교재』, 2000		

	10	활동시기	10월
제 목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되고 싶은 바람의 여정을 통해 공기의 오염과정, 소중함을 알아간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되고 싶은 바람의 여정을 통해 공기의 오염과정, 소중함을 알아간다.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1997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내가 한 번만 “확” 하고 불어 주면 바쁘게 회사 가시던 아저씨는 “아, 상쾌해!”, 학교 가는 형도 “아, 상쾌해!” 하고 말합니다.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해님이 활짝 웃는 아침입니다.

상쾌한 바람은 기지개를 켭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 줘야지.’

바람은 회사 가시는 아저씨에게 “확” 하고 불어 주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저씨는 ‘아, 상쾌해! 란 말 대신 얼굴을 찡그리십니다.

‘어?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이번엔 학교 가는 형에게 불어줘 볼까?’

머리카락도 날리게 “확” 한 번 불어 주었습니다.

이런! 형도 얼굴을 돌리며 “에이, 기분 나쁜 바람.” 하고 말합니다.

상쾌한 바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바람이라니? 아니야, 난 상쾌한 바람이라구! 내 친구는 내가 상쾌한 바람이란 걸 알 거야. 저기 친구가 가고 있구나. 어디, 확!’

바람은 한 번 불어 주고는 친구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친구 역시 “아휴, 숨도 못 쉬겠네. 켹켹켹!” 하고 입을 가립니다.

바람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쩌다 나쁜 바람이 되어 버렸을까.’

그때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서 검은 연기를 잔뜩 내뿜었습니다.

‘아, 알았다. 저 차들의 검은 연기 때문이야. 차가 없는 저쪽으로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상쾌한 바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를 잔뜩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휴, 어떡하면 좋지? 저기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아무도 나를 나쁜 바람으로 만들 수 없을 거야.’ 바람

은 아주 빠르게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딩 안에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딩 안에도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피우는 담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쾌한 바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잉-잉. 어떻게 해. 난 이제 상쾌한 바람이 아니야. 난 나쁜 바람이 됐어. 잉-잉.”
마침내 바람은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로 누가 바람을 부릅니다.

“바람아, 바람아.”

바람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행운목’이라는 나무가 화분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무야, 네가 날 불렀니?”
“그래, 내가 불렀어. 그런데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응, 난 상쾌한 바람인데 이젠 나쁜 바람이 되어 버렸어. 다시는 상쾌한 바람이 될 수 없나봐. 여기도 이렇게 공기가 나쁜걸.”

행운목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상쾌한 바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바람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어서 가르쳐 줘!”

“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야 해. 그곳은 숲인데, 내 친구들이 모두 흠에 심겨져 있고 벌레와 새들이 사는 곳이지.”

바람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묻고 나서 바람이 말했습니다.

“행운목아, 네 입이 마른 걸 보니 너에게도 상쾌한 바람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함께 가자.”

“안돼, 나는 화분 안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어. 어서 가, 더 나쁜 바람이 되기 전에.”

바람은 행운목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주 긴 터널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행운목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가니까 정말 숲이 있었습니다.

“야! 숲이다. 난 이제 상쾌한 바람이 될 수 있어!”

바람은 숲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상쾌한 바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신나게 나무들 사이를 오가기도 하고, 잠자는 아기새의 깃털을 살짝 만지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나뭇가지에서 자려던 바람은 아저씨의 얼굴, 친구의 얼굴, 그리고 행운목의 말라버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이 상쾌한 바람을 가지고 내 친구들에게 가야지.”

그 날 밤바람은 꿈을 안고 잤습니다.

바람이 “훤~” 하고 불어주면 “아, 상쾌해!”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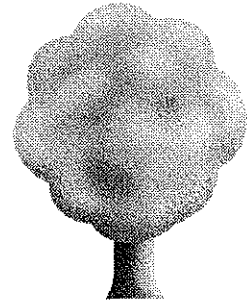
기분 좋아할 아저씨와 형과 친구들, 그리고 건강한 초록잎을 갖게 될 행운목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의 얼굴에는 빙그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11	활동시기	10월
제 목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 공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그 대안을 찾아간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공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나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1997		



아기새와 가로수 할머니



도시의 가로수에 아기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할머니, 제가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 귀여운 아기새야. 어디 한 번 해 보렴. 쿨럭, 쿨럭.”

아기새는 가로수 할머니에게 날아다니며 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시의 나쁜 공기 때문인지 가로수 할머니는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누렇게 많이 병든 가로수 할머니는 아기새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종합병원 옥상에 핀 노란 꽃을 보았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날개 짓으로 인사를 하니깐 노란 꽃도 인사를 했어요.”

“참 예쁜 꽃이겠구나. 쿨럭, 쿨럭.”

“네, 정말 그랬어요.”

가로수 할머니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아기새는 걱정스러운 듯이 가로수 할머니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로수 할머니, 저 길 너머에 또 공장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공기가 더 더러워질텐데. 큰일이예요.”

가로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할머니도 공기가 더러워지는 게 걱정인 듯 했습니다.

공장이 세워진 뒤로 아기새가 가로수 할머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로수 할머니의 기침은 심해졌습니다.

“가로수 할머니, 오늘 종합병원 옥상에 피었던 노란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 꽃도 나쁜 공기 때문에 병이 들었었나봐요. 또 아파트 5층에 걸려있던 하얀 빨래는 금새 까매졌어요.”


“아기새야, 이제 큰일이구나.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믿어요. 곧 공장에 공기를 깨끗이 하는 정화장치가 생길 거예요.”
“글쎄, 아기새야. 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니?”

어느 날, 방송국에서 온 기자가 가로수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쫓쫓, 공기 오염이 심각하군. 제보를 듣고 와보길 잘했어.”
“할머니, 가로수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누가 왔어요.”

“으응, 저 사람은 기자구나. 아기새야, 저 사람이 공기 오염에 대해 보도할 모양이다.”
기자는 카메라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나무 병원에서 온 사람이 가로수 할머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기뻐요. 할머니,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무엇인데 그러니? 빨리 말해보려무나.”
“공장에 정화장치를 한데요. 또 매연을 내는 자동차도 단속을 한다나 봐요.”

“그것 정말 기쁜 소식이로구나, 앞으로는 깨끗한 공기가 되겠군.”
아기새는 공기뿐만 아니라 물과 흙도 깨끗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12	활동시기	10월
제 목	토끼의 꿈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이야기를 통해서 산성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활동영역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개 요	산성비로 인해 시든 나뭇잎과 토끼의 꿈을 통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를 알게 된다.		
참고자료	장수하늘소, 『초등학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로운 환경이야기 30』, 두산동아·2000		

토끼의 꿈

아침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토끼는 매우 언짢았습니다. 좋지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사냥꾼을 피해 나뭇잎 뒤로 몸을 숨겼는데, 갑자기 나뭇잎들이 말라 버리지 뭐예요. 그 바람에 사냥꾼에게 붙들리는 꿈이였습니다.

토끼는 아침이나 먹어야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한 잎사귀들을 사각사각 갈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꿈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토끼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개꿈이야, 개꿈! 나뭇잎들이 갑자기 시들 리가 없잖아!”

토끼는 기분도 그렇고 해서, 재 너머에 사는 할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꿈풀이를 해 달렘셈이었어요. 토끼는 강충강충 길을 걷는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크, 사냥꾼이닷!”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사냥꾼도 걸음이 빨랐습니다.

“와- 와-” 하는 토끼몰이 소리가 바짝 뒤쫓아 왔어요.

“저 고개를 돌면 잎이 넓은 나무들이 많아, 그 속에 숨으면 될 거야.”

토끼가 막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꿈속에서처럼 나무들이 메말라 있지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몸을 숨겨줄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다. 그 때 바위 밑에 사는 노루가 어린 토끼를 끌어당겼습니다. 사냥꾼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토끼를 놓친 사냥꾼은 투덜거리며,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냥꾼이 보이지 않는데도 토끼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노루가 토끼를 안심시키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휴우, 개꿈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토끼가 노루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노루는 참 신기한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나저나 나뭇잎들이 왜 저러니? 늦가을도 아닌데 벌써 시들었잖아!”

“비 때문이야.” “뭐라고? 비를 맞으면, 나무가 더 잘 자라잖아.”


토끼는 노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루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전에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산성비 때문이래.”

“산성비? 장대비,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는 들어 봤어도 그런 이름은 처음인 걸.”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는 비래. 사람들도 요새 내리는 비는 맞지 않는다고 하던 걸.”

토끼는 생물에 해로운 비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뵈히 보면서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토끼는 믿는 듯 마는 듯하며 노루 굴에서 나왔습니다.

	13	활동시기	10월
제 목	별노래	월간주제	공기
활동목표	별노래와 별이야기를 통해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활동지료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노래를 듣는 활동을 진행하면 노래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을 익히기 전에 가사를 차례로 읽어보는 활동을 한다. (세 개의 노래가 리듬과 가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숫자와 연관 되어 있다) 별을 많이 보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별을 많이 보았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는지도 이야기한다. 유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별을 보았을 때의 마음으로 별노래를 함께 불러본다. 별과 별노래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2-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요!〉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의 별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었는지?(예, 시골집, 할머니집 등) - 별은 왜 밤에만 보일까? - 왜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고 별들은 시골에 가야만 볼 수가 있을까? -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별을 볼 수 있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작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 밤에 별을 보기 위해 오늘 집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 별은 시골이나 도시에나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도시의 하늘은 아주 작은 먼지들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안개가 끼면 잘 보이지 않듯이... 그 작은 먼지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때문에 자동차를 적게 타고 다니는 것은 별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별노래에 나오는 말들 중에 유아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말들은 쉽게 설명해 준다. (예, 망태; 망태기(網)의 준말, 무엇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새끼나 노 따위로 엮어서 만든 물건) 노래를 다시 한번 유아들과 함께 부르고, 노래의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활동1] 흰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검은 색을 칠하고 색을 벗겨 내면서 밤하늘을 표현해 본다. ★ [확장활동2] 별과 관련된 시를 지어본다. ★ [확장활동3] 두꺼운 종이나 반짝이 종이 등으로 별을 만들고 그 별에 시를 적어 달아주어 모빌을 만들어 본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예사 빠르기로 ♩ = 101

전래동요 · 백창우 채보

Am Am7 Am Am7 Am Am7 Am Am7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Am Am7 Am Am7 Am Am7 Am Am7

별 다섯 나 다섯 별 여섯 나 여섯 별 일곱 나 일곱 별 여덟 나 여덟

Am Am7 rit. Am Am7

별 아홉 나 아홉 별 열 나 열

망태2

조금 빠르게 ♩ = 118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Am Am7 Am Am7 Am Am7 Am Am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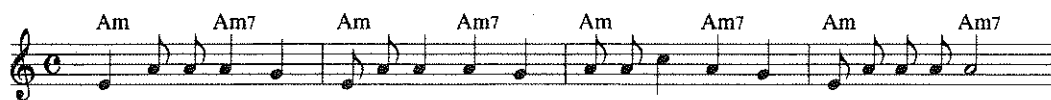
별 하나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 셋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다섯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일곱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아홉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 둘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 넷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여섯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여덟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별 - 열 따서 구워서 불어서 망태에 넣고

망태1

예사 빠르기로 ♩ = 96

전래동요 · 백창우 곡



별 하나 똑 따 행주로 닦아 망태에 넣어 동문에 걸고



별 둘 똑 따 행주로 닦아 망태에 넣어 서문에 걸고



별 셋 똑 따 행주로 닦아 망태에 넣어 남문에 걸고



별 넷 똑 따 행주로 닦아 망태에 넣어 북문에 걸고



별 하나 똑 따 망태에 담아 우리아기머리말에 걸어 놓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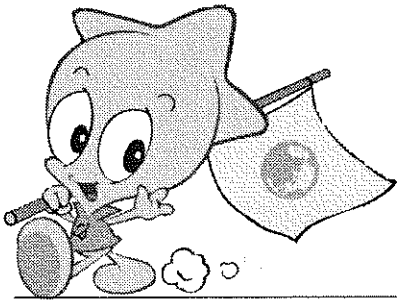
별 둘 똑 따 망태에 담아 뒷 간문고리에 걸어 놓고 -



별 셋 똑 따 망태에 담아 올라부시오시는길에 걸어 놓고 -



별 넷 똑 따 망태에 담아 내 방 작은 창에 걸어 놓고 -



주제전개기간 11월

월간주제 지구, 흙

언어

지구의기분 표현하기



음악 신체

흙만들기

모래로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세계 푸른지구

지구의기분 표현하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2)

하나뿐인 지구

땅



이야기 나누기

흙이 살아있대요

흙도 병에 걸려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1)



미술

땅속 친구들을 만나요

지구의기분 표현하기



수 과학

땅속 친구들을 만나요


흙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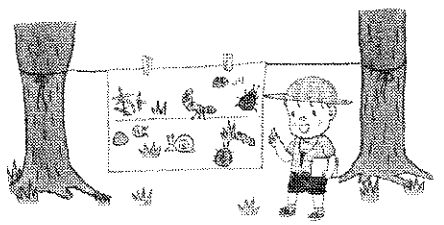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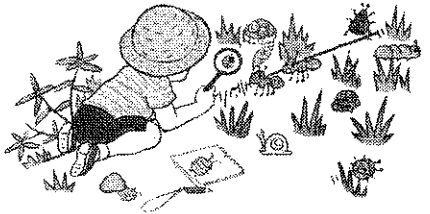
흙이 살아있대요


흙도 병에 걸려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2)



	1	활동시기	11월
제 목	땅속 친구들을 만나요!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땅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존재함을 안다.		
활동영역	수 과학,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1m 길이의 실, 돋보기(각각 아이들 수만큼), 종이, 필기구		
유의점 및 기타	교사가 미리 습기가 적은 숲 속이나 풀밭을 골라준다. 우선 교사가 시범을 보인 후 유아들이 따라 오도록 한다. 유아들에게 꼭 실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 주변을 넉넉히 살펴보라고 일러준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에게 우리 주변의 자연에는 사람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이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특히 땅 위의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다. 2.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돋보기로 실의 한 쪽 끝을 살펴본다. 3. 실의 주위에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본다. 실의 다른 끝을 향해서 돋보기를 천천히 옮겨가면서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4. 곤충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상상하도록 한다. 탐험에서 만나는 것은 곤충뿐만이 아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도 관찰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떨어뜨린 물건도 찾아낼 수 있다. 5. 곤충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유아는 손을 들도록 한 뒤 함께 찾아준다. 6. 탐험이 끝난 후 어떤 곤충들을 봤는지, 곤충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땅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7. 관찰하면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8.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걸고 집게로 각자의 관찰 그림을 걸어두고, 일렬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게 한 후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환경팀, 『푸른교실 푸른지구』, 1996		




	2	활동시기	11월
제 목	흙만들기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흙의 생성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소중함을 느낀다.		
활동영역	신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돌맹이 2개(사암과 같이 잘 부서어 지는 것), 모듬별 흰 종이 1장		
유의점 및 기타	비교적 잘 부서어지는 성질의 돌맹이를 미리 구해놓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몇 개의 모듬으로 나누어, 두 개의 돌맹이를 서로 비벼 떨어지는 가루를 흰 종이 위에 모아보게 한다. (★모듬별 대항을 해 볼 수도 있다.) 2. 한 숟가락 정도의 돌가루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3.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흙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 우리가 밟는 흙은 오랜 세월동안 암석 덩어리가 바람에 의해 깎여져 만들어진 것이다. 1cm의 토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00~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4. [확장활동] 유치원 주변에서 어느 곳에 흙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흙을 밟아보도록 한다. <p>★ <참고> 흙은 생명을 싹틔게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흙의 구조가 파괴되어 생육이 불안정하게 된다.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p>		
참고자료	전교조 서울초등환경교육연구회, 『숲에서 하는 환경교육자료집 - '숲에서 놀자!』, 1997		


	3	활동시기	11월
제 목	흙이 살아있대요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흙 속의 미생물들과 정화능력에 대하여 알고, 살아있는 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각 20분
활동자료	흙 속에 사는 생물들의 그림이나 사진, 위를 잘라낸 페트병 2개, 음식찌꺼기 약간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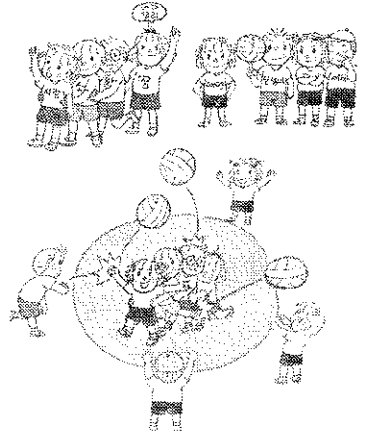
1. 각각의 위를 잘라낸 페트병에 굳어진 흙(볶은 흙), 숲 속의 흙을 반쯤 넣어둔다.
 2. 여기에 음식찌꺼기를 조금씩 섞은 후, 물을 약간 살살 뿌려본다.
 3. 며칠 후 각각의 페트병 속에 든 음식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 음식물을 썩게 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한다.
 5. 흙 속에 사는 생물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6. 흙 속에 사는 생물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러한 생물들이 흙을 살아있게 함을 알도록 한다.
- 〈흙 속에 사는 생물들〉
- 몸이 큰 생물: 다람쥐, 멧쥐, 산쥐, 두더지
 - 몸이 작은 생물: 딱정벌레류, 개미류, 노린재류, 쥐며느리, 지네, 거미, 진드기, 달팽이, 민달팽이, 지렁이
 - 아주 작은 생물: 선충류, 원생동물, 균류 - 토양 미생물: 조류, 균류, 방사선류, 각종 세균류
7. 흙의 생명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을 약속을 정해보도록 한다.
(예. 길에 비닐이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작은 땅에서 식물을 길러보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나 농산물 먹기, 제철 채소나 과일 먹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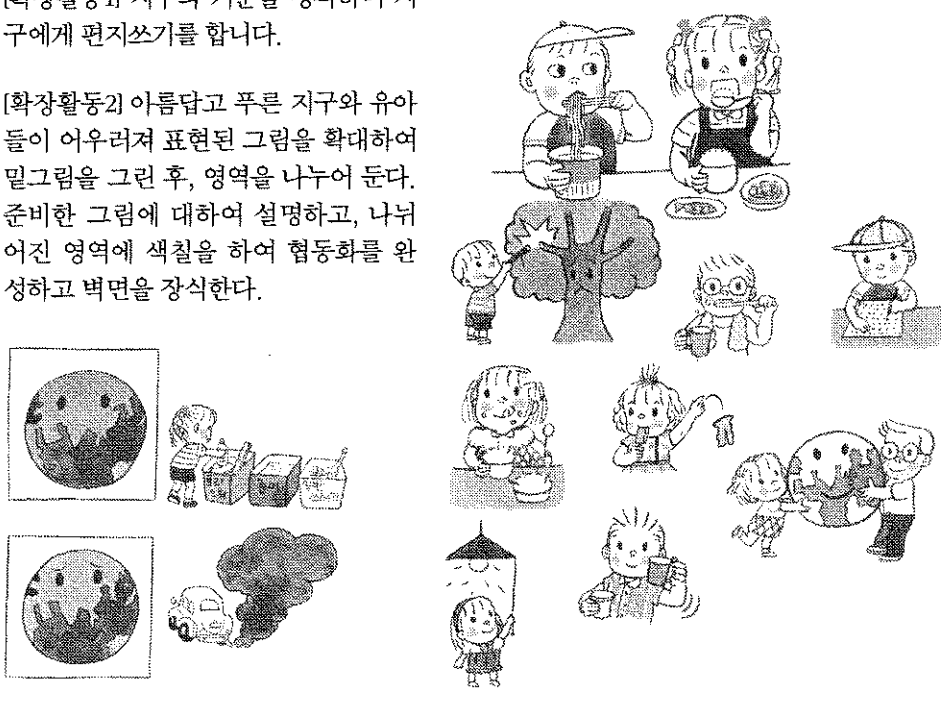
참고자료	전교조 서울초등환경교육연구회, 『숲에서 하는 환경교육자료집 - '숲에서 놀자』, 1997
------	---

	4	활동시기	11월
제 목	흙도 병에 걸려요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인간의 활동에 따라 흙도 건강하거나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흙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건강한 나무와 병든 나무의 그림자료, 흙을 건강하게 하는 그림 카드와 흙을 병들게 하는 그림카드, 물, 시약(BTB용액), 비이커 3개, 흙, 숟가락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앞마당에서 흙을 담아오세요. 흙에 그림 카드를 숨겨 놓고 유아들에게 꺼내어 보도록 한다. (그림카드 예) 지렁이, 건전지, 음식찌꺼기, 거름, 쓰레기, 농약 등 카드 중에서 흙을 건강하게 해주는 카드와 병들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한다. (건강하게 해 주는 것) 지렁이, 음식찌꺼기, 거름 등 (병들게 하는 것) 쓰레기, 건전지, 농약 등 주변의 흙 중 좋은 흙과 나쁜 흙을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해본다. [실험방법] 비이커에 물을 2/3 정도 넣고 흙을 4숟가락씩 넣는다. 그리고 잘 저은 후 BTB용액을 넣고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살펴본다. ★ 건강하지 못한 흙은 흙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건강하지 못한 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흙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유아: 거름을 주어요. 지렁이를 많이 길러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교사: 그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농약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흙처럼 건강하고 깨끗한 흙이 될 수 있단다. 유아들이 말한 의견을 정리해 주고 덧붙여 설명한다. 		
참고자료	건영유치원, 『환경보전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1994		

	5	활동시기	11월
제 목	모래로 만들었어요!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각 30분
활동자료	깨끗한 모래, 물과 물뿌리개, 체, 큰 그릇과 쟁반, 모양찍기 틀, 손삽(플라스틱통 으로 만든 것), 나뭇잎, 작은 나뭇가지		
활동방법	<p>[모래놀이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할 유아들 2~3명이 둘러앉아 모래산을 만든다. 2. 모래산이 만들어지면 나뭇가지를 산꼭대기에 깊이 꽂는다. 3.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사람부터 만들어진 모래산을 두 손으로 긁어내린다. 이때 나뭇가지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이야기해 준다. 4. 유아들 스스로 그 밖의 규칙들을 정하고 즐겁게 모래와 놀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p>[모래놀이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래에 물을 충분히 뿌려 모래를 젓게 한다. 2. 모래를 체로 쳐서 고운 모래로 죽이나 수프를 만든다. 3. 젓은 모래를 모양찍기 틀로 찍거나 손으로 빚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과자나 떡을 만든다. 또 젓은 모래를 커다란 그릇에 담고 손으로 누른 후 커다란 쟁반에 뒤집어 케이크를 만든다. 나뭇잎이나 작은 돌멩이로 장식하고 나뭇가지 초를 꽂는다. ※ 재활용품으로 만든 손삽을 이용하여 그릇에 모래를 담도록 한다. 손삽은 손잡이가 있는 플라스틱통 - 식용유병, 세제 용기 등 - 을 사선으로 잘라서 사용한다. 4.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교육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5 - 건강한 몸과 마음』, 2001 전교조 서울초등환경교육연구회, 『숲에서 하는 환경교육 자료집 - 숲에서 놀자!』, 1997		

	6	활동시기	11월
제 목	아름다운 세계 푸른 지구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놀이를 통해 먹이사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든 생물들이 생태계의 고리를 따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자연생태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탱탱볼		
유의점 및 기타	피구놀이와 꼬리잡기 놀이를 응용한 놀이이다. 놀이 규칙에 대해 교사가 확실히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원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한 모둠에 5명 이상) 한 모둠은 “자연살리기” 모둠, 다른 모둠은 “오염시키기” 모둠으로 이름을 붙인다. 자연살리기 모둠에게는 먹이사슬 구조에 따른 순차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맨 마지막 단계는 “사람”으로 한다. “땅-풀-소-사람”과 같이 먹이사슬 구조에 맞게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 때 유아 스스로 먹이 피라미드의 위치(생산자, 1차, 2차 소비자)별로 역할을 선정하고 먹이사슬을 올바르게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시키기 모둠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산성비 - 매연 - 세제 - 일회용품 - 나무젓가락” 등. 오염원은 순서가 따로 없다. 자연살리기 모둠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원을 그린다. 자연살리기 모둠은 원안에 들어가 [사람 역할을 맡은 유아부터 먹이사슬 순서대로 기차를 만든다. 기차는 앞사람의 허리를 뒷사람이 두 손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사슬을 만들어 형성한다. 오염시키기 모둠은 원 밖에 둘러선다. 오염시키기 모둠은 공을 던져 자연살리기 모둠의 꼬리부분 땅부터 맞춘다. 꼬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아무 것도 잘리지 않는 것이다. 자연살리기 모둠은 오염시키기 모둠의 공격을 피하느라 요동을 치며 꼬리를 감추게 된다. 꼬리를 제외한 기차의 다른 사람들은 공을 손이나 발로 막을 수 있다. 꼬리는 그렇게하지 못한다. 자연살리기 모둠의 사람들이 모두 잘려나가게 되면 놀이는 끝난다. 교사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시간을 재며, 놀이가 모두 끝났을 때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수 없게 됨을 이야기한다. 자연살리기 모둠과 오염시키기 모둠을 바꿔서 다시 실시하고 시간을 비교해 승부를 판정한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환경팀, 『푸른교실 푸른지구』, 1996 환경운동연합, 『생태문화지도자 교재』, 2000 한국교육개발원, 『보람찬 환경탐구』, 1993		



	7	활동시기	11월
제 목	지구의 기분 표현하기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상황에 따른 지구의 기분을 표현해 봄으로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안다.		
활동영역	신체, 언어, 미술	예상소요시간	각 30분
활동자료	지구의 웃는 모습과 찡그린 모습을 담은 그림, 환경오염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행동그림카드, 푸른 지구와 어린이들이 어우러져 표현된 그림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담겨진 그림 카드와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이 담겨진 그림의 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면서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해 본다. 2. 각각의 그림 카드에 따른 지구의 기분을 직접 몸과 소리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 개인 혹은 모둠별로 표현해보도록 한다. 3. 지구의 웃는 모습과 찡그린 모습에 맞는 행동카드를 분류하여 붙임으로, 지구의 모습을 완성한다. 4. [확장활동1] 지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지구에게 편지쓰기를 합니다. 5. [확장활동2] 아름답고 푸른 지구와 유아들이 어우러져 표현된 그림을 확대하여 밑그림을 그린 후, 영역을 나누어 둔다. 준비한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눠어진 영역에 색칠을 하여 협동화를 완성하고 벽면을 장식한다. 		
			
참고자료	교육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7- 지구와 환경』, 2001		

내 소중한 친구, 지구에게

지구야, 내가 몹시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동안 편지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나 봐.

정말 미안해.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내가 우리들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래. 만약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 우주 속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셨어. 우리 집도, 학교도 모두 모두.

넌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깐 그 고마움을 잠시 잊었나 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것처럼.

난 아파트 10층에 살아. 지금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단다. 뿌연 하늘에는 달만 희미하게 보이고 별은 하나도 없어.

우리 동네에는 커다란 공장이 하나 있는데 밤만 되면 시커먼 연기를 마구 내뿜는단다. 그걸 볼때면 네가 얼마나 숨이 막힐까 하고 막 화가 나. 그뿐이 아니야 우리 집의 주변에는 나무보다 자동차가 훨씬 많거든. 맨날 뱅뱅거려서 너무 시끄럽고, 우리 놀이터를 빼앗아 버렸어. 자전거는 기름이 없어도 달릴 수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면 몸도 튼튼해진다는데 어른들은 왜 자꾸 자동차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우리한테는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전기를 아껴 써라 그러시면서 어른들은 안 그러시거든, 난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항상 널 생각하면서 살꺼야, 약속할게.

참! 며칠 전에 너의 옛날 사진을 보았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씩씩해 보이던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항상 아파서 울고 있는 것 같아.

동네 아저씨들이 그러시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까 봐 걱정이래. 또 어떤 아저씨는 네가 화가 나서 심통을 부리는 거라고 그러셨어. 정말 화났니? 너무 화내지마. 어제도 하루종일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산성비라고 무서워하더라. 산성비를 맞으면 나무도 말라 죽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다고.

지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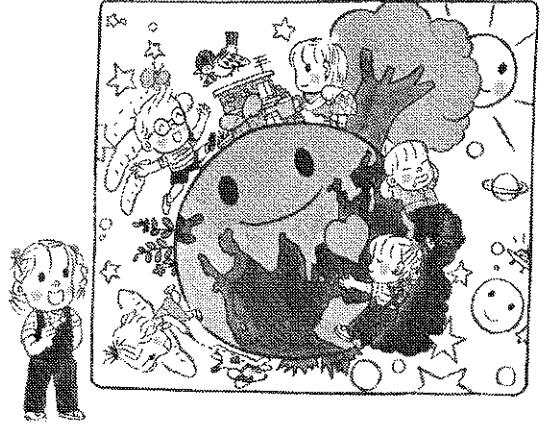
지난 여름 방학에 할머니댁에 놀러 갔다가 밭에서 감자를 캐 보았어. 난 감자 튀김을 참 좋아하거든. 그런데도 감자가 그렇게 땅 속에서 자라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할머니께서는 감자 한 개만 묻어두면 수 십 개의 감자가 열린다면서 너 보고 참 대단하다고 그러셨어. 넌 아주 조그만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해 주잖아.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아프다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내일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바꾸기로 했어. 난 크레파스가 두 통 있어서 한 통을 가져가서 바꾸기로 결심했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널 꼭 건강하게 치료해 줄게.


널 믿어.


밤이 꽤 깊었지? 그럼 잘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 내 소중한 친구, 지구야!



	8	활동시기	11월
제 목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 (1)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음식물의 오염경로를 통하여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임을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나누기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음식물쓰레기 관련 비디오(★ 참고), 음식물 경로 그림, 준비한 도시락		
유아점 및 기타	미리 일주일 전에 도시락 싸오는 날과 그 의미에 대해 각 가정에 알린다. 수업전날,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오늘이 도시락 싸오는 날임을 알려준다.		
활동방법	<p>1. 우리가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은 어디로 갈까? 먹다버린 된장국물(라면국물)을 따라가 보자. - 식탁의 된장찌개 → 하수도 → 하수처리장 → 강, 바다 → 다시 식탁으로...</p> <div data-bbox="370 763 1035 1188" data-label="Image"> </div> <p>2. [그림3]에서 음식물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이야기한다. - 된장찌개 한 그릇은 물 1만 8천컵, 라면 한 그릇은 물 4천 1백컵, 큰 우유팩 절반의 식용유를 쏟아 부은 물에 물고기가 살려면 큰 욕조(300리터) 330개 분의 물이 필요하다. 아빠의 소주 한 병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 4천 1백 컵이 필요하다.</p> <p>3.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 참고비디오: 라비필름, 『우리가 다시 그려요』중 '맛있게 드세요'</p> <p>4. 오늘은 모두 함께 도시락을 먹는 날,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가져온 도시락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갔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도록 한다.</p>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 『푸름이의 바른생활』, 1997		

	9	활동시기	11월
제 목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도 지구를 살리는 일 (2)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신체	예상소요시간	1~2시간
유의점 및 기타	[가정활동] '지구를 살리는 일도 지구를 지키는 일(1)' 의 사전활동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방법	<p>1. 아이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장을 보러 간다. 친환경적 장보기를 하도록 노력한다.</p> <p>2. 먹고 싶은 음식과 양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을 준비한다. 엄마와 함께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p> <p>3.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생활지침을 몇 가지 정하고 실천해보도록 한다.</p> <p>〈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생활지침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춧잎 등 다듬어 낸 야채는 신문지에 싸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볶음밥, 찌개, 튀김재료로 사용합니다. ▶ 쉰 김치는 냉동실에 보관해 먹습니다. ▶ 찬밥은 볶음밥을 하거나 팬에 얇게 펴고 약한 불에 20분 정도 데워 누룽지를 만들어 먹습니다. ▶ 국이나 찌개는 한 끼에 한 가지만 하고 양을 적게 준비합니다. ▶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꼭 짰 후에 음식물 쓰레기끼리 모아서 버립니다. ▶ 과일 껍질이나 야채 껍질은 베란다나 마당에 하루정도 말렸다가 버립니다. ▶ 마당이나 흙을 반 정도 채운 항아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흙과 섞어주면(이때 발효제를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흙의 미생물들이 썩게 만들고, 이것은 훌륭한 땅의 거름이 됩니다. 		

	10	활동시기	11월
제 목	하나뿐인 지구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지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음을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및기타	꼭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동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2002		

하나뿐인 지구

♩=116 백창우 시·곡



D F#m G A
 맑은 시냇물이 흐르 고 - 고운 꽃들 이 피어 나 는 -
 맑은 바람 - - 이 불 고 - 하얀 구름 이 떠 - 가 는 -


Em F#m Bm Em A
 아 름 다 운 - - 새 상 - 우 리 들 의 지 구
 아 름 다 운 - - 새 상 - 우 리 들 의 지 구

D Em A D
 아 침 이 면 - 환 환 햇 살 아 래 - 새 들 이 지 저 귀 고 -
 아 지 랑 이 - 뽀 얇 들 - 판 얇 - 나 비 때 춤 을 추 고 -

G F#m Bm E7 A
 밤 - 이 면 - 하 - 늘 가 득 히 온 하 수 반 짝 이 는 -
 울 - 창 한 - 나 무 들 사 이 로 매 기 때 노 래 하 는 -

D G/D D G 3 E7 A7
 우 리 들 의 푸 - 른 지 - 구 - 동 그 랫 고 예 - 뽀 초 록 별 -
 우 리 들 의 푸 - 른 지 - 구 - 동 그 랫 고 예 - 뽀 초 록 별 -

G F#m Bm Em A D
 우 리 손 으 로 가 꺾 야 할 - 하 나 뿐 인 지 구
 우 리 힘 모 아 지 꺾 야 할 - 하 나 뿐 인 지 구

	11	활동시기	11월
제 목	땅	월간주제	지구, 흙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지구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아이들은 예상외로 차분한 노래를 좋아한다.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가사이지만, 옛날 공장이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고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해를 돕는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동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2002		

땅

♩ = 94 백창우 시 · 곡

C Am G7 C C Am Dm7 G7

자 꾸만 땅이 - 죽어간다 - 자 꾸만 땅이 - 죽어간다 -

C Am G7 C Dm7 G7 C

이러다간 배추 심을 땅도없고 - 고 추 심을 땅도없겠네
 이러다간 나무 심을 땅도없고 - 꽃 - 심을 땅도없겠네

C Am G7 C C Am Dm7 G7

자 꾸만 땅이 - 죽어간다 - 자 꾸만 땅이 - 죽어간다 -

C Am G7 C Dm7 G7 C

이러다간 우리 - 어 - 머니 - 콩 심을 땅도없겠네 한
 이러다간 우리 - 아 - 이들 - 뽕 어 들 땅도없겠네 한

Am Em F C F C Am C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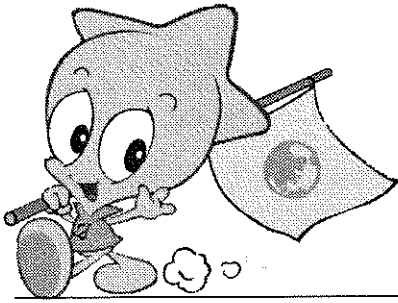
십 년쯤 뒤에 아나. 이십년쯤뒤엔 - 배추공장과추공장 콩 공장이 생겨

F C Am C F C F C

라면처럼 비닐봉지에 담겨 - 진 배 - 추를 - 고 - 추를 -

F C Am G C

완두콩을 - 먹게되 - 진 양을 까



주제전개기간 12월

월간주제 에너지

언어

음식 없는 하루
에너지가 없다면?



음율 신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풍선에서 전기가 생겨요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견학
해노래
전봇대



이야기 나누기

에너지란?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음식 없는 하루



미술


에너지가 없다면?



수 과학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풍선에서 전기가 생겨요
에너지가 없다면?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자원순환 테마 전시관 견학




	1	활동시기	12월
제 목	에너지란?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에너지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안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물레방아 그림이나 사진자료		
유의점및 기타	바람이나 햇볕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바깥 놀이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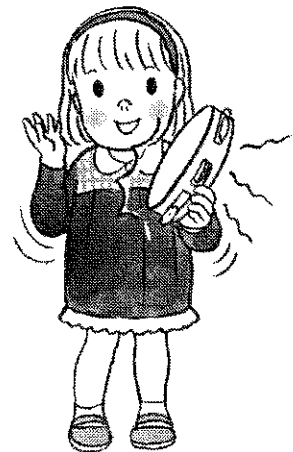
1. 에너지의 뜻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사: 에너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어떤 때 들어 보았니?
2. 유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에너지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사: 콩콩 뛰어보자. 손을 빨리 흔들어보자. 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바로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힘을 말하는 거야.
3.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교사: 이렇게 움직이거나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단다.
교사: 나무가 흔들리고 있네. 왜 그럴까 그래 바람 때문이지, 바로 바람도 에너지의 한 종류야. (바람에너지) 또 여기를 한번 보자. 작은 물레방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물을 흘려보내면 돌아가지, 그러니까 물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교사: 태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해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밝은 빛을 내는 에너지(빛에너지), 뜨겁거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열에너지)들이 있단다.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에너지 때문이란다. 이밖에도 건전지로 움직이는 장난감(전기에너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도 에너지란다.(운동에너지). 손뼉을 쳐보자, 소리가 나지? (소리에너지)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교사: 가정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사용될까?


[확장활동] 돋보기로 종이 태우거나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적용해 본다.
4. 원에서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들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확장활동] 가정에서도 에너지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2	활동시기	12월
제목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수 과학,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책받침, 소리나 움직임이나 빛 등을 낼 수 있는 물건들		

활동방법

1.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사: 에너지는 다른 모양이나 성질로 바뀔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
 박수를 한 번 쳐보자. 손을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지. 이것은 운동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바뀐 거란다.
 <예. 드라이기: 전기에너지 → 열에너지, 물레방아: 물에너지 → 운동에너지, 전등: 전기에너지 → 빛 에너지>
2. 전기에너지도 이렇게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나 성질로 변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에너지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생활 속에 에너지 전환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교사: 사람들은 물이나 바람, 태양, 불의 힘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밝게 해주거나, 따뜻하게 해주고, 물건을 저절로 움직이게도 해준다.
3. 이처럼 우리 교실이나 집에서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한다.
 (예. 시계, 전등, 전자레인지,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 등)
4. 나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표현해보도록 한다.
 [확장활동] 다음의 '풍선에서 전기가 생겨요' 등의 활동으로 연결한다.




	3	활동시기	12월
제목	풍선에서 전기가 생겨요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마찰 전기를 가지고 놀고 전기의 발생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수 과학,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풍선		
활동방법	<p>[도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전기를 경험해 보았는지 물어보고, 교사가 간단한 정전기 시범을 보여준다. - 책받침으로 교사의 머리 혹은 털 스웨터 등에 직접 마찰을 시킨 후, 책상 위에 놓인 색종이 조각을 끌어 올리거나 빨리 뒤집는다.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정전기에 관한 재미있는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p>[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에 붙는 고무풍선 - 풍선 불이기; 풍선을 머리카락이나 몸에 마찰을 시켜 천장이나 벽에 붙여 본다. (머리카락이나 털옷에 오래 마찰시킬수록 효과가 크며 풍선은 천장에 쉽게 붙일 수 있고, 힘을 가하지 않으면 2-3일 이상 오랫동안 붙어 있다.) 모둠 중에 한 친구의 몸에 가장 많은 풍선을 붙여 보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p>[정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전기나 마찰전기를 느꼈던 재미있는 경험들을 그려 보고 이야기를 꾸며 발표해 보도록 한다. <div data-bbox="614 1174 1204 1609" data-label="Image"> </div>		
참고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와 친해져요(1~2학년용)」, 2001		


	4	활동시기	12월
제 목	에너지가 없다면?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자신이 에너지가 되어봄으로써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활동영역	미술, 언어, 수 과학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눈가리개, 빛을 내는 물건과 빛을 내지 않는 물건들, 머리띠 가면		
활동방법	<p>1. 미리 준비한 눈가리개(검은 셀로판지 등을 이용한 안경이나 불투명한 안대)를 쓰도록 한 다음, 빛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교사: 어, 이상하네? 좀 전까지 보이던 세상이 왜 안 보일까? 유아: 안경(안대)을 벗어야 보이지요. 교사: 왜 좀 전에 안경을 썼을 때 안 보였을까? 유아: 안경을 써서 깜깜해서요. 교사: (안경을 벗게 하고) 안경을 썼을 때는 밤처럼 깜깜했는데 이렇게 깜깜할 때 느낌이 어땠지? 유아: 무서웠어요. 싫어요. 밝은 곳에 가고 싶었어요. 교사: 그럼 우리 주변에 환하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아: 햇님이요, 불이요, 형광등이요. 교사: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어둠에서 밝은 빛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을 나누어 볼까?</p> <p>2. 아이들과 함께 분류해 본다. (빛을 내는 것 - 촛불, 해, 돋보기, 모닥불, 스탠드, 전구, 성냥, 손전등 등, 빛을 내지 않는 것 - 가위, 연필, 신발, 라디오, 꽃 등).</p> <p>3. 빛에너지를 갖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머리띠 가면에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가면 그림 예. 돋보기, 촛불, 성냥, 전구, 손전등 등)</p> <p>4. 자신의 가면에 그린 에너지원이 되어 서로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 다음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교사: 이렇게 빛을 내는 빛에너지가 되어 보니 어때니? 유아: 에너지가 고마워요. 신기해요. 아껴 사용해야 해요. 교사: 그래. 이렇게 에너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구나.</p> <p>5. 만약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본다. [확장활동] 별첨의 표를 부모님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한다.</p> <p>6. 원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본다. (예. 빈방의 전깃불은 끈다. 에어컨, 선풍기 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때에는 TV를 켜놓지 않는다.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 두지 않는다. 쓰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 둔다. 커튼이나 창문을 열고 전깃불을 끈다)</p>		
참고자료	강성현 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환경수업활동 94가지』, 2000		


★ [별첨] 만약 전기가 없다면?


-엄마, 아빠, 내가 함께 체크해 보세요. (표기 예. 엄마-○, 나-□, 아빠-△)

에너지가 필요한 가정용품들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다	없으면 크게 불편하다	절대로 없어 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전등, 형광등					
전축, 라디오					
텔레비전					
에어컨					
선풍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난로, 곤로					
VTR					
엘리베이터					
헤어드라이어					
진공청소기					
전기담요					
컴퓨터					
전화					
믹서					
냉장고					
토스터					
전기밥솥					
다리미					

	5	활동시기	12월
제 목	음식 없는 하루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음식 없이 사는 가상의 하루를 생각해보고 음식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다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생각해보고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언어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방법	<p>1. 음식 없이 살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교사: 우물이 말랐을 때,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지. 지구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p> <p>2. 각자 먹은 음식 이야기 - 음식물 카드 중에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찾아본다. 없으면 책에 글로 쓰거나 그려도 좋다.</p> <p>3. 다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 이야기 - 남긴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고,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본다. 버린 음식물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p> <p>4. 음식물은 에너지 - 안 먹고 지낼 수 있는 음식물을 골라 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음식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느끼고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 제철음식이나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음식물을 먹는 것 또한 좋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며, 운송과 관리과정이 줄어들게 되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실천방법임을 이야기한다.</p> <p>5. 가정에서 함께 저녁식사 하는 날을 정해 보도록 유도한다. 교사: 온 가족이 오손도손 식사를 하면 에너지가 절약할 수 있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전기료, 가스료도 절약되고 가족 간에 이야기할 시간도 늘어나게 되지. 오늘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번씩, 온 식구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요일을 정해보도록 하자.</p>		
참고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와 친해져요 (1~2학년용)」, 2001		

	6	활동시기	12월
제 목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다시 쓸 수 있는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1시간
활동자료	움직이는 태양에너지 학교		
활동방법	<p>★ 활용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태양에너지학교”에 대한 소개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대안센터가 공동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제작된 “움직이는 태양에너지학교”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 “움직이는 태양에너지학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상을 제시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의 해법을 보여준다. 3.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가능에너지 주방, 매연없는 깨끗한 연료로 달리는 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건강한 먹을거리로 지키는 건강한 땅에 대하여 보고 배울 수 있다. 4. 교육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 에너지의 필요성,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재생가능 에너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등 5. 교육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거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에너지대안센터, 전화 : 02-394-2345, E-Mail : ykh@kfem.or.kr) <div data-bbox="340 1232 856 1553" data-label="Image"> </div>		
참고자료	에너지대안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vision.org/)		

	7	활동시기	12월
제 목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견학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친환경에너지나 재활용 제품 등을 통해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자연순환 에너지)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유의점및기타	에너지에 대한 교육들이 선행된 후 가는 것이 좋다.		
활동방법	<p>★ '자원순환테마전시관'에는 친환경에너지 상품이나 재활용 제품으로 꾸며진 Eco-house, 아이들이 직접 환경보전과 폐기물재활용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간단한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p> <p>〈자원순환테마전시관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CBS방송국 1층 전화·팩스: (02) 2645-7260, 7325 시설: 에코하우스, 재활용제품전시관, 환경상품전시관, 기획특별전시관, 환경체험교실 설립목적: 재활용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제품 전시 및 판매의 장을 마련하여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환경 및 재활용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2001년 12월 개관. 견학 및 교육소요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프로그램 조정가능) 견학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30분, 3시 30분에 단체 견학 가능하다. 단, 토요일은 전시관을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3시 30분 견학은 하지 않는다. 가능한 교육활동: 폐품이용 공예품 만들기, 재활용 관련 시청각 교육, 간단한 수질측정검사 등 교통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 100-1, 100-3, 115-1, 457, 488번 버스타고 목동운동장에서 하차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에서 하차, 출입구 2번 출구 기독교방송 방향 관리주체: 자원순환테마전시관 홍보사무실 인터넷 주소: http://ecoplaza.okrecycle.com 이메일(신청담당자): sunah24@empal.com 기타: 사전예약 필수, 관람료 없음 		
참고자료	자원순환테마전시관 (http://www.koreco.or.kr/)		

	8	활동시기	12월
제 목	해노래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음악 활동을 통해 태양에너지원으로서의 해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곡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노래창고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 보림 - 1999		

참깨 줄게 별 나라 들깨 줄게 별 나라

예사 빠르기로 ♩ = 104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E C#m Am7 E E C#m Am7 E

참 깨 줄 게 별 나라 들 깨 줄 게 별 나라 참 깨 줄 게 별 나라 들 깨 줄 게 별 나라

E C#m Am7 E E C#m Am7 E

참 빛 줄 게 별 나라 거라 얼레 빛 줄 게 별 나라 거라 참 빛 줄 게 별 나라 거라 얼레 빛 줄 게 별 나라 거라

땅땅 말라라

조금 빠르게 ♩ = 116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땅 땅 말 라 라 꼬 치 꼬 치 말 라 라 땅 땅 말 라 라 빨리 빨리 말 라 라

D F#m Bm D E A

해 야 해 야 물 떠 먹 고 얼른 나와 비 취 라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땅 땅 말 라 라 꼬 치 꼬 치 말 라 라 땅 땅 말 라 라 빨리 빨리 말 라 라

해야 해야 붉은 해야

조금 빠르게 ♩ = 118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Am Am7 Am Am7 Am F Am Em

해 야 해 야 붉 은 해 야 부 을 치 며 나 오 너 라
 해 야 해 야 붉 은 해 야 징 을 치 며 나 오 너 라
 해 야 해 야 붉 은 해 야 구 름 속 을 나 오 너 라
 해 야 해 야 붉 은 해 야 구 름 속 을 나 오 너 라

Dm C Am Dm Dm G

김 칫 국 에 밥 말 아 먹 고 장 구 치 며 나 오 너 라
 복 죽 개 로 물 - 떠 먹 고 쇠 를 치 며 나 오 너 라
 앞 뒷 문 다 열 - 어 놓 고 어 서 어 서 나 오 너 라
 복 - 장 구 들 - 러 메 고 이 서 어 서 나 오 너 라


여긴 짹짹 저긴 쿵쿵

조금 빠르게 ♩ = 122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Cm Fm7 Cm

여 긴 짹 짹 저 긴 쿵 쿵 여 긴 짹 짹 저 긴 쿵 쿵

	9	활동시기	12월
제 목	전봇대	월간주제	에너지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	음율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잎,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곡노래가 담긴 CD나 테잎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1999		

전봇대

예사 빠르기로 ♩ = 105 이원수시 · 백창우곡

전봇대 - 전봇대 - 전봇대 - 전봇대 -

바람부는데에 나 - 란히서 - 서 손에손서로잡고 어디까지이 었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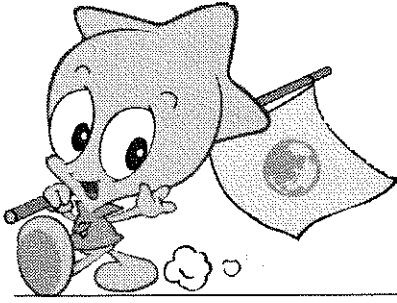
눈 - 오는함경도는 아 - 버지계신곳 계 까 지 도 이 었 나

전봇대는 먼뎃말도 전 해 준 다 지 귀 - 대고천리밖에 말도한 다 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아무리기다려도 아니오시는 울 아버지 소식좀 전 해 주 려 마

점점 느리게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전봇대



주제전개기간 1~2월

월간주제 **환경운동**

언어
알뜰시장놀이



음악 신체
지구를 살리는 특공대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벌레먹은 배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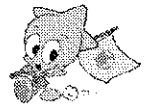
이야기 나누기
푸르미의 다짐
알뜰시장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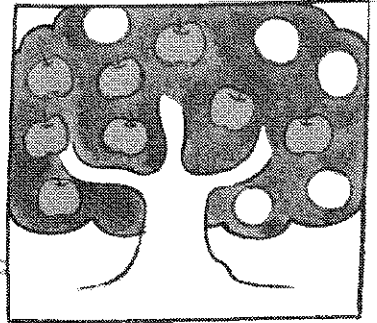
미술
푸르미의 다짐





수 과학
알뜰시장놀이




	1	활동시기	1~2월
제 목	푸르미의 다짐	월간주제	환경운동
활동목표	스스로의 약속에 대한 점점을 통하여 푸르미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한다.		
활동영역	이야기 나누기, 미술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푸르미의 10가지 다짐 그리기 도구, 우리집 환경점수표		
유익점 및 기타	지역이나 원의 상황에 따라 수칙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활동방법	<p>1. 연초에 약속한 푸르미의 약속카드 내용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발표해 보도록 한다. 잘 지킨 친구들에게는 칭찬해주고, 또한 잘 지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조그만 선물이나 상장(으뜸 푸르미상, 지구 지킴이상 등)을 준비해주면 좋다.</p> <p>(상장내용 예시) '위 어린이는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하 니뿐인 지구를 살리는 으뜸 푸르미로 생활하였기에 상장을 전달합니다'</p> <p>2. 그 동안 지켜온 생활수칙들을 모아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푸르미' 로서의 10가지 다짐(아래 예시 참조)을 하게 한다.</p> <p>○○○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못하는 동식물을 괴롭히지 않는다. -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끈다. - 나무를 살리기 위해 종이를 아껴 쓴다. - 캔, 종이, 병은 모아서 재활용한다. -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음식은 먹을 만큼 담고 남기지 않는다. - 물 절약을 위해 양치질할 때는 컵을 사용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은 적게 먹는다. - 엄마, 아빠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가족이 된다. <p>3. 이 생활수칙들을 모둠별로 한 가지씩 나누어 그려보게 하고, 항상 볼 수 있도록 꾸며준다.</p> <p>4. 이제 우리 푸르미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가족이 되어 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위의 목록내용을 토대로 우리집 환경점수표를 만들어 나누어 준다.)</p>		
	참고자료	환경교육센터, 『유아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토론회자료집』, 2002	



	2	활동시기	1~2월
제 목	알뜰시장 놀이	월간주제	환경운동
활동목표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경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다.		
활동영역	수과학, 언어, 이야기 나누기	예상소요시간	1시간
활동자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장난감, 책, 인형, 옷, 문구류 등), 종이쿠폰		
유약점 및 기타	미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인형, 책, 옷, 문구류 등을 가져오게 한다.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소개된 물건은 쿠폰과 교환하고 소개가 된 물건들은 한쪽에 잘 진열해 둔다. 2. 진열된 물건들을 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할 시간을 준다. 3. 알뜰 시장 놀이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자에 쿠폰을 넣고 자신에게 필요한 장난감으로 바꾸어 가져가게 한다. 4. 알뜰 시장 놀이가 끝나면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그 물건을 선택했니? - 물건을 바꾸어본 느낌이 어땠지? - 알뜰시장에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친구들과 서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 물건들을 어떻게 했을까? - 앞으로 불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확장활동]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어 환경을 생각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p>〈부모님께 편지 내용 예시〉</p> <p>… 혹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듬뿍 선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새 옷, 새 집, 새 가구들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물질들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p> <p>새 것보다는 물려받은 귀한 현 물건들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고 지니게 하시고, 더불어 물려받음에 대한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p> <p>어린이들의 주변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 우리 부모세대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p> <p>이미 새로운 가구와 물건들이 많대구요? 그렇다면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또 집안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위해 ‘숯 상자에 넣어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p> <p>그리고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고,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은 챙겨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함께 찾아주세요.</p>		
참고자료	교육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2001		

	3	활동시기	1~2월
제 목	지구를 살리는 특공대!	월간주제	환경운동
활동목표	게임을 통하여 지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새롭게 인식한다.		
활동영역	신체	예상소요시간	30분
활동자료	놀이판, 주사위		
유의점 및 기타	놀이의 진행규칙은 윗놀이의 규칙과 동일하다.		
활동방법	<p>1. 지구를 살리는 놀이판과 주사위를 준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판의 개수는 수업 시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주사위를 흰 상자 등 폐품을 이용해 만들어 본다. <p>2. 두 모둠으로 나누어 '말' 이 되는 어린이를 정하고 나머지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도록 한다.</p> <p>3. 나온 숫자만큼 말을 진행시키고 놀이판에 적혀있는 대로 말을 이동한다. 먼저 도착하는 팀이 지구를 구하게 된다.</p> <p>4. 게임을 마치면 지구환경을 살리는 행동,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한다.</p> <p><말판그림></p> <p>지구환경을 살리는 행동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치를 할 때 컵에 물을 받아서 씹니다. (3칸 앞으로) -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꺼둡니다. (4칸 앞으로) - 쓰던 공책을 정리해서 메모지로 사용합니다.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집니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닙니다. (3칸 앞으로) - 필요한 물건을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합니다. (3칸 앞으로 간 뒤 다시 한번) - 문구류는 모양보다 실용적인 것을 구입합니다. (2칸 앞으로) <p>지구환경을 파괴하는 행동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봉지는 공짜이므로 많이 받아옵니다. (4칸 뒤로) - 다 쓴 건전지는 땅에 안보이게 묻어둡니다. (6칸 뒤로) - 음식쓰레기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수구에 버립니다. (4칸 뒤로) - 위생적이고 편리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3칸 뒤로) - 야외에서 음식을 해먹은 후 그릇은 냇가에서 씻습니다. (감옥으로) -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듬뿍 씹니다. (3칸 뒤로) - 쓰레기는 종류의 구분없이 봉투에 집어넣고 잘 버리면 됩니다. (2칸 뒤로) -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어둡니다. (4칸 뒤로) 		
참고자료	조선일보 환경팀, 『푸른교실 푸른지구』, 1996		

	4	활동시기	1~2월
제 목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월간주제	환경운동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생각해 보고 표현할 수 있다.		
활동영역	음을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곡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놀이연구회, 『어린이 노래 모음집』, 우리교육 - 1993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보통 빠르게



내가 살고 싶은 곳 맑은 강이 흐르고 예쁜
살고 싶은 곳 맑고 깨끗한 공기 푸른




꽃이 활짝 피어 나는 어여쁜 나라 내가 초록빛 나
나 무쭈쭈 자라나는



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모두 사랑해 내 것



내 것다 투지 않고 함께 -가 주세요

	5	활동시기	1~2월
제 목	벌레먹은 배추	일간주제	환경운동
활동목표	음을 활동을 통해 먹을거리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영역	음악	예상소요시간	20분
활동자료	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 노래 악보		
유의점 및 기타	곡노래가 담긴 CD나 테이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익혀두고 유아들과 반복해서 불러보도록 한다.		
자료출처	백창우,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백창우 동시에 붙인 노래들』, 보림 - 2002		

벌레먹은 배추

백창우 시·곡

♩=81



Am Em Am
벌 레 먹 은 사 과 를 먹 고 싶 어 요

Am Em Am
벌 레 먹 은 사 과 를 먹 고 싶 어 요

F Am Em Am
스 무 번 도 념 - 게 농 약 으 로 목 욕 한
농 약 으 로 처 바 른 배 추 - - 보 다 는

F Am D E
예 뵈 고 큼 직 한 사 - 과 - 보 다 는
우 리 의 싱 싱 한 오 줌 으 로 자 란

Am Em Am
벌 레 먹 은 배 추 를 먹 고 싶 어 요

Am Em Am
벌 레 먹 은 배 추 를 먹 고 싶 어 요



연구 및 집필진

환경교육센터 유아환경교육 연구모임 '생각지기'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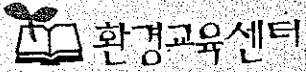
생각지기는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유아교사 워크샵에 참여했던 전현직 유아교사와 활동가들, 그리고 교육센터 부모 회원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유아환경교육 연구모임입니다.

- 김효진 모아래 어린이집 교사
- 박용로 희망세상어린이집 교사
- 안현주 푸른교육 공동체
- 장미정 환경교육센터 간사
- 전현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서울지역대표
- 주선희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 최수진 사랑유치원 교사
- 노혜영 주부, 환경교육센터 회원
- 백지선 강남유치원 교사
- 이계숙 안산YMCA 환경생태교사
- 전미경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 정순희 하비놀이학교 교사
- 최경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환경교육학과장
- 도안 한현주
- 편집 · 인쇄 달고은네(Tel.2278-1691)



환경교육센터 '푸르미 유아환경교육 기관회원' (2003년 11월 현재)

- 해바라기 재능 유치원 | 경기도 동두천시
- 대형유치원 | 구로구 대림2동
- 바다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 증평성모유치원 | 충북 괴산군
- 꿈나무몬테소리리틀스쿨 | 경남 창원시
- 강남유치원 | 동작구 상도1동
- 사당어린이집 | 동작구 사당3동
- 우진어린이집 | 경기도 이천시
- 파랑새몬테소리 어린이집 | 경기도 시흥시
- 신천유치원 | 경기도 시흥시
- 엘림어린이집 | 도봉구 방학3동
- 대진유치원 | 경기도 오산시
- 예인유치원 | 경기도 오산시
- 울곡어린이집 | 충남 당진군
- 선경유치원 | 광진구 자양2동
- 샘터유치원 | 양천구 신월7동
- 애들이 뭐하니 놀이방 | 충북 청주시
- 신화어린이집 | 도봉구 창3동
- 미래미술학원 | 경기도 시흥시
- 정한어린이집 | 강서구 방화1동



환경교육센터



생각지기가 함께 하는 **푸르미**
유아환경교육
<http://kfem.or.kr>

폐넨날 2003. 11. 28

폐넨이 송상용

역은곳 (사)환경교육센터

후 원 (재)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 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연락처 TEL. (02) 735-7000, 735-8677 FAX. (02) 730-1240



푸른 꿈나무들이 놀며 배우는
환경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과 친구하기